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5월 26일(음력4월 8일) 수요일 (주간) 제475호

상생과 나눔의 세상 열렸다

5월 23일, 전국서 연등축제
서울 30만 운집 화합 · 평화 발원
화려한 연등 장엄등 거리 수놓아

'허공에서 흰 코끼리를 탄 아기부처님이 나타난다. 천천히 무대 중앙에 위치한 연꽃 아래로 내려온다. 이윽고 연꽃 위에 내려앉는다.'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5월 23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는 허공에서 흰 코끼리를 탄 아기부처님이 땅 위에 놓여있는 연꽃 아래로 내려와 3만여 참석대중의 찬탄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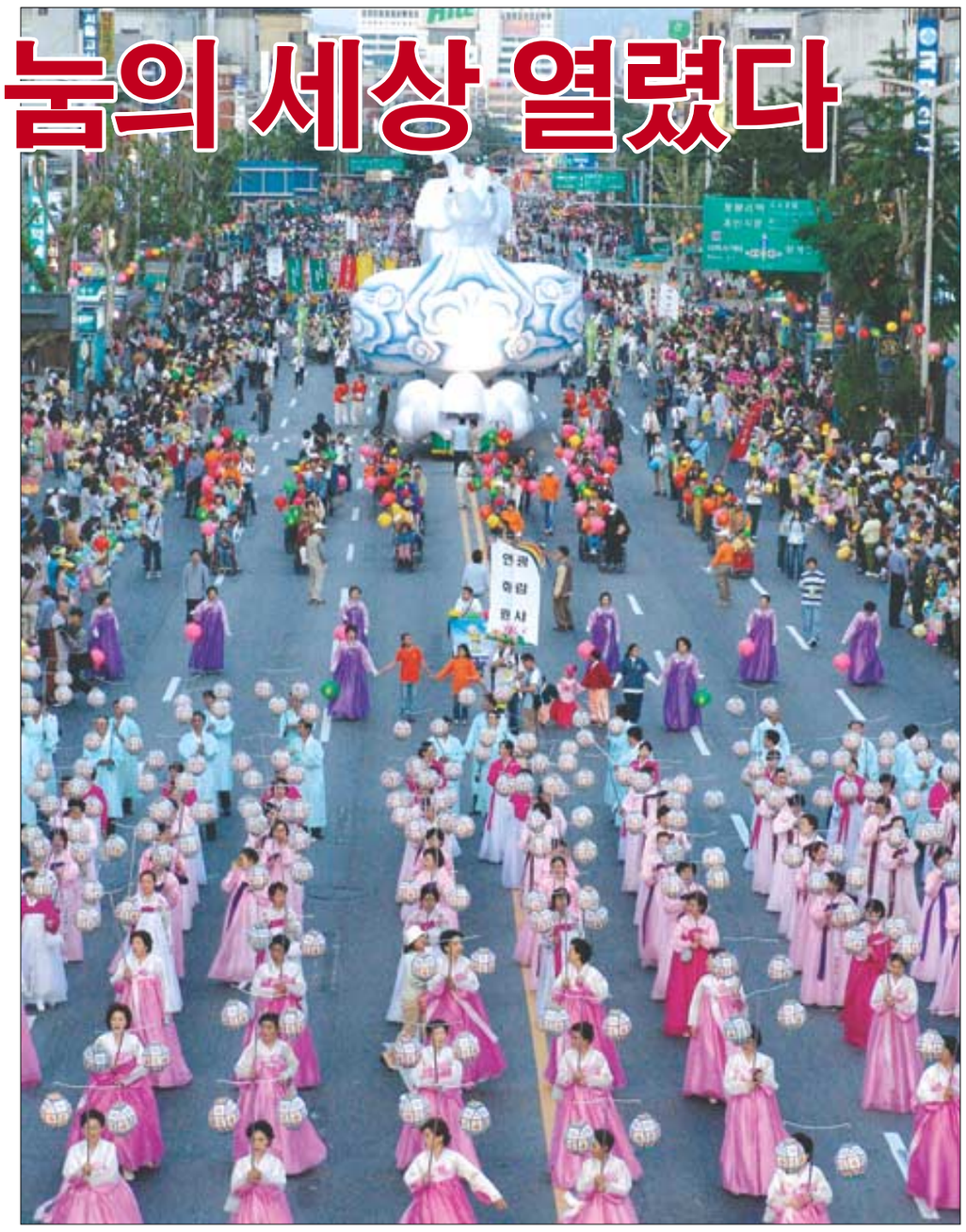
법회에서 봉축위원장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서로가 존중하는 상생의 세상,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나눔의 세상, 모두가 화합하고 기뻐하는 평화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오후 7시부터 동대문야구장-탑골공원-종각-조계사로 이어진 제등행진에서는 호랑이등, 탑등, 부처님등을 위시해 수백 가지의 화려한 상징등과 10만여 개의 등불이 서울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에 앞서 정오부터 서울 조계사 앞 사거리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당에서는 10여 개국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제불교마당과 자원봉사, 자선바자, 문화체험 행사가 열려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 지역만 연인원 30만 명이 참석한 연등축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전통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연등축제화보 16 · 17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동대문야구장-탑골공원-종각-조계사로 이어지는 제등행진. 수백 가지의 화려한 장엄등과 10만여 개의 등불이 서울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한 달 내내 '봉축특집' …금주 48면 발행

'현대불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봉축 특집'을 연속 발행합니다. '현대불교'의 특집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봉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봉축특집 주요 주제

▶첫째 주 (5월5일자) 나눔의 손잡기
▶둘째 주 (5월12일자) 오늘의 세계불교
▶셋째 주 (5월26일자) 禪수행 열풍을 잇는다

▶넷째 주 (5월26일자)

■각 종단 종정 봉축법어 6면
■도법 스님의 '길에서 맞는 부처님오신날' 7면
■불자감소…대안은 새싹포교
●'어린이 포교 중요' 말잔치만 할것인가? 11면
●긴급전화설문: 어린이 · 청소년법회 현주소는? 12면
●긴급전화설문: 사찰의 새싹포교 외면이유는? 13면
●좌담: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과제 14면
●내아이 불자만들기 15면
■지상중계: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 20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31면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봉축 법문 38 · 39면
■ 봉축화보 · 연등축제 이모저모 16 · 17면

현대불교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보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38, 39면에서 만나세요)

새싹포교, 재원 · 사람 · 의욕 '3無'

대불어 조사 법회운영사찰 9.6% 본지 설문 "생각없다" 40%

"재원도, 가르칠 사람도, 프로그램도 없다. 필요하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사찰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대불어)의 '전국 어린이법회 현황조사' 직후 현대불교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현대불교 조사는 5월 17~19일까지 3일간 전국 480개 사찰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불어가 3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3,100여 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294 곳(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법회 지도법사(교사) 수는 평균 3.2명이었으며, 법회 참가 어린이 평균 인원수는 29.5명이었다.

현대불교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80개 사찰 중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87개 사찰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부족'(31%)과 '지도 법사(교사) 부족'(27.6%)으로 드러났다.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 · 청소년 평균 인원수는 10~30명(32.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조사대상 480개 사찰 가운데 374개 사찰(77.9%)은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개설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필요하지만 나는 하기 싫다'는 이기적 의식에 대한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불교 조사에서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조사대상 480개 사찰 중 각각 87곳(18.1%)과 59곳(12.3%)이었다. 대불어 조사와 비교해 어린이 법회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회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형급 이상 사찰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11 · 12 · 13 · 14 · 15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548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온 누리에 비치고,
동체대비심이 세상속에 가득하여
생명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눔의 실천으로
기쁨과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종 정 도림 법전

총무원장 법 장 중앙종회의장 지 하
교육원장 청 화
포교원장 도 영 호계원장 월 서

大韓佛教曹溪宗



불교문화 상품을 개발하자

불교는 372년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우리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뿌리이자 전통문화다. 최근에는 서양인들도 부쩍 불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에 관한 상품개발은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최첨단 정보화 시대와 문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주변의 불교 상품을 보면 질적 · 양적 성장이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그럼, 우리의 불교 문화상품의 실제는 어떠한가. 현재 불교에 관련된 문화상품들을 살펴보면 조잡하기 그지없다. 어느 사찰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물건이 고작이다. 그 중에서도 천편일률적인 캐릭터나 그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값싼 상품들, 심지어는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허름한 상품들은 가뜩이나 특징 없는 불교상품의 이미지를 더욱 더 떨어뜨리고 있다. 타 종교에서 지역특성과 정서를 감안한 다양한 문화 상품을 쏟아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개발의 시급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불교자체를 상품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현대인 눈높이 못맞춘 상품 판쳐

온·오프라인 '감각' 살려 접근해야

우선 다양한 불교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사이트에서 나름대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영세성 및 기타 여러 이유에 의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대다수의 불교 상품들은 현대인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디자인이나 품목으로 개발돼 있다.

전국 사찰 소재지의 땅, 공기, 보유문화재, 관습, 의식주 모두 생각만 조금 바꾸면 훌륭한 불교 상품으로 무궁무진 개발이 가능하다. 다양한 상품개발은 불교문화 정진의 첫 걸음이 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해야 하겠다. 인터넷 방송의 외국어 버전이나 사이버 체험, 불교문화 유적탐방, 테마여행,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 사이버 납골당사업 등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불교관련 디지털 솔루션 개발에 관계된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데이터를 이전 · 관리하는 방식) 장치를 통해 불교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설법도 듣고, 전국의 주요 사찰도 방문할 수 있다면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다. 디지털 솔루션의 구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큰 사업이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CI 작업을 통한 캐릭터 산업이나 영상을 통한 DVD 제작 등을 시작으로 각 사찰의 이미지를 새롭게 상품화한다면, 앞으로 각 사찰이나 불교계 경제의 새로운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전 설화의 현대적 해설과 영상물 제작과 같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투자를 한다면 유 무형의 부가가치는 엄청날 것이다.

불교인이 새로운 마인드로 앞을 향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건강하고 젊은 불교, 우리와 친근한 생활 속 불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이점원(동국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잘 샀나? 동국대 필동 中大 병원 건물 못 샀나?

매입절차·가격·계약금 지불액 등 의문 증폭



동국대가 오는 12월 최종 인수하게 될 필동 중앙대병원 건물은 지상 11층인 구관과 4층 신관으로 부지면적만 1700여평에 달한다. 사진=조용수 기자

최근 동국대가 총 274억원을 주기로 하고 매입한 필동 중앙대부속병원의 계약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공간 부족으로 고통을 겪던 동국대가 연건평 4800여 평의 교육공간을 새로 확보한다는 사실에 모두 환영하고 반겼던 처음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의혹은 ▲과연 이사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매입을 결정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이었나? ▲매매가 274억원은 적절한가? ▲계약금을 왜 130억 원씩이나 지급했나 하는 것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사회 승인없이 매입

매입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현해 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던 1월 27일. 홍기삼 총장은 이날 이사회 보고안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외부에 공개 했다. 그러나 전 이사장 정대 스님 열반 후 재단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시점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사회 승인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의 경우 이전에도 선 시행 후 승인을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고 1월 26일 이사회 보고에서 대부분의 이사가 반대하지 않아 사실상 양해가 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식으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더 싸게 살 수 없었나?

지난 3월 2일자 '중대신문'은 톱기사로 필동 병원이 오는 12월까지 건물에 대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고도제한으로 개발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입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더구나 이 대학 이상윤 법인사무처장의 말을 빌어 '시중가보다 30~40억원 더 받아 만족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필동 부근 부동사 업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인근의 거래가 끊겼기 때문에 274억원 이하로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초 매입타당성을 조사했던 총무처 관계자는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역세권 빌딩을 평당 1600만원대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며 고가매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대 측이 당시 법인 사무처장이던 성국 스님에게 제시한 최초 매도가가 27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274억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130억원 타당한가

일부에서는 계약금이 130억원이나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에 대한 관행이 총액의 10%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간의 옵션계약이 있지 않고서는 드문 경우"라고 말할 정도다.

동국대 측은 이에 대해 "중앙대가 현재 추진 중인 메디컬 센터건립자금이 급박하다고 사정을 해와 우리가 양해 해준 것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불교계 안팎에서는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조용수 기자

총지종 9대 종령에 효강 종사 추대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5월 17일 서울 통리원에서 승단총회를 열고 제9대 종령으로 효강(曉岡 · 사진) 종사를 추대했다.

192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효강 종사는 85년 총지종 승직으로 입문한 이래 종의회 의원, 중앙교육원 원장, 법장원장, 통리원장,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효강 종사는 "모든 승직자가 분별심을 버리고 계행과 수행을 철저히 하는 종풍을 널리 선양하는 한편, 대중공의를 존중해 화합승단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종단협·조불련 공동발원문 채택

남북 사찰 봉축법요식서 낭독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이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종단협은 조불련과 남북의 모든 사찰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서 공동발원문을 봉독하기로 합의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종단협과 조불련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화합정신을 받들어 우리 민족의 결집된 역량과 공조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원한다.

또 "용천지역이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족 대중의 협력과 합심, 동체대비의 실천행이 더욱 요구된다"며 "그들이 하루 빨리 고통과 시련을 털고 일어나도록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제2차 포교종책 연찬회 주요내용

교구본사 역량·의지·시스템이 중요
신도시 포교·신도조직 체계화해야
포교분담금제·실무자교육도 필요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구본사의 포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이 5월 18일 불교역사기념관에서 개최한 '제2회 포교종책연찬회'에서 김한일 총무주임은 '교구 포교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교구본사의 포교역량과 의지, 포교행정 시스템 유무는 종단의 포교 역량 평가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주임은 "현재 각 교구본사들의 포교예산 비율은 전체 사찰예산의 6.69% 밖에 되지 않으며, 본사에 포교국장 외 포교담당 종무원을 두고 있거나 종법상 반드시 둬야 하는 상임포교사를 갖추고 있는 사찰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교구본사들이 제대로 포교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본사 포교국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자주 교체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석인 곳도 많다"고 지적하고 "교구의 포교역량을 강화하고 종단과 교구본 · 말사, 각종 포교신도단체를 잇는 포교행정망을 구축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포교종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와 각종 산하단체 실무자들은 "교구본사뿐만 아니라 개별 단위사찰과 신도단체들의 포교역량 강화도 시급하다"며 "일산과 안산 신도시 등 새로운 지역에 대한 종단의 포교방안과 이에 따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신도인력의 조직체계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며 "포교분담금제를 통해 포교원은 교구본말사와 신행단체들을 지원하고, 중앙집권화 차원의 포교 실무자교육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10년의 포교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포교연찬회는 6월 1일 '포교원 산하기관 진단(포교원 단체기관 담당 최영)'과 '신도회 · 신도단체 진단(중앙신도회 이상근 부장)'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자리를 갖는다.

김은경 기자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사서실장 평신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산
원로위원 선명

승정원장 성견

총무원장 법륜
총무부원장 선진
총 무 부 장 진호
사 회 부 장 체법
사 회 국 장 홍재
사 업 부 장 체도
사 업 국 장 성해
일본국제포교부장 체상
미국국제포교부장 법성

문 화 원 장 체관
포 교 원 장 벽봉
규 정 원 장 정관
교 육 원 장 화담
중앙비구니회장 대월
중앙비구니부회장 선덕

중앙종의회의장 체의
중앙종의회부의장 천호 지관
중앙종의회의원 체혜 체선 체명 체각 보선 성욱 풍원 송운 성수 원심

◎ 전국교구 종무원
전라종무원장 진운
충청종무원장 체두
경남종무원장 은혜
경북종무원장 불선
부산종무원장 대천
인천종무원장 법원
대구종무원장 송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23호 TEL 02) 853-0531 FAX 02) 853-0533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

종정 · 원로 스님 27명 대상… 5월 31일 해인사서

'대종사 휘장' 도 첫 선, 종단 위계 확립 계기

조계종이 대규모 대종사(大宗師) 법계 품서식을 5월 31일 오후 3시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한다.

이번 품서식에는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2001년 9월 이전 전계대화상이나 원로의원을 지낸 스님들과 현직 원로의원 스님들 등 총 27명이 법계를 품서 받는다.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따라서 법계 중 최상위인 대종사는 최고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을 갖춘, 승가로서 최고의 지위에 해당한다.

또한 대종사는 종정이나 원로회의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중의 하나다.

품서식에서는 2002년 2월 원로회의의원에 추대된 지혜 · 초우 · 진제 · 혜정 스님과 2002년 3월 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고산 · 밀운 스님 등 대종사 법계 품서 예정인 스님 6명과 관련 법령에 의거 이미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 법전 종정 스님 및 전임 전계대화상 석주 · 범룡 스님, 전 · 현직 원로의원 스님 21명이 법계를 품서 받는다.

품서식은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헌화, 서원, 법계증 수여, 청법계, 종정법어, 가사수여, 발원문, 축하봉정,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 법계증과 가사는 종정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받는 대표 1인에게 수여한다. 특히 가사 수여 시 연꽃 형태에 당초무늬를 바탕으로 조계종의 상징인 삼보륜이 있는 '대종사휘장' 도 첫선을 보이게 된다.

또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법계를 품서한 스님들에게 불자(拂子)를 개별 봉정하고, 전체 대중이 대종사 스님들께 삼배의 예를 갖추는 순서도 진행된다.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종헌 제26조 ①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랍 45년, 연령 64세, 법계 대종사급의 원로 비구로 구성 한다'와 지난 2001년 9월 10일 개정된 법계법 부칙 제2조 (이 법 적용의 예외) '이 법 시행 이전에 품서된 법계와 이 법 시행이전 및 시행당시 종법의 의하여 법계가 요건으로 규정된 직위를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당 법계를 품서한 것으로 한다'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실시된다.

대종사 법계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특별전형은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계 품서는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종정 스님이 행하게 돼 있다.

총무부장 성관 스님은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종단에서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하던 부분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며 "법계를 품서함으로써 종단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종단적 의지가 내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서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들과 중앙종회의장 등 종회 주요 소임자, 각 교구본사 주지, 각급 위원회 위원, 역대 총무 · 교육 · 포교원장 및 전국비구니회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법계 체계는?

조계종으로 출가하면 6개월의 행자 생활(행자교육원에서 1개월 교육 포함)을 거친 뒤 사미계를 받는다. 또 4년 동안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본선원)을 마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비구(니) 법계는 견덕(계덕)(승랍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중덕(정덕)(승랍 10년 이상, 견덕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대덕(혜덕)(승랍 20년 이상, 중덕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덕(현덕)(승랍 25년 이상, 대덕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사(명덕)(승랍 30년 이상, 종덕법계 수지자), 대종사(명사)(승랍 40년 이상, 종사법계 수지자)로 구분된다.

대종사 법계 품서받는 스님들


법전(法傳)
조계종 종정
1935년 수계


석주(昔珠)
前 전계대화상
1928년 수계


범룡(梵龍)
前 전계대화상
1929년 수계


도천(道川)
원로회의의원
1929년 수계


원담(圓潭)
원로회의의원
1933년 수계


수산(壽山)
원로회의의원
1938년 수계


녹원(綠園)
원로회의의원
1941년 수계


도원(道源)
원로회의의원
1942년 수계


성수(性壽)
원로회의의원
1944년 수계


도견(道堅)
前 원로회의
의원
1944년 수계


보성(菩成)
전계대화상
1945년 수계


원명(元明)
원로회의의원
1945년 수계


벽암(碧庵)
前 원로회의
의원
1946년 수계


정천(正天)
원로회의의원
1947년 수계


천운(天雲)
원로회의의원
1947년 수계


숭산(崇山)
원로회의의원
1947년 수계


지관(智冠)
원로회의의원
1947년 수계


종산(宗山)
원로회의의원
1949년 수계


이두(二斗)
원로회의의원
1950년 수계


활안(活眼)
원로회의의원
1953년 수계


동춘(東椿)
원로회의의원
1956년 수계


지혜(智慧)
원로회의의원
1940년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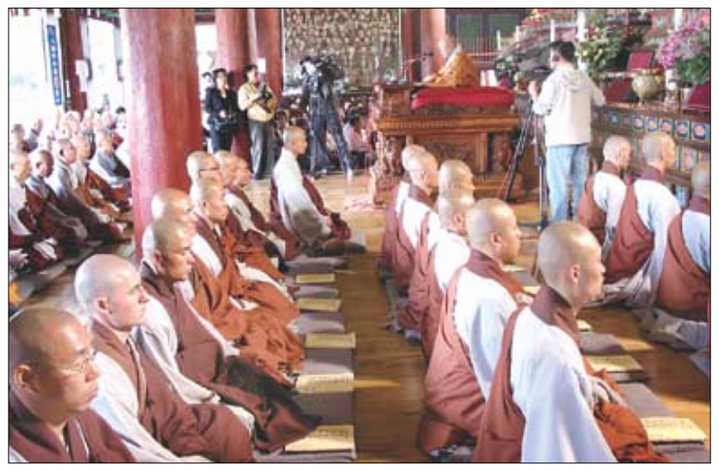

초우(草宇)
원로회의의원
1947년 수계


고산(皐 山)
쌍계사 조실
1948년 수계


진제(眞際)
원로회의의원
1953년 수계


혜정(慧淨)
원로회의의원
1953년 수계


밀운(密耘)
봉선사 회주
1954년 수계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이 2천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이 5월 17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종정 법전 스님,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 총무원장 법장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봉정식에서 '금강경'과 '아미타경'을 중심으로 한 동판 40경판이 부처님전에 봉정됐다.

법전 스님은 "칠백년 동안 법의 지남(指南)이 되어왔던 고려 목판 팔만대장경이 대한민국시대에 동판으로 다시 조성되어 불법만년 시대를 이어갈 시절인연이 도래하였다"며 "이 동판 팔만대장경은 달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 역시 달을 보도록 해주는 대 선지식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세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국보 32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대장경의 활용, '21세기 신대장경'의 조성, 그리고 법륜상전과 국운융창,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발원을 담게 되는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2006년 말까지 3질을 완성해 1질은 해인사에 보관하고, 또 1질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나 금강산 신계사에 기증하고, 1질은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불자대상' 황우석 교수 · 박세리 선수


황우석 교수


박세리 선수

조계종이 2004년부터 시행하는 '불자대상' 수상자에 서울대 임상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와 골프선수 박세리 씨가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 20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성관)를 개최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학술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황우석 교수와 최연소 미국 골프 명예의전당 가입 자격을 획득한 박세리 선수를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6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서 거행된다.

불자대상은 조계종이 문화, 예술, 학술, 교육, 복지, 환경, 통일, 국제, 스포츠, 사회봉사분야 등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불법의 홍포에 기여한 바가 큰 불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1999년 국내 최초 체세포 복제 송아지 '영롱이' 연구와 광우병 내성을 지닌 소 개발에 이어,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배양에 성공했다. 미 여자골프(LPGA)에서 활약 중인 박세리 선수는 1998년 맥도널드 챔피언십 등 주요 대회에서 총 21회 우승했다. **남동우 기자**

중앙승가대 새 이사 청화 · 정념 스님 선임

중앙승가대 새 이사에 청화(조계종 교육원장) · 정념(동문회장,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5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66차 법인 이사회를 열고, 청화 · 정념 스님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2003년도 학교회계 결산승인 건'과 '신규임원 선임 건' 등을 처리했다. 법인 29억여원과 학교 26억여원에 대한 전년도 회계 결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용수 기자



2백년 전 '작법구감' 현대어로 환생


법천 스님이 <작법구감>을 펴보이며 설명을 하고 있다.

200년전 백파(白波)선사가 순창 구암사에서 저술한 당대 최고의 불교의식집 <작법구감(作法龜鑑). 제호 '구감'>이 현대에 맞게 복원됐다.

광주 학림사 주지 법천 스님(태고종 광주 · 전남 종무원장)은 5년간의 노력 끝에 5월 15일 '전통의식 작법구감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복원된 <구감>은 백파스님이 저술한 책을 원본으로 한글음을 달고 글자마다 소리음 (四聲)을 표시해 누구나 쉽게 전통불교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로부터 염불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법석에 모이도록 하는 힘이 있어 소리하는 스님을 인도(引導)라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염불송이 주먹구구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정리해야겠다고 원을 세웠다가 이제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천 스님은 25년 전 은사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구감>을 발견했다. 오래되어 너덜너덜해진 이 책은 그동안 말로만 전해오던 백파스님의 <작법구감> 원본 2권 이었다. 스님은 <구감> 책장을 넘기며 마치 '부처님을 친견하듯' 환희심이 일었다. 후학들을 위해 복간하기로 원을 세웠고, 5년 전부터 직접 복원작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근세까지 전해오던 작법구감이 사라진 것은 한자로 되어있어 어려웠기 때문. 다행히 1931년 안진호(安震湖) 스님이 <작법구감>에 한글음을 새기고 내용을 축약한 <석문의범(釋門儀範)>을 편찬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의식문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이 많고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알 수 없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백파선사 구암사서 저술
광주 학림사 법천스님 복원
원본에 한글, 소리음 표시

백파스님의 <구감>을 원본그대로 복원한 법천 스님은 50여 년 전 선암사로 출가해 소리를 배웠고 대흥사에서 범패를 정식으로 공부했다. 국내최초로 <구감>에 소리음을 표기한 것도 이런 기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천 스님이 표기한 소리음은 글자의 좌 · 우측, 위 · 아래에 점을 찍어 표기하는 방식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은 거성으로 가장높이 구비치는 소리이고, 아래쪽 점은 입성으로 몹시 빠르게 닫는 소리이다. 또한 왼쪽 상단의 점은 상성으로 처음에는 낮고 차차 높아져서 가장 높게 그치는 소리이며, 그 아래 점은 평성으로 가장 낮고 편안한 소리이다.

이처럼 <구감>의 소리음 표기는 시 · 공간을 초월해 법에 맞는 염불송을 공양할 수 있어 전통불교의식 분야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이다.

이렇게 <구감>복원작업을 마친 스님은 원고를 들고 서울에서 반년을 돌아다녀야 했다. 출판사마다 상업성이 없다며 일반출판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님은 다시 광주로 돌아와 사비를 들여 직접 출판까지 감행했다.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구감>을 공양올릴 수 있어 더욱 좋은 일입니다. 모쪼록 사찰마다 꼭 비치해 놓고 부처님 전에 여법하게 예를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의 (062)222-4133

광주=이준엽 기자

송광사, 삼월불사 봉행

16국사에 햇차, 꽃 공양


5월15일 송광사에서 열린 보조국사 종재.

불기 2548년 송광사 삼월불사가 5월 14~15일 양일간 송광사 경내에서 봉행됐다.

이번 삼월불사는 보성 · 원명 · 보광 · 통광 · 현산 · 인각 · 다정 · 현묵 · 범종 · 영진 스님을 삼사칠증으로 모시고 보조국사 종재를 비롯 보살계 수계산림, 가사불사 점안, 사천왕문 상량식으로 진행됐다.

15일 국사전에서 열린 불일 보조국사 종재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조국사를 비롯 송광사가 배출한 16국사전에 햇차와 꽃을 공양했다.

이에 앞서 대웅전에서 열린 보살계 수계산림에서 1500여명의 불자가 보살계를 수지했다.

한편 송광사는 14일 해체복원중인 사천왕문 상량식을 가졌다. 이번에 복원되는 사천왕문 사천왕에서 보물급 성보문화재가 발견되어 일반에 공개된 바 있다.

이준엽 기자

충주 석종사, 대웅전 준공법회

혜국 스님 "전통 선도량 계승"…매월 첫 토요일 정기법회

충주시에 전통 선수행도량으로 대가람 석종사가 들어서면서 5월 15일 열린 대웅전 준공법회는 스님 5백여 명을 비롯 8천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20년 전 혜국 스님이 추진해온 석종사 불사가 본격적인 건축물 조성을 해온지 3년만에 거행된 대웅전 낙성법회에서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주자 시주자 동참불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도인을 탄생시키는 선도량으로 계승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주지)은 법어를 통해 신심과 남다른 노력과 정진 속에서 불사는 성취됨을 강조하고 석종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찰이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석종사는 현재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채 등 7개동의 건축불사를 1차 회향했고 이어 재가선방 등을 신축해 명실상부한 한국 선수행도량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선원장 혜국 스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갖는다. (043)854-4505 강유신 기자

사부대중 하나된 화합 · 나눔의 마라톤

16일 경주 남산 통일전서 열려
2천여명 참가, 선원스님들 눈길

불교계가 최초로 마련한 마라톤대회가 5월 16일 경주 남산 통일전에서 열렸다.

대구경북 5개교구본사와 경주시가 주최한 제1회 경주남산 산길 마라톤대회는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 스님, 불국사주지 종상스님,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Km 하프코스와 10Km의 산길 마라톤코스, 5Km의 걷기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가 처음 주최한 이 대회는 장애인학생 4명에게 전동휠체어를 전달하고, 스님과 장애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5Km 걷기에 참석하는 화합과 나눔의 어울림마당이 됐다.

불국사 승가대학 스님들의 법고시연과 골굴사 선무도 시범에 이어 종상스님의 대회선언에 이어 달리기가 시작됐다.

불국사 선원에서는 선원장 스님을 비롯해 7명의 스님이 10Km에 출전해 눈길을 끌었고, 금오 치매어르신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구미전자공고 동호회 인터렉트 회원의 도움을 받아 치매어르신 7명이 참석했다. 강아지와 함께 마라톤을 즐기는 애견클럽동호회의 이색풍경도 있었다. 아빠의 산길 마라톤을 격려하고 엄마랑 걷기에 동참한 아이들도 보였다.

5Km 걷기를 완주한 법타 스님은 "이 대회가 개인의 건강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봉축의 의미, 하나되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은해사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마라톤 대회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스님과 재가, 장애인, 남녀노소가 어울리는 화합의 마당, 축제의 장으로 회향됐다. 이 대회를 기획한 대회운영위원 진오스님(구미사회종합복지관 부관장)은 "불교문화유산이 있는 산길 코스를 택해 다른 마라톤대회와의 차별성을 두었다"며 "이 대회를 통해 불교의 역동성과 화합 나눔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스님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출발지점을 막 나서고 있다.

뷰티풀~ 부처님 생신 축하해요
외국인 55명 연등만들기 참여

한나래문화재단 국제부(회장 김건웅)가 '외국인과 함께 연등만들기' 행사를 연 5월 16일, 홍법사(주지 심산)를 찾은 외국인 55명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나라는 달라도 연등을 만들며 환하게 밝아지는 표정은 한결같다.

한나래문화재단의 76회 째 행사로 오색의 팔각등과 연꽃등을 만드는 시간에 이어 흥겨운 사물놀이가 이어져 외국인들의 흥을 돋웠다.

알록로이 외국어대 교수는 "만들 때마다 연등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느낀다"며 웃어보였다. 와다와베 동주대 교수, 필리핀 출신의 안트넷 등은 한나래 문화재단의 행사로 인연이 닿아 한나래문화재단의 고문을 맡아 외국인 포교를 돕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포교를 위해 시작된 한나래문화재단의 전통문화체험은 그동안 차만들기, 송편 만들기, 윷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다. 천미희 기자

청화 큰스님 탐방기
'성자의 삶' 출판 기념회


<성자의 삶> 출판기념법회에는 5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입적한 청화큰스님의 행장과 수행처 탐방기를 엮은 <성자의 삶> 출판기념회가 5월19일 광주 상록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성륜사(주지 도일)와 성륜사 신도회(회장 정해숙)가 마련한 이날 기념회에는 지선(고불총림 유나), 현산(화엄사 선원장), 두백(백양사 주지), 용타(벽산문도회) 스님 등 문도스님과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교수, 소설가 남지심씨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재가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향림사, 린포체 초청법회

티벳 툴루 텐징 노루부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및 만다라 친견 법회가 5월 19일 광주 향림사(주지 혜향)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향림사 조실 천운 스님은 "린포체가 자리한 이 법좌는 불교의 요체인 윤회를 증명하는 법회이다"며 "불자라면 요행수에 의지하기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정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대구신도회 찬불가 경연대회
경북불교대 합창단 대상 수상

대구광역시 신도회가 주최하는 전국찬불가경연대회가 5월 15일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려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경연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은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합창단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 반야합창단이 수상했다. 또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불로사 룸비니 어린이 합창단이 수상했다. 배지선 기자

봉 대한불교 천태종 축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전운덕
총무부장 박덕수
교무부장 변춘광
재무부장 남궁도재
교육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무원
규정부장 조진덕
종정사서실장 이문덕

종의회
종회의장 윤덕산
종회부의장 장도정
종회부의장 박노승

감사원
감사원장 주정산
감사위원 김경천

중앙신도회장 김유혁
금강대학교 총장
금강불교대학 학장 이재창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전화 043) 423-7100~8 / 팩스 043) 420-7399

清心淨土

2548 BUDDHA'S BIRTHDAY

卽身成佛 現世淨化

한국밀교의 중흥종단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印 慧一

統理院長 孝庵 宗議會議長 鎭山
教育院長 惠淨 查監院長 烋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쿵쾅쾅 풍물놀이 행복한 동자들

청도 청계사 혜봉 스님과 10명의 물레방아예술단



혜봉 스님이 청계사 앞마당에서 멋쩍은 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5월 19일 오후 4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초등학교 앞. 하나 둘씩 아이들이 12인승 봉고차에는 오르면서 운전석에 있는 혜봉 스님에게 말을 건넨다. 키가 큰 진송이가 먼저 나타나고, 성갑이가 나타났다. 저기 트럭 뒤에 숨은 놈은 개구쟁이 수연이다. 대현이는 한반 여자친구랑 재잘 재잘 얘기중이다. 운동화 끈이 다 풀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 삼매에 빠졌다.

"대현아, 운동화 끈 매고 놀아라", "저놈 , 하이고~ 트럭 뒤에 숨었네", "종범이는?" "대현아 넌 피아노학원 갔다 와야지" 스님은 여기저기서 돌아오는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기 바쁘다.

"스님 정말 웃겨요" 우하하~

어느덧 봉고에는 아이들로 가득차고 하루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하느라 봉고가 떠나갈 듯 소란스럽다.

"출발~"

경북 청도군에서 운문사 쪽으로 가다가 나타나는 금곡리 마을 마음의 고향 청계사에는 이렇게 스님과 사내아이 10명이 살고 있다.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아늑한 법당에는 '부처님 마음'이라는 현판이 눈에 띈다. 봉고가 경내로 들어가자 멍멍이 곰순이가 반갑다고 뛰어나오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걸려있는 오색 연등이 반짝인다. 2층 공양간에서는 할머니(신도회장 김영자, 63)가 손을 흔들고 아이들을 반겼다.



풍물솜씨를 뽐내고 있는 청계사 아이들.

아이들은 오자마자 공부방으로 가더니 책가방을 던져놓고는 각자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들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쓰레기도 버리고 이것저것 잔 심부름도 거든다. 작은애들은 만화책을 보는가하면 카드놀이도 하고 공양간 할머니 옆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한다.

스님 흉 좀보라고 살짝 물었더니 "응, 응…"하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스님 정말 웃겨요"라며 마구 웃는다. 스님이 잠깐 안보이면 모두들 스님을 찾아 난리가 난다. 그만큼 스님은 아이들에게 인기다.

스님과 가장 재미있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스님과 야구하면 정말 재밌어요."라는 아이들. 스님은 여름이 되면 아이들과 야구도 하고 법당 옆 계곡에서 수영도 한다.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가끔 스님은 호랑이로 돌변한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아주 매섭고 따끔하다. "스님이 혼낼 때는요, 우리가 공부안하니까 그러지요" 아이들의 대답이 개구지다.

이곳 청계사에는 잘 정돈된 법당 앞마당을 가로질러 요사채가 있다. 요사채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스님방과 아이들 방 3칸이 마주해 있고, 아이들 공부방이 따로 마련돼 있다. 2층은 공양간이자 사무실이자 접견실 기능을 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사방이 책장으로 둘러싸인 스님 방엔 한국전래동화, 사고력을 기르는 이야기, 웅진세계명작 등 스님 책 보다는 애들 책이 더 많다. 그리고 크레파스, 물감, 파레트 풀, 색종이들이 정겹게 놓여있다.

스님은 무슨 사명감이 있어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것이 아니라고 취재를 거부했다. 단지 한 스님이 사내아이 하나를 데려와 거둬줄 곳을 찾는다는 말에 지나칠 수 없어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출가수행자가 오는 인연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오갈 데 없는 소외받은 인연이니 그냥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수연군과의 인연이 시작되면서 어느덧 10명 사내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지금은 박수종, 김경현, 이진송, 강성갑군이 매전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고, 양근일군이 동산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다. 수연이는 5학년, 장대수는 4학년, 대현이와 광섭이는 3학년이다. 막내 종범이도 학교에 들어가 1학년 학생이 됐다.

"사실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애들과 놀아요." 스님은 이 한마디가 전부다. 모든 것을 부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스님에게는 곳곳에서 부처님의 손길이 찾아와 아이들 성장을 돕는다. 부처님의 아이들인 것이다.

"해줄 건 없고 그냥 놀아요"

울산학춤연구소에서 주말마다 와서 '바라춤'을 가르쳐 주고, 마산 선유풍물연구소에서는 풍물을 가르친다. 또 대구에 사는 가야금 선생 정순식씨는 가야금을, 신도회 재무 이은희씨는 서예를 가르친다고 나섰다. 신도회장 김영자씨는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다. 매일 경산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와 청소며 빨래며, 간식과 반찬을 해주고 간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불교교리와 예법을 억지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받아들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부처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볼 뿐이다. 다만 부모로부터 소외당한 마음의 상처로 혹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일주일에 2번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은중경을 가르친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곳은 살아있는 부처님 도량이다.

작년부터 배운 풍물은 이제 제법이어서 가끔 작은 연주회에 초대받기도 한다. 그래서 스님이 이름도 지어주었다. '물레방아 예술단'이라고. 물레방아란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와 무상을 뜻한다는 것이다. 무상이란 늘 변한다는 의미라고.

1학년 종범이도 자기 덩치만한 북을 꺼내오는데 솜씨가 제법이다. 큰북이 자꾸 달아나지만 작은 손으로 꼭 움켜쥐고 형에게 뒤질세라 박자 하나 놓치는 법이 없다.

꽝꽝 꽈광꽝!

어느덧 송글송글 구슬땀이 맺히는가 싶더니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났다. 아이들은 소리로 하나가 되어 온 산을 쩌렁쩌렁 울리는 희열감에 젖어들었다.

이번 초파일 계획을 묻자 스님은 빙그레 웃기만 한다. 작년엔 이곳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아주 인기였다. 그러나 올해는 준비가 여의치 않아 당일 날 아이들과 신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작은 어울림 마당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물레방아예술단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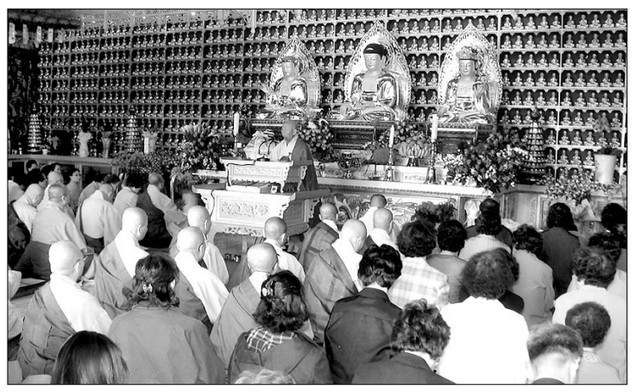
청계사 아버지 스님과 물레방아 꼬마 예술단 10명은 초파일을 앞두고 이렇게 바람같이 구름같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 품에서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며 살고 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정법사

'빼어난 경관' 도심 속 휴식처



정법사는 지난 4월 천불을 모신 대웅전 중창불사를 마치고 낙성법회를 가졌다.

서울 성북구 성북 2동에 위치한 정법사. 정법사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서울 한복판에 이런 사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이다. 주변 경관도 아름다워 '휴식처' 같은 포근함이 느껴진다.



법진 스님

정법사가 이곳에 자리잡은 것은 1959년. 정법사는 원래 종로구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 서울포교당이었다. 현재 정법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는 석산 스님이 염불만일회의 맥을 이어 가회동에 포교당을 개설했는데, 이곳 성북구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찰명도 정법사로 개명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정법사는 석산 스님의 뜻을 이어 기도도량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청년회원 대부분 어린이법회 출신
20~30년 함께 생활… 호흡 '척척'

그런 정법사가 최근에는 포교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4월, 3년여 동안 진행해 온 대웅전 중창불사를 회향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방과 극락전 건립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불사에 매진하는 이유는 바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60평 규모의 대웅전은 천불전으로 조성됐다. 퇴락했던 대웅전이 새롭게 탈바꿈함에 따라 정법사는 면모를 일신했다. 대웅전 아래 건립될 선방은 정법사가 지향하고 있는 '열린 공간'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누구나 찾아와서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화선, 염불선, 명상, 요가 등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지 법진 스님의 계획이다.

거사들과 청년들로 구성돼 있는 일요법회 활동도 눈여겨볼만하다. 정법사가 포교도량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일요법회의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비롯한 각종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수시로 좌담회를 열어 지역 포교와 정법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거사들과 청년회원 대부분이 이곳 어린이법회 출신이라는 점이다. 20~30년을 함께 생활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호흡이 척척 맞는다. 다른 신도들도 2~3대를 이어온 '대물림 신도'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주지 법진 스님 역시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신도들과 호흡을 함께 해왔으니 정법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정법사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주지 법진 스님은 "정법사의 주인은 신도들이고,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며 모든 공을 신도들에게 돌린다.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속에서 정법사는 지금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새달법인 대한불교진흥원 | 6월 1일~8월 31일 3개월간 | 불교문화센터 강의실 전면 개보수하여 새롭게 open 하였습니다.

불교문화센터 제47기 (6월 1일 개강) 수강회원 모집

신행도량으로 새롭게 단장한
多寶院 법회 안내

불교교리강좌

아함경
자명 스님 : 서울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매주 수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참선 이야기(6월 10일 개강)
혜거 스님:금강선원 원장
매주 목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불교의 중심사상
김종욱: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연구교수
매주 목요일 13:00~14:30
50,000원(3개월)

서화강좌

서예(書藝)/A
신덕선 : 서예가/ 미협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매주 화요일 10:00~14:00
70,000원(3개월)/ 25명 정원제, 선착순

서예(書藝)/B
정복순 : 서예가/국전대상작가
매주 화요일 14:30~18:00 70,000원(3개월)

신설 – 한글서예
임인선: 서예가
매주 토요일 10:00~13:00 70,000원(3개월)

문인화
최형주 :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매주 금요일 13:00~15:00 80,000원(3개월)

민화(民畵)그리기 / 초급, 중급
이영자 : 민화가
초급 : 매주 목요일 13:30~15:00
중급 : 매주 목요일 10:00~12:30
60,000원(3개월)/ 25명 정원제, 선착순

유 화
장동문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연4회 특선
매주 화요일 10:00~13:00 90,000원(3개월)

서양화(누드)
장동문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연4회 특선
매주 화요일 14:00~17:00 90,000원(3개월)/모델료 별도

사군자
최형주 :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역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80,000원(3개월)

건강강좌

요 가 1. 2
이영진: 한국요가연수원
1. 매주 월 · 수 · 목요일(주 3일 수업) 09:30~11:00
2. 매주 월 · 수 · 목요일(주 3일 수업) 11:00~12:30
100,000원(3개월)

요 가(새벽반)
이영진: 한국요가연수원
매주 월~금(주 5일 수업) 07:00~08:30 140,000원(3개월)

요 가(저녁반)
이선미: 한국요가연수원
매주 월 · 수 · 목(주 3일 수업) 19:00~20:30
100,000원(3개월)

신설 – 어린이 요가와 집중력
김명현: 한국요가연수원
매주 월 · 목(주 2일 수업) 16:00~17:00 80,000원(3개월)

위빠사나(명상/호흡)
강명희: 위빠사나 연구가
매주 화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불교강좌

단청(초급, 연구)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단청부분 4명 합격)
· 정송희 : 단청 강사
· 연구 : 매주 금요일 10:00~12:00
· 초급 : 매주 금요일 12:10~14:10
각 60,000원(3개월)

불화(佛畵)그리기
김익홍 : 불화가
매주 월요일 10:00~12:00 60,000원(3개월)

사 경
김경호: 전통 사경 연구가
매주 월요일 14:00~15:30 50,000원(3개월)

전통교양강좌

한국무용
최윤희 : 무용가
매주 월요일 13:30~15:00 50,000원(3개월)

생활꽃꽂이와 꽃장식
보명스님 : 연화꽃꽂이 회장
매주 수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재료비 별도

불교전통꽃꽂이
보명스님 : 연화꽃꽂이 회장
매주 수요일 13:00~14:30 50,000원(3개월)
재료비 별도

노래부르기교실
조성희 : 문화센터 노래부르기 강사
매주 화요일 14:00~15:30 60,000원(3개월)

신설 – 스포츠 댄스
성수정: 스포츠댄스 강사/라틴 챔피언
매주 금요일 11:00~12:30 80,000원(3개월)

생활역학강좌
이태권 : 동제개운학회 이사/역학연구가

초급반	10:00~11:30	역학의 구성 / 기초	각70,000원 (3개월)
중급반	12:00~13:30	육친활용 / 12운생법	
고급반	13:30~15:00	神殺類 길신,흉신	
연구반	15:00~16:30	용신정법 및 격국활용	

매주목요일 / 25명 선착순마감

연수반(연수 및 주역)
매주 수요일 13:30~15:00 70,000원(3개월)
교육내용 : 사주풀이 및 응용/ 주역괘상을 표출/ 사주대입, 단역점

기문둔갑 / 초급·중급·고급
신정균 : 기문둔갑연구가
기문둔갑/초급(매주 금요일) 09:30~11:30
기문둔갑/중급(매주 금요일) 11:30~13:30
기문둔갑/고급(매주 금요일) 13:30~15:30
각 80,000원(3개월)

인상학
이은실 : 인상학 연구가
매주 월요일 10:30~12:00 60,000원(3개월)

풍수지리
최도곤 : 건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매주 월요일 13:30~15:00 60,000원(3개월)

어학강좌

해외여행영어
진우기 : 문화센터 전임강사
매주 수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직장인을 위한 영어회화
진우기 : 문화센터 전임강사
매주 월·수요일 12:10~13:00
60,000원(3개월)

유아 어린이 강좌

엄마와 함께 그림, 만들기(4~5세)
유아 그림, 만들기 (6~7세)/2회 수업
유아 토요미술 (5~7세)/2회 수업
초등미술(1~2학년)
초등미술 (3~6학년)
유아구연동화교실
어린이구연동화교실
어린이영어교실
유아과학교실
어린이과학교실/1학년
어린이과학교실/2, 3학년
고학력 고급과학/4~6학년
독서와 글쓰기/1. 2. 3학년
독서와 논술/4. 5. 6학년
바이올린/초급, 중급

다보법회
일 시 / 6월 2일(수) 오후 2시
법 사 / 김종욱 교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연구교수)

일 시 / 6월 16일(수) 오후2시
법 사 / 송석구 교수(前 동국대학교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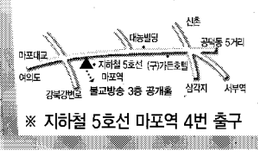
일 시 / 6월 23일(수) 오후2시
법 사 / 혜담 스님(각화사 주지)

일 시 / 6월 30일(수) 오후2시
법 사 / 지명 스님(前 법주사 주지)

관음재일 인등축원 기도법회
일 시 / 6월 11일(금) [음력 4월 24일] 오전7시

불교경전강좌
일 시 / 6월 9일(수) 오후2시
강 사 / 임승택 박사(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주 제 / 안반수의경

불교진흥원 · 불교방송 법당 / 공개홀 多寶院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문의전화 : (02)703-0108 팩스 : (02)3273-1618
www.dabo.or.kr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외환은행 : 189-22-01147-4
예 금 주 : (재)대한불교진흥원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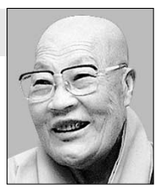
각 종단 봉축법어(무순)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모든 고통 편안케 하리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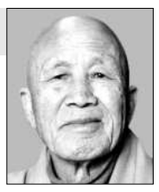


약인정좌일수유(若人精坐一須臾)
승조하사칠보탑(勝造河沙七寶塔)
보탑필경화위진(寶塔畢竟化爲塵)
일념정심성정각(一念靜心成正覺)
만약 어떤 이가 1수유를 정좌해 있는다면
모래로써 칠보탑을 지음보다 나으리로다.
보탑은 필경 변하여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고요한 마음은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그 중심인 성품자리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땅의 중생들에게 바른 생각, 바른 길,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천지 광명 얻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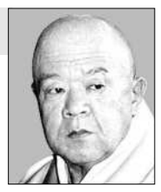
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



세존강림세간래
(世尊降臨世間來)
암흑천지대광명
(暗黑天地大光明)
일체중생득활력
(一切衆生得活力)
중생함락원성취
(衆生含樂願成就)
세존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어두운 천지가 광명을 얻었도다
일체 중생이 활력을 얻으니
만중생이 즐거움을 더하고 소원을 성취하리로다.

자비로써 부처 이루리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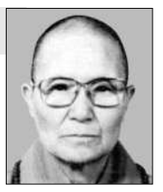
자비의 근본은 타인의 행복을 빌고 남의 불행을 나의 고난과 불행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행 실천의 적(敵)은 자아의 아집(我執)과 아리(我利), 아욕(我慾)에 의하여 소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파하고 대자유인의 상락아정의 어귀에 귀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만을 위하고 자신만이 잘 사는 길이 중생이요 타인을 위한 삶을 여는 것이 부처의 지혜입니다. 자비가 어찌 타인만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이 또한 혜명의 지혜라 할 것입니다.

자리이타행을 몸소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만이 부처를 이루는 길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몸은 고요 공이며 무상일진대 정진수행 아니하고 어찌 여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렁찬 법음 온 우주에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물질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오욕락의 꿀의 단맛을 지속적으로 탐익하기 위하여 감각적인 '나'의 허상에만 사로잡혀 남을 이해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보다 무시하고 시기하며 시시비비로 개인의 번민과 사회의 갈등, 나아가 국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일시적 충족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부릅니다. 소욕지족하는 삶의 의미를 깊이 새겨 부질없는 허망한 삶으로 일관했던 타성적인 삶을 청산하는 뜻깊은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을 계기로 무감각한 삶과 결별하는 심기일전의 연등을 밝힙시다. 룸비니의 외침처럼 부처님을 닮아가는 보살행에 매진하는 서원의 등을 밝힙시다.

화합으로 상처 치유를

총지종 종령대행 우승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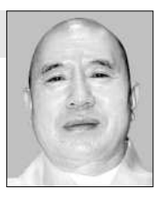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은, 일체중생을 고해로부터 해탈시키고자 함이요, 중생들에게 드리워진 무명의 그늘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미혹과 고난, 다툼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부처님 시현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아실현의 길을 열어 주셨고, 또 모든 중생들에게 정각의 근본인 불성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와 '너'라는 분별심과 이기심, 아집과 편견, 시기와 질투, 원망심과 간탐심으로 가득찬 나를 버리고, 크고 둥글며 자비로 가득찬 마음으로 회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극락정토 함께 만들자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저 허공에 떠있는 태양이 차별없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온 누리 중생들에게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과거에 비해 눈부신 발전을 해왔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희생과 헌신, 소외와 배척, 갈등이 상존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극의 시대를 접고 크게 반성하고 각성하여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사회, 문화와 복지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진리의 광명이 빛나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높이 들어 어두웠던 대지를, 불행했던 어제를 행복한 내일로 만들어 갑시다.

이기심 놓고 평화 나누자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불탄지일대사인연(佛誕之一大事因緣)
번뇌단혜장보리생(煩惱斷慧長菩提生)
사예세척지상정토(娑穢洗滌地上淨土)
속평통일세민영락(速平統一世民永樂)
시묵조지기기요요(是默照之機機要要)
석존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근본 목적은 중생들의 번뇌와 무명을 단절하고 지혜와 보리를 증장시켜 지상정토를 세우고 중생들이 영원한 안락을 얻고자 함입니다.

남북 평화통일을 빨리 이루어 세계 인류가 다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이 오신 참 뜻입니다. 고요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묵조선의 지혜광명의 일승지 요법이라 하겠습니다.

견성성불 문을 여나니

열반종 종정 해곡



산하대지가 포효하면서
꽃비 내리며 한빛의 방광
고고하게 나투시었네.
천상천상에 유아독존 님
일체 중생들의 생로병사 인연의 윤회
탐진치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
싯다르타 태자로 출가 고행하여
견성성불의 대도의 문을 여나니
일체의 중생 성불길 자비의 보살로 인도하신 날
우리 중생도 모두 다함께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는 날
오! 부처님 나투신 날

마음열고 실천하는 삶

대각종 종정대행 만청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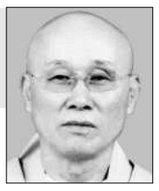


계율을 잘 지켰을 때 선정을 얻을 수 있고, 선정을 얻었을 때 지혜를 발하고, 지혜를 발했을 때 해탈과 해탈지견을 얻어 무상불도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계 · 정 · 혜의 행을 갖추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이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는 이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며, 지혜를 구하는 이는 애욕에 매이지 않으므로 걸림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마음이 저절로 열립니다. 중생의 몸으로 해탈의 불법을 만났으니, 청정한 마음을 닦고 실천하는 삶을 생활화 합시다.

집집마다 태평가로다

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힘에 의한 질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라는 것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찰나적인 것이어서, 화합이 없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희생의 대상이 힘을 행사하는 자신 스스로가 될 때 필연적으로 자멸해가는 우리 인류의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해야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집과 독선을 떠난 화합의 공존으로 가는 기틀인 내 마음을 찾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의 등불로 무명 걷자

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스님



사월 초파일,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은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곁에 항상 있다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부처를 만날 수 없고, 부처와 멀리 떨어져 있다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부처님 곁에 항상 있다고 하였습니다.

탐욕에 불성과 본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 없는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잘못된 현실을 깨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베푸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날마다 부처님 오신날

선각종 종정 정업 스님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꼭 오늘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십니다. 부처님은 땅 하늘 할 것없이 우주에 아니 오시지 않는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날이 모두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기 부처님, 보살 부처님, 사장 부처님, 거지 부처님, 아픈 부처님, 배고픈 부처님도 만납니다.

이렇듯 언제나 부처님은 오시고 모두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만나는 이 좋은날,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한 생각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생하는 새 역사를

미륵종 종정 연화 스님



일대사 인연으로 사바세계에 나투시어
위없는 진리를 깨달으사
일체중생의 귀의처가 되신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여 왔던 망상을 지우고
상생과 화합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갑시다.
허상에 매달리지 말고 자성을 일깨워 무명을 타파하고 불국정토인 정의사회를 건설해 나갑시다.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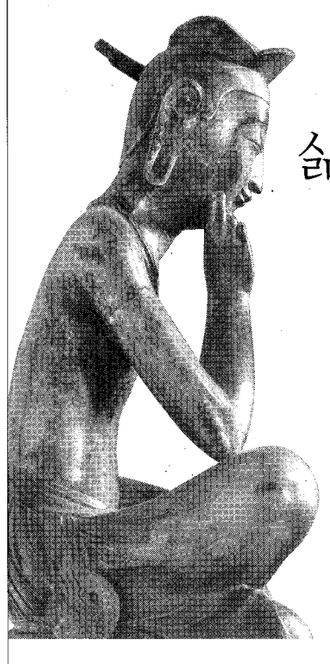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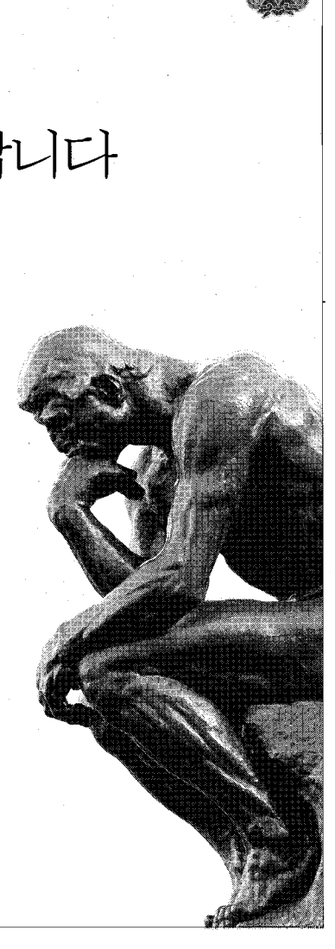
미얀마 정부 공식 승인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 협회
코리아기술교육종합대학
극빈 청소년만이 입학이 허용되며,
전 학생 전액 장학금 및 무료숙식 제공
※ 미얀마 총리의 배려로 양곤에 1만평의 대지를 희사 받아 설립 신축 공사 중입니다.
회장 겸 미얀마 명예대사
목 탁 혜 은
홍 파
■ TEL 02-338-0567 FAX 02-322-0170
H · P 011-229-6061

- 불교의 나라 -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중국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직영
전문 랜드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예스 굿 투어
대표이사 : 혜거 상영민 합장
성지순례 : 02)365-7747
■ H·P 011-9039-1239 / FAX 02)365-2994

2006 동국 백년
부처님 오신날
불기2548년 봉축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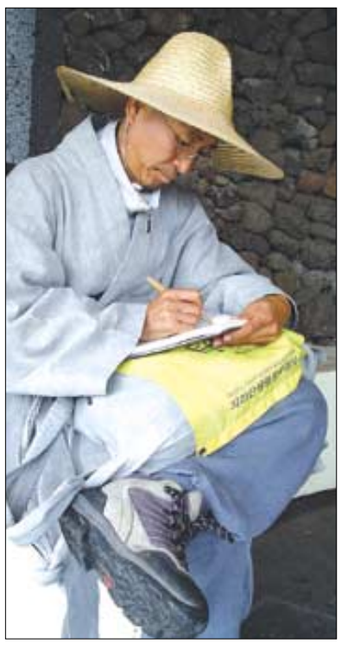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 현 해
동 국 대 학 교 총 장 홍 기 삼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www.dongguk.edu



절집 벗어나니 천하가 도량인 것을

'생명평화 탁발순례' 길에서 띄우는 도법 스님의 斷想



제주 구좌읍 하도리에서 김영으로 가는 도중 잠깐의 휴식시간에 하도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간이의자에 앉아 생명평화 탁발순례의 단상을 기록하고 있는 도법 스님.
탁발순례단은 제주도에 이어 부산을 거쳐 전국 순례를 계속한다.

누가 나로 하여금 먼 길을 나서게 했는가? 무슨 바람이 나로 하여금 순례자이게 했는가?

출가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낙엽처럼 쌓여온 붓다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저 멀리 노을지는 지평선 너머를 그리워하는 붓다를 향한 끝없는 동경심이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듯이 본래 부처이면서도 또다시 부처 되고자 하는 전도몽상으로부터 깨어나고자 함이었다. 도둑질하면 도둑놈 되듯이 부처 짓 하면 부처 된다는 확신을 실천하고자 함이었다.

본래 부처인 만큼 지금 바로 부처답게 사는 것이 참된 불교 수행이라는 신념을 실현하고자 길을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1일 노고단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붓다에 대한 동경심을 안고 지리산 1천 5백리, 제주도 8백리 길을 걸었다. 붓다를 닮으려는 뜻을 안고 눈보라 치면 눈보라와 함께 걸었다. 본래 부처의 삶을 지금 당장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비바람 맞으며 걸었다.

그리움에 빠져들게한 '부처'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여느 때와는 달리 길 위에서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이다. 길 위에서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에 붓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본다. 나로 하여금 먼 길 나서게 한 붓다, 그는 누구인가? 나를 그리움에 빠져들게 한 멋진 친구 붓다, 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붓다의 일생은 길에서 시작하여 길에서 끝나고 있다. 붓다의 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길 위의 일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인생은 길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길이란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엄숙한 현장이다. 어제의 길에 집착하여 연연하는 한 이미 오늘의 길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음의 길을 기다리고 있는 한 이미 지금의 길은 생명을 잃는다. 길은 언제나 현재일 뿐이다.

길은 언제나 현재이며 삶이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사는 삶이 길 위의 삶이다.

이쪽 언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저쪽 언덕에 대한 갈망도 내려놓고 오로지 현재를 살아간 삶이 붓다의 삶이었다. 어제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불안도 없이 현재를 활발하게 살아간 삶이 붓다의 삶이다.

부처님오신날은 길 위의 삶을 몸짓으로 보여준 날이다. 길 위의 삶을 처음 선언한 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이다.

그리운 붓다를 찾아 길 위에서 보낸 세월이 80 여 일이다. 밥과 잠자리를 빌면서 80 여 일 동안 길을 걸어 오늘까지 왔다.

'아이를 낳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절집을 벗어나 길 위에서 80여일을 보낸 지금 길에서 일생을 사신 붓다의 삶의 내용이 어렴풋이 시야에 잡히는 듯 하다.

붓다의 일생은 탄생게(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네. 그 어디 그 무엇도 내 몸 내 생명 아닌 것 없네. 내 몸 내 생명인 온 세상이 고통에 시달리네.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에 담긴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탄생게의 사상과 정신을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온 몸으로 실천한 삶이 붓다의 일생인 것이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존재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내가 그대로 우주요, 우주가 그대로 나임을 설파한 것이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을 지혜라 하고 이 사실에 대해 망각함 없이 늘 깨어있는 삶을 지혜의 삶이라고 한다.



도법 스님이 제주 구좌읍 하도리에서 한 주민에게 '생명평화의 등'을 전달하고 있다.

'온 세상이 고통에 시달리니 내가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존재의 실상론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을 뜻하는 말이다. 존재의 실상대로 실천하는 것을 자비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함 없이 실상대로 실천하는 것을 자비의 삶이라고 한다.

부처의 삶을 지혜와 자비의 삶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지혜와 자비의 삶밖에 부처의 삶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혜와 자비로 표현되는 실상론을 현실적으로 설명해보자.

너 떠나 내가 존재…어리석은 착각

너를 떠나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세상과 무관하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의 유희일 뿐이다. 사실은 너 없는 나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상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실상이 이러한데 어찌 상대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과 기쁨이 아니며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이지 않겠는가.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면 사실에 맞게 중생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자비다. 존재의 실상대로 온 세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살아간 자가 붓다이다.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짊어지고 살아간 삶이 붓다의 삶이다. 존재의 실상에 근거한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로 보면 세상이 없는 불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붓다는 세상을 가꾸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중생이 없는 절집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붓다는 중생고의 해탈을 위해 당신의 전 존재를 바쳤다.

불교를 내려놓고 길에 나서고 보니 관념적으로만 이해되던 붓다의 가르침이 매우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 절집을 벗어나 길에서 바라보니 비인간, 비현실적이었던 붓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듯 하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화두를 챙기니 길이 바로 선방이었다. 길에서 길로 나아가며 염불을 하니 길이 그대로 염불당이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좌우대립 희생자를 위해 천도재를 올리니 길이 그대로 법당이었다. 중생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작은 도움 나누니 길이 바로 보살행의 현장이었다. 밥과 잠자리는 주어지는 대로 자족해야하니 길이 바로 율원이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기법과 생명평화를 이야기하니 길이 바로 전법도량이었다.

놓고 떠나니 비로소 당당하다

붓다께서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법의 길을 떠나라고 하신 뜻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길 위에서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에 젊은 수행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지금 곧바로 버리고 떠나자. 길 위의 삶을 찾아 나서자. 절집을 벗어나니 천하가 도량이었다. 불교를 내려놓으니 어묵동정이 불교였다. 본래 부처의 삶이 목전에서 빛나고 출가행자의 삶이 비로소 당당해졌다. 참으로 통쾌하고 괜찮은 살림살이다.

오랜만에 흐뭇한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고 보낸다.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소서

봉 大韓佛教 一鵬禪教宗 축

종 정 봉 암

원로의원 : 정각 붕해 청곡 원정 동명

총무원
총 무 원 장 법 철
수석부원장 도 봉
사 정 원 장 학 림
법 제 원 장 법 성

비상회의
의 장 봉 암
부 의 장 법 철
부 의 장 법 우

의원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강원 도봉 학림 법성 일선 혜산
대구 부산 충북 충남 대전 대덕 혜광 해선 혜도 혜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성암 송광 월오 덕암 종호
제주교구 각 종무원 정각 삼주 혜오 정법

총무원 임직원 및 종도일동

■ 봉축점등식 : 2548(2004)년 5월 25일 오후 6시
■ 봉축법요식 : 2548(2004)년 5월 26일 오전 10시
■ 장 소 : 본종 총본산 일붕선원, 전국 사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전화 02)394-9468~9 / 전송 02)395-9468

지금 드시고 있는 보이차는 어떠십니까?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는 곳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茶人들이 즐겨 찾는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인급,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청차,말차
괘목 다반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 조계종
청암사 승가대학

학 장 **지 형**
주 지 **상 덕**
학인 대중 일동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TEL 054)437-0038
FAX 054)437-9664
www.chungamsa.org

대한불교 조계종
황 룡 사
직지불교대학

제8교구 본사 직지사
대구 수성 포교원
주 지 **도 일**
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65-1
TEL 053) 784-8620
FAX 053) 784-8633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 장 **원명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신도회
신도회장 **김대희**
사부대중일동

부 설 : 대구불교교육대학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성구자활후견기관
마하야나합창단
무료급식소 불자의집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
TEL 053)629-9500

대한불교 조계종
영천보현산 등명사

주 지 **석혜명**
본사부지확정
만년지장보살 염불회
(회원모집 및 불사중)

신도회장 **선 혜**
총 무 **보광심**
감 사 **대원심**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
FAX 054)338-7702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정족산 대성암

주 지 **원 진**
대중일동

복지관 건립계획 및 현황
1. 위치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65
2. 부지면적 : 15,000평
3. 건축개요 :
1차 – 신묘정사(1,000평)
공인박물관(1,200평)
2차 – 노스님복지관, 평생교육원,
대체의학연구실,치매병원
4. 건축허가 : 양산시 2000년3월
5. 1차준공예정일 : 2004년12월
6. 현재불사진행중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TEL 055)365-1189, 367-6967

대한불교 천태종
대구지부 대성사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김정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인가
전문 교육기관
보리불교대학

대중일동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
어린이천자문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 조계종
전법도량 남장사

주 지 **성 웅**
신도일동

상주냉림사회복지관 임직원일동
상주자활후견기관 합 장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
TEL 054) 534-6331
FAX 054) 531-0047
냉림사회복지관 : 054) 532-5677
자활후견기관 : 054) 536-6580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적멸극락 보궁 건립 추진위원회
증 명 **고산**
회 주 **경하 현성**
주 지 **지성 호암**
미타회, 연합회
보현회 신도회 일동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055)672-0489, 0100
FAX 055)672-0481

대한불교 조계종
태조산 도리사

주 지 **웅산 법등**
총 무 **묘장**
신도회장 **박경호**
지역신도회장 **황경환**
사리봉찬회장 **장보문행**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TEL 054)474-3737
FAX 054)474-8630
홈페이지 www.dorisa.net

대한불교 조계종
제 9 교구
운문사 · 운문승가대학

회 주 **전명성**
주 지 **고흥륜**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FAX 054)371-0359

대한불교 조계종
천년고찰 비슬산 **은 적 사**

주 지 **허 운**
총 무 **허 주**
신도회장 **보타월**
합창단장 **정행성**
봉사단장 **화산성**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 장 **조미선**
外 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www.eunjuksa.or.kr
TEL 053)653-1572

스치로폴 종합 제조원
SELIM **주식회사세림화학**

취급품목
KS 스티로폼 : 건축용
판넬용
드라이비트
토목용EPS
각종 PAD
PS압축 단열재
(아이소 핑크, 하이폴)

대 표 **최종구**
(팔공산 묘적암 신도회장)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025-7
TEL 053)856-8182
FAX 053)856-8186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 954-8000(代)
FAX 054) 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합동석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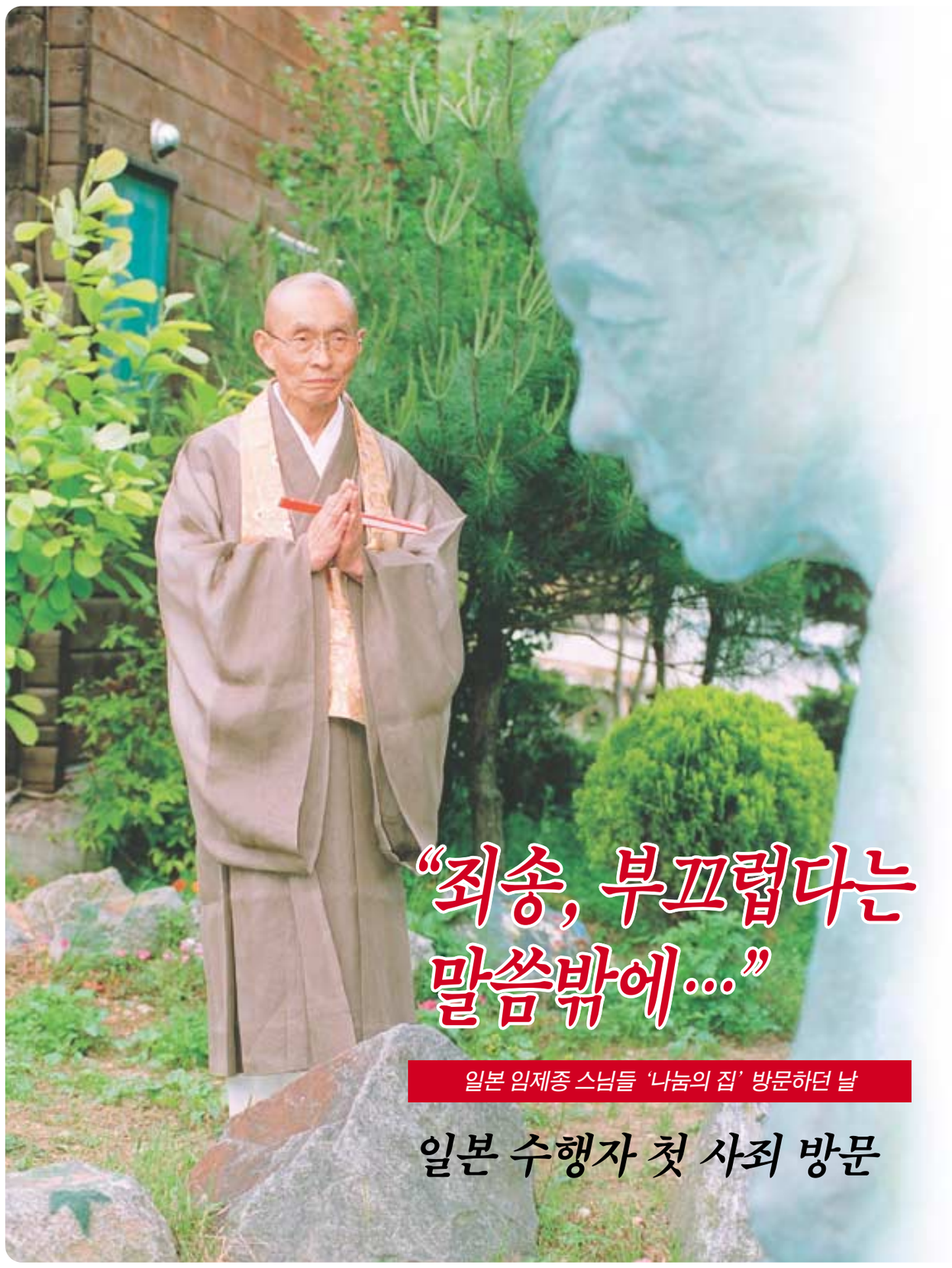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 건설 업체

대 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죄송, 부끄럽다는 말씀밖에…"

일본 수행자 첫 사죄 방문

일본 임제종 스님들 '나눔의 집' 방문하던 날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임제종 고오가쿠지 관장 마야모토 다이호오 스님 일행은 가장 먼저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살고 있는 광주 나눔의집을 찾았다. 스님일행은 마당에 세워진 위안부 할머니의 조형물 앞에서 합장 반배(위)한 뒤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위패앞에서 참배(아래 왼쪽)했다. 역사관을 둘러볼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아래 오른쪽).







일본 임제종 대본산 고오가쿠지 관장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학술대회 참석, 첫 행선지 '나눔의 집'

일본 식민지라는 설움과 아픔이 오늘에도 살아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로 징용당한 피해할머니 12명 모여 사는 이 공동체에 '과거사 참회'를 하겠다며 5월 20일 일본에서 3명의 스님이 찾아왔다. 청정한 생활과 엄격한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일본 임제종의 대본산 고오가쿠지(向嶽寺) 관장(총림 방장에 해당) 미야모토 다이호오(宮本大峰) 스님과 도쿄대(東京大) 불교청년회 선원장 고지마 타이잔(小島岱山) 스님 등 3명의 스님이었다.

미래학불교학회와 한국불교대원회가 주최하는 한일불교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 일행이 첫 행선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나눔의집이었다. 미래학불교학회의 초청을 받은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이 사죄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나눔의집이 광주에 둥지를 튼 98년 이후 이 곳을 다녀간 일본인은 2만여명. 대부분 단체로 찾아온다. 더러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지금도 일본인 한명이 1년째 할머니들의 수발을 들고 있다. 하지만 2만명 안에 스님은 없었다.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이 첫발을 디딘 것이다.

안내를 담당했던 장휘옥 미래학불교학회장은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을 제방의 선객들이 수행력을 인정하는 일본의 큰스님으로 면면을 소개했다. 평생을 고오가쿠지에서 간화선 수행에 매진하면서도 손수 손빨래를 하는 등 청빈한 수행자라고 했다.

고개 떨군채 충격에 휩싸인 스님들

스스로 선택한 첫 일정, 나눔의 집에서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었던 탓이다. 이 곳에서 생활하다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위패가 모셔진 법당을 참배하면서 입술을 곱씹는 스님의 모습은 내면의 혼란을 스스로 가다듬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곧이어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한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의 표정은 이내 굳어버렸다. 97년 세상을 떠난 강덕경 할머니가 임종 직전 일본 정부에 항의하러 가야겠다며 여권을 가져오라던 장면을 볼 때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일행의 나눔의집 방문 일정은 이제 어귀에 불과했다.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참관과 할머니들을 만나는 시간이 남았다. 곧바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할머니들의 한이 서린 그림과 강제 징용당한 위안부의 아픔이 담긴 기록물을 접한 30여분간 일행은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전쟁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기 할머니들이 임종 순간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것을 보니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은 역사관을 나서면서 붉게 상기된 얼굴로 소감을 털어놓았다. 지극히 자제했던 감정을 내보이는 순간 격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눔의집 곳곳의 조형물을 마주할 때마다 합장례를 올리는 모습에서는 수행자의 기품이 배어난다.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을 만날 때가 됐다.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도착한지 1시간여가 지난 후였다.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은 할머니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을 맞잡으며 스님은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할머니들에게 그 말은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놈들이 나를 중국으로 끌고 가서는…" 강일출(77) 할머니는 말을 맺지 못했다. 손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이 말문을 열었다. "저는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온 것도 아니고, 일본 불교를 대표해 온 것도 아닙니다.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참아온 것은 대단한 수행이었을 것입니다. 저의 사죄가 여러분의 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내자의 통역을 듣던 박옥련(85) 할머니가 화답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눔의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강일출 할머니는 달랐다. 얼굴 근육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은 이 문제로 또다시 반목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최고령인 이옥금(91) 할머니가 "개인으로 오셨으니 화를 낼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가벼운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전쟁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데서 생기는 불행한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야모토 다이호오 스님의 이말을 끝으로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할머니들도 스님의 손을 잡고 전송을 나왔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적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강일출 할머니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글=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날
자 비 광 명 온 누 리 에
대한불교 대 승 종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사)대한불교 선각종
선각총림 옴천사
종정
영담정업 대종사
총무원장
석정암
전국교구본사 종도일동
■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옴천사
TEL 061)433-2233
FAX 061)433-3233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지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佛身充滿 기도도량"
가야산 현불사
주지 고성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음)
■ 전남 광양시 광영동 653-4
TEL 061) 793-0500

대한불교 조계종
선덕사
주지 행법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572-1
TEL 062)263-4660

(사)대한불교 선각종
월암사
주지 월인(月仁)
신도일동
■ 전남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198-11
TEL 061)644-4657

"인격을 불격으로 중생을 부처로"
호남최초 전북불교대학
www.koreabuddha.com
학장 강건기
학인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8-5 완산불교회관 3층
TEL 063)226-7878,7879
FAX 063)226-7879

대한불교 미타종
무등산 혜룡사
삼장법사 日圓(혜우)
신도일동
정기법회: 매월 7.18.25일(음)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 269번지
TEL 062)224-5588, 225-2732

국중제일 정토도량
조계종 적상산 안국사
주지 원행
대중일동
■ 부설:무주불교대학(063-322-3108)
성보박물관(세계 각국 불상 전시)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4-1
TEL 063)322-6162
FAX 063)322-6163

"함께 나누는 삶은 행복합니다"
자비신행회
회주 석현장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9-1
TEL 062)234-2732

천년 백제고찰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
신도일동
www.daewonsa.or.kr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TEL 061)852-1755

한국불교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
원장 법천
종무원 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
TEL 062)375-1820
FAX 062)381-0944

전법도량
향림사
조실 천운
주지 혜향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
전화 062)375-7600~1
■ 광주불교대학/대학원
전화 062)375-7603, 7633
■ 향림원
노인복지관 062)375-7608
장애인복지시설 062)375-4566,4568

대한불교 조계종
무각사
주지 광민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
TEL 062)383-0108

대한불교 조계종
종남산 송광사
주지 도영
대중일동
가족법회: 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2시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TEL 063)243-8091, 242-8091
FAX 063)244-7832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지
수석부회장 광민
총무 혜향
회원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
TEL 062)376-3223~4/ FAX 062)376-3225

청운사
주지 도원
(무형문화재 27호 탱화장)
하소백련 축제 6월 27일 오후 2시
장사익 공연
■ 전북 김제시 청하산 청운사
TEL 063)543-1248

태조 이성계 금척하사 도량
마이산 금당사
주지 성호
신도회장 이옥례
■ 전북 진안군 마이면 동촌리 41
TEL 063)432-0108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증심사
주지 진화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062)226-0108
FAX 062)222-5997

문사수법회 정진원
정토사
회주 한탑
주지 혜광
신도일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2구 492-1
TEL 061)381-0108

대한불교 조계종
선각사
주지 선각
신도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32
TEL 063)282-2229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지 선각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가 54-1
TEL062)223-7666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회장 오신재
사부대중일동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 284-1771
FAX 061) 284-1770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장 최성휴
신도회 여회장 문지현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 373-8801-3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활안
이사장 강혜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禪의 일상화, 대중화, 세계화
社團法人 牛谷禪院
부설 牛谷심성개발교육원
■ 부설:牛谷 서울선원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62-7 보전B/D
Tel 02)2055-3111 / www.zenkorea.org
■ 牛谷 부산선원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오션타워 1930
Tel 051)740-6288 / www.zenkorea.org
■ 牛谷삼성개발연구원
(www.wookok.org)

한국불교 법륜종
연화사
주지 도명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산 63-1
TEL 063)563-1683

용마산 용암사
■ 서울 광진구 중곡4동 176-42번지
TEL 02) 446-1571
적멸보궁 자명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산 84번지
TEL 033)434-1571
주지 효성
사부대중 일동

병풍산천지 금화사
주지 금화
신도일동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의병부락 43-1번지
금화사 055) 345-9393
총무원 055) 346-5115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불자 감소…대안은 새싹포교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어린이 포교 중요"…말잔치만 할 것인가?

대불어 3100여 사찰 현황 조사

어린이법회 운영한다 9.4%

본지 긴급 설문

법회개설 의사 없다 40%

"불교미래 어디서 찾나?" 폭넓은 대책마련 발등의 불

201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 축제. 아이들과 학생들이 연등을 들고 신나게 행진하던 10년 전 제등행렬 때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중 · 장년층 불자들만이 눈에 띌 뿐이다. 유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청년층도 쉽게 만날 수 없다. 어린이 · 학생 · 청년 불자들이 없어 재기발랄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아~ 옛날이여!'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 물론 가상 시나리오다. 하지만 현재의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현실을 보면 이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결과는 결국 청년불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30~40년 뒤에는 중 · 장년층 불자마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3,100 여곳 사찰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294곳인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어 조사 직후 실시한 본지 설문조사에서는 재원이나 지도법사(교사) 등이 지원돼도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개설할 생각이 없다는 사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는 곳'도 적고 '하겠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사실 이같은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3년 11월 대불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 어린이법회 참가 인원수가 연간 11%씩 감소하고 있고, 이와함께 어린이법회를 그만둔 사찰 수도 상당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에도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말뿐이었다. 스님이나 신도들은 한결같이 "불교의 미래를 위해 새싹포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말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현실에서는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청년층 신도가 늘고 있는데 반해 불교의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음은 불교의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구두선'임을 반증한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는지, 투자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등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불교 존립 자체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종단 차원의 체계적 전략 수립,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저런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더 물러설 곳 없는 벼랑끝이다. 더 이상 종단에게, 사찰에게, 지도자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여기에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교인구 늘어났는데 불자수는 제자리 걸음

종교인구로 본 불자 증가 현황

종교인구비율은 지난 1995년을 기점으로 50%대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증가율도 1년 평균 0.34%로 만만치 않은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 인구수 4천8백만여 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16만여 명씩 종교인구가 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85년, 95년, 2003년 등 세 차례 조사한 종교인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통계자료는 '85, '95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전수조사와 7만여 명을 면접 조사한 '2003 사회통계조사 등이며, 분석 대상은 만 15세 이상 인구로 제한했다.

이들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교인구 비율은 47.1%(85년), 53.5%(95년), 53.9%(2003년)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년 동안 총 6.8%가 늘었다.

통계청 사회통계과 우사임 사무관은 "80년대 들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층의 종교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종교별로 적극적인 포교 · 선교활동으로 젊은층의 종교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불교인구는 제자리걸음이다. 20년간 종교인구 총 증가율은 6.8%. 이중 개신교는 3.5%, 천주교 2.6% 증가율에 비해, 불교는 불과 1.6%. 85년 전체인구 대비 23.7%였던 불교인구가 20년이 지난 2003년에도 25.3%로 사실상 그대로다. 이는 개신교가 불교보다 매년 평균 2배 이상을 성장했다는 점과 대조적인 통계수치로,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포교사회학과)는 "불교인구가 타종교에 비해 제자리걸음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무종교인의 불교유입 동기부여가 부족했고, 여기에 소극적인 포교활동도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불교인구연령층 '양극화 현상' 여전

통계청 조사 결과 불교인구 비율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인구비율보다 높아지는 연령이 85년 조사에서는 30대 이전이었던 반면, 95년부터는 40대로 늦춰졌다. 양극화 현상의 분기점이 40대로 후퇴됨에 따라 불교인구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갈수록 2~30대 청년층에서 타종교 신자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같은 지적은 85년 30대 불교인구비율에서 확인된다. 30대 불교인구비율(25.4%)이 개신교(17.9%)와 천주교(5.7%)를 합한 비율보다 1.8%가 높았다. 하지만 95년을 고비로 동일 연령대 불교인구는 24.8%로 줄어, 개신교(20.0%)와 천주교(7.1%)를 더한 27.1%보다 2.3%가 낮아졌다.

30대를 제외한 15세 이상 불교인구의 '低 청소년 · 청년층, 高 중 · 노년층'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5~29세(청소년 · 청년층) 종교별 평균 비율의 경우, 불교는 19.3%(95년)→19.2%(2003년)인 반면, 개신교는 20.8%→23.2% 천주교는 6.3%→7.1%였다.

이와는 반대로 40~60대 이상은 불교 33.8%(95년)→32.8%(2003년), 개신교는 16.5%→19.1% 천주교는 6.7% → 7.8% 등으로 나타났다.

김응철 교수는 이와 관련 "불교계가 그동안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등한시한 결과"라며 "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층 불자가 줄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이들 계층 포교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종교인구 지난 20년간 6.8% 증가
불교 1.6 천주교 2.6 개신교 3.5%
불자 노령화 뚜렷…타종교는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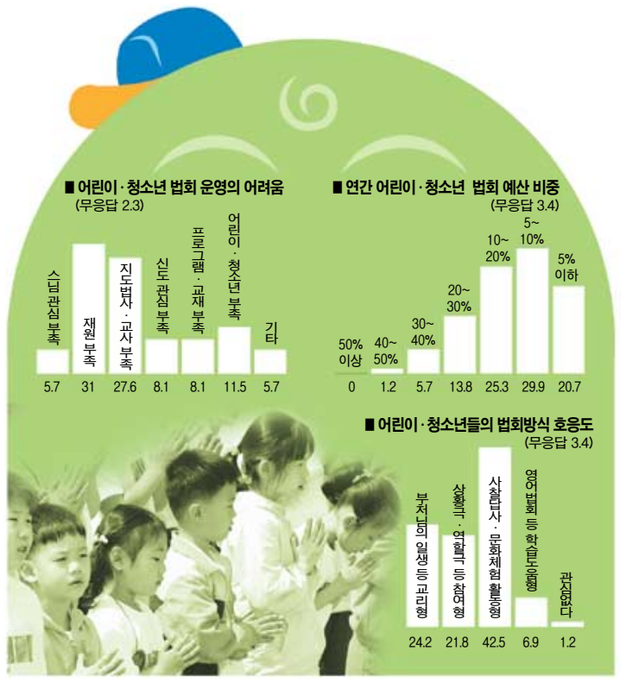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불자감소…대안은 새싹포교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돈도 사람도 턱없이 부족"



종교인구증가에 비해 불자수가 제자리 걸음인 주된 요인은 새싹 포교에 대한 '외면'이다. 현대불교신문은 사찰의 어린이·청소년법회 실시 현황과 외면의 이유를 긴급 전화설문으로 파악해 보았다.

설문조사대상 사찰 480곳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사찰 87곳에 대해 법회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이들 사찰의 절반이상은 10~50명(58.7%)의 학생들로 법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법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31%)과 지도법사 및 지도교사 부족(27.6%), 참여 학생 수 부족(11.5%) 등으로 법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과연 사찰은 전체 포교예산의 어느 정도를 어린이·청소년 법회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을까? 법회운영의 기본 사항인 지도법사와 지도교사 등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일까? 어린이·청소년 법회의 현황을 낱낱이 살펴봤다.

긴급전화설문 : 어린이·청소년법회 현주소는?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들은 재원부족(31%)과 지도법사 및 지도교사의 부족(27.6%) 등의 이유로 법회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히는 재원에 대한 질문에서 사찰의 75.9%가 전체포교예산의 20% 이내에서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법회 예산이 전체포교예산의 5%도 안 된다는 응답도 20.7%나 나와 과연 이 재원으로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운영여부와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해당 사찰들도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법회 예산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찰은 4곳 중 1곳 가량인 27.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법회 예산에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답한 사찰 75%도 종단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원한다고 답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찰들이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법회 예산 비중에 대해 부족하다고 답한 사찰들의 90%이상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종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재원부족 말고도 사찰들은 지도법사와 지도교사 부족도 법회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법사와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호흡하고 의사소통할 지도교사를 제대로 갖춘 곳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7.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법사와 지도교사를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의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도 13.8%나 돼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비전문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의 45.5%는 이에대해 법회 운영에 있어 전담 지도법사와 지도교사는 절실하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려워 법회 지도자를 두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재원 등의 문제로 지도자를 두기 어렵다고 토로한 사찰도 31.8%나 됐다.

이와함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법회 교재와 프로그램 부재도 심각한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두곳 중 한곳이(54%) 부처님의 일생이나 가르침들을 설명하고 찬불가를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법회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적합한 교재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별다른 교재 없이 법회를 진행하는 곳도 8.2%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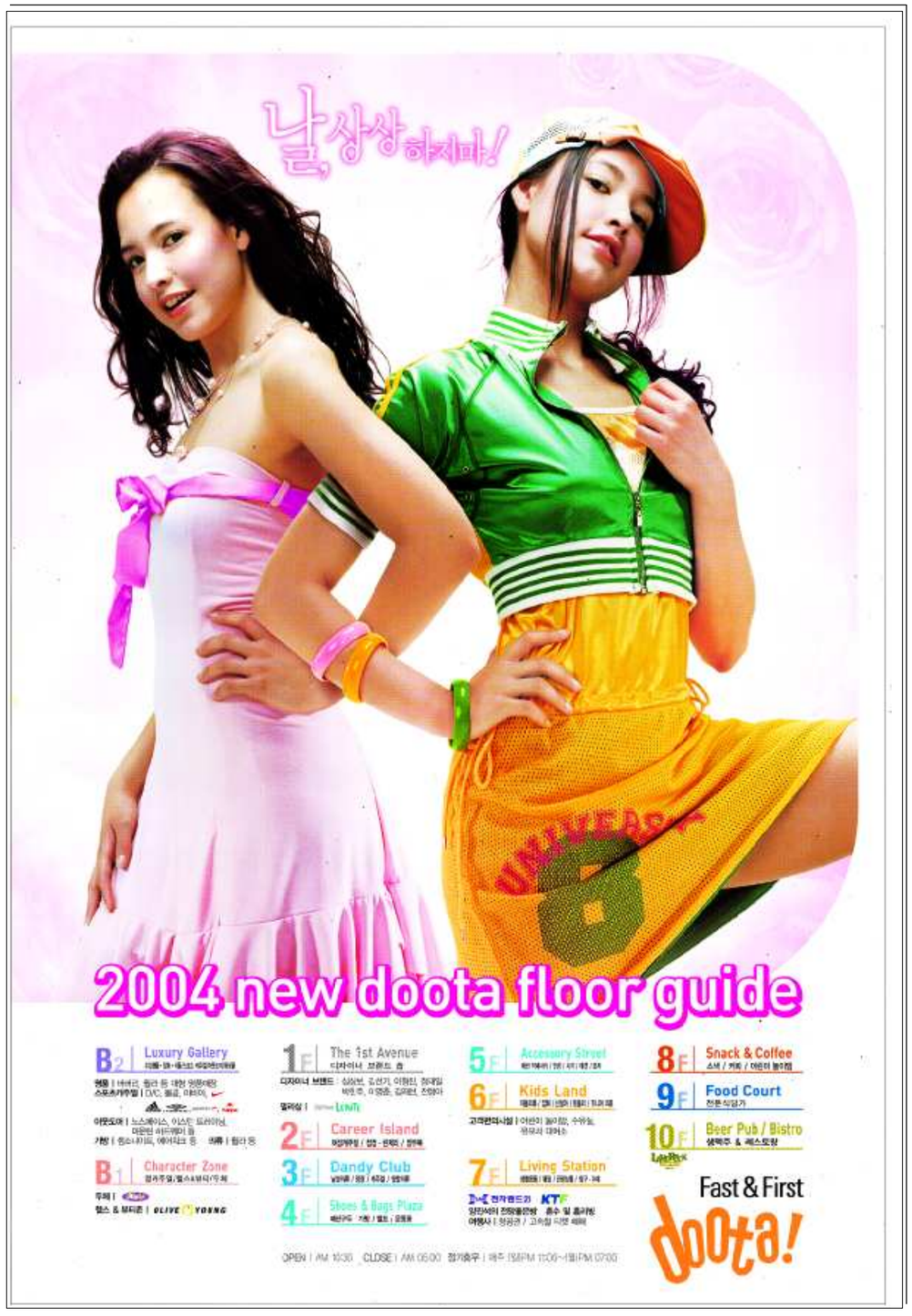
사찰의 42.5%가 아이들이 사찰답사와 문화체험 등의 체험형 법회에 관심이 높고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형 법회를 진행하는 곳은 9.2%에 불과했다. 법회가 아이들의 욕구와 흥미를 무시한 채 사찰 및 담당 지도자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의 절반가량이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한 교육형 법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호응도를 묻는 질문에서 체험형 법회보다 18.3%나 낮은 24.2%가량만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법회진행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상황극이나 역할극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형 법회와 영어법회 등 학교교육과 연관되는 법회들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는 의견도 28.7%나 돼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발달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회운영 힘든 이유
재원부족 31% 교사부족 27.6%

새싹포교 예산 책정
포교예산의 20% 미만…76%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설문내용 및 응답 통계(총 응답 사찰 480곳)

필수사항

* 귀 사찰이 위치한 지역은?
1)서울-57-11.9% 2)인천·경기-62-12.9% 3)강원-41-8.5%
4)대전·충남-55-11.5% 5)충북-45-9.4% 6)대구·경북-42-8.8%
7)부산·경남-56-11.7% 8)광주·전남-51-10.6% 9)전북-46-9.6%
10)제주-25-5.1%

* 귀 사찰이 위치한 지역단위는? 무응답 3-0.4%
1) 특별시·광역시-167-34.8% 2) 시-136-28.3%
3) 군-44-9.1% 4)읍·면-131-27.4%

설문내용

1. 귀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응답-1-0.2%
(1) 1) 예-87-18.1% 2) 아니오-392-81.7%

1-1. 운영하고 있다면, 빈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1) 매주 운영한다-56-64.4% 2) 한달에 두 차례-13-14.9%
3) 한달에 한번-4-4.6% 4) 여름·겨울 방학때만-12-13.8%
5) 정기적이지 않다. 필요에 따라 한다-2-2.3%

2. 귀 사찰에서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응답16-3.3%
1) 예-59-12.3% 2) 아니오-405-84.4%

2-1. 운영하고 있다면, 빈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무응답-3-5.1%
1) 매주 운영한다-34-57.6% 2) 한달에 두 차례-10-16.9%
3) 한달에 한번-5-8.5% 4) 여름·겨울 방학때만-5-8.5%
5) 정기적이지 않다. 필요에 따라 한다-2-3.4%

3. 어린이·청소년 법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27-5.7%
1) 반드시 필요하다-250-52.1% 2) 있으면 좋다-124-25.8%
3) 없어도 별 문제없다-53-11% 4) 필요 없다-26-5.4%

3-1. 위의 3번 문항에서 1,2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불교발전을 위해서 새싹 불자를 양성해야 하기에-301-80.7%
2) 사찰행사에 가족단위 참여를 높이기 위해-38-10.2%
3) 연령대별로 고른 법회를 운영하기 위해-14-3.8%
4) 기타-20-5.3%

*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에 한해 대답해주십시오.

4.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청소년은 평균 몇 명입니까? 무응답-2-2.3%
1) 150명 이상-4-4.6% 2) 100~150명-6-6.9% 3) 70~100명-11-12.6%
4) 50~70명-10-11.5% 5) 30~50명-23-26.4% 6) 10~30명-28-32.3%
7) 10명 이하-3-3.4%

5. 어린이·청소년 법회 운영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무응답-2-2.3%
1) 스님들의 관심 부족-5-5.7%
2) 재원 미약-27-31%
3) 지도 법사 스님 및 법회 지도교사 부족-24-27.6%
4) 신도들의 관심 부족-7-8.1%
5) 어린이·청소년 법회 프로그램 및 교재 부족-7-8.1%
6) 하려고 해도 참여 어린이 부족-10-11.5%
7) 기타-5-5.7%

6. 사찰 1년 예산 중 어린이·청소년 법회 예산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무응답-3-3.4%
1) 전체포교예산의 50% 이상-0-0% 2) 전체포교예산의 40~50%-1-1.2%
3) 전체포교예산의 30~40%-5-5.7% 4) 전체포교예산의 20~30%-12-13.8%
5) 전체포교예산의 10~20%-22-25.3% 6) 전체포교예산의 5~10%-26-29.9%
7) 전체포교예산의 5% 미만-18-20.7%

6-1. 현재 어린이·청소년 법회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3-3.4%
1) 그렇다-24-27.6% 2) 다소 부족하지만 괜찮다-13-14.9%
3) 부족하다-33-37.9% 4) 많이 부족하다-14-16.2%

7.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지도하는 전담지도 법사 스님이나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무응답-2-2.3%
1) 둘 다 있다-41-47.1% 2) 지도 법사만 있다-12-13.8%
3) 법회 지도교사만 있다-20-23% 4) 둘 다 없다-12-13.8%

8. 법회 운영 법사와 지도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응답-6-13.6%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불자감소…대안은 새싹포교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애들 안오니 법회 못하지"

긴급전화설문 : 사찰의 새싹포교 외면 이유는?

조사 결과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의 비율이 10%대로 낮게 나온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대불어의 조사 결과인 9.4%(어린이법회 실시 사찰만) 보다 다소 높은 수치지만, 두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여는 사찰이 10곳중 1곳에 불과하다. 포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찰이 어린이 · 청소년 불자 양성을 소홀히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태도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480개 사찰 가운데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392개 사찰들은 그 주된 이유로 '참석하는 어린이 · 청소년이 적어서(29.8%)'라고 답했다. 사찰이 찾아가는 포교, 적극적인 포교 보다는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포교를 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또 이 질문에는 '재원 및 운영상의 문제'와 '지도법사 또는 지도교사의 부재'를 이유로 꼽은 사찰도 23.5%와 12.8%나 돼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어린이 · 청소년 법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없어도 문제없다'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이는 어린이 · 청소년 불자 양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 사찰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필요한 이유로 10명 가운데 8명이 새싹불자를 양성해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점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문제가 해결될 경우 법회를 개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58.9%의 사찰만이 그렇다고 답했을 뿐, 36.2%에 해당하는 사찰은 운영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포교에만 급급할 뿐 미래불교를 짊어질 어린이 · 청소년 불자 양성은 외면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점이 없기 때문에 사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종단으로부터 지원 받고 싶은 분야로는 23.7%가 재원을, 18.9%가 프로그램 등 교육자료를, 17.9%가 지도법사와 교사를 꼽았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바란다는 응답도 37.1%나 있었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요소인 재원과 지도인력, 프로그램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30.2%였고,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33.5%가 나왔다.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찰은 32.1%였다.

지역 · 도시와 농촌 등 지역 차이커

이번 설문에서는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분포가 상당한 지역적 편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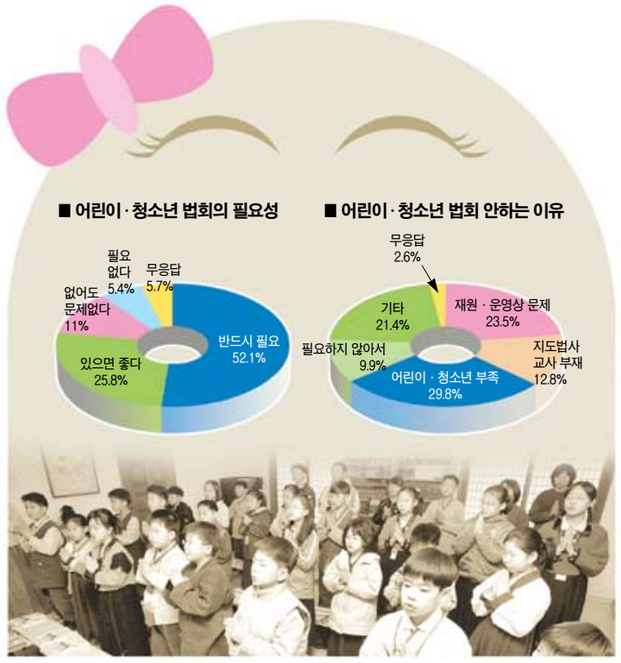
어린이 법회의 경우 인천 · 경기지역의 사찰이 37.1%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6%가 운영한다고 응답한 서울이 2위, 대구 · 경북(16.7) 3위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은 4.3%, 광주 · 전남은 5.9%, 충북 11.1%로 평균18.1%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청소년 법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인천 · 경기(27.4)와 서울(26.3)지역이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4.0)가 가장 낮았고 전북도 4.3%에 해당하는 사찰만이 청소년 법회를 열고 있었다. 어린이 법회와 달리 강원(12.2), 광주 · 전남(11.8)이 대구 · 경북(9.5), 부산 · 경남(7.1)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별시 · 광역시 등 도시지역과 군 등 농촌지역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법회의 경우 도시지역은 28.7%가 법회를 열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농촌은 13.7%만이 법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법회의 경우 도시는 20.4%의 사찰에서 법회를 열고 있었지만, 농촌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9%의 사찰에서 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또 어린이 · 청소년 법회의 필요성 인지에 따른 향후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36.1%가 전망을 밝게 내다본 반면 '없어도 별 문제없다' 또는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1%만이 긍정적으로 꼽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참석자 없어 법회 안해 30%
찾아가는 포교 열의 부재 반영
향후 전망, 긍정 30% 부정 33.5%

설문내용 및 응답 통계(총 응답 사찰 480곳)

1)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4-9.1%
2) 필요성은 인지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담당 지도교사를 두기 어렵다-14-31.8%
3) 어린이 · 청소년 전담 법사와 지도교사가 필요하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20-45.5%
4) 기타-0-0%

9. 어린이 · 청소년 법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응답-4-4.6%
1) 부처님의 일생 및 가르침에 대한 교육 및 찬불가 등의 학습형-47-54%
2) 상황극이나 역할극 등을 활용한 활동형-14-16.1%
3) 사찰답사 등을 위주로 한 그룹 참여형-8-9.2%
4) 영어법회 등 교과학습을 고려한 교육형-4-4.6%
5) 법문 위주의 성인법회와 유사한 형태-10-11.5%

10.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사용되는 교재는 무엇입니까? 무응답-2-2.3%
1) 시판되고 있는 성인용 경전 및 찬불가-3-3.4%
2) 어린이용 경전 및 찬불가-21-24.1%
3) 종단이나 포교원에서 발행한 어린이법회 자료집-26-29.9%
4)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법회자료집-17-19.5%
5) 지도 법사나 법회 지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교재-11-12.6%
6) 별다른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7-8.2%

11. 어린이 · 청소년 법회운영과 일반 성인신도들의 법회 참석률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무응답-2-2.3%
1) 어린이 · 청소년 법회 개설후 일반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11-12.6%
2) 괄목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신도들의 참석률이 증가했다-36-41.4%
3) 어린이 · 청소년 법회 개설이 일반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36-41.4%
4) 어린이 · 청소년 법회 개설후 일반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이 낮아졌다-2-2.3%

12. 어린이 · 청소년들은 어떤 형식의 법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무응답-3-3.4%
1) 부처님의 일생 및 가르침에 대한 교육-21-24.2%
2) 상황극이나 역할극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회-19-21.8%
3) 사찰답사, 문화체험 등 활동적인 법회-37-42.5%
4) 영어법회 등 학교공부와 연관이 되는 법회-6-6.9%
5) 어떠한 법회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1-1.2%

***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찰에 한해 대답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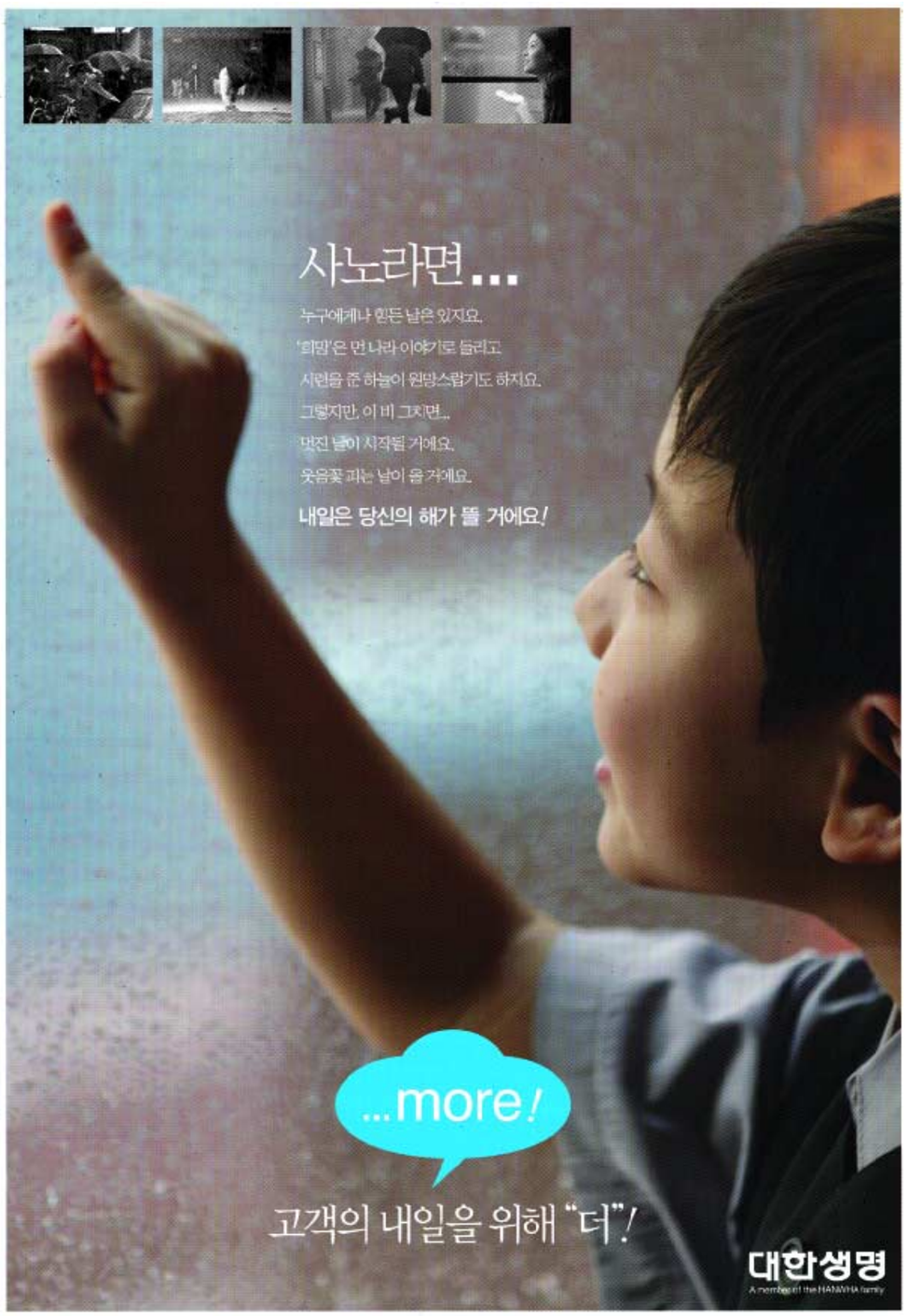
13. 어린이 · 청소년법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응답-10-2.6%
1) 재원 및 운영상의 문제로-92-23.5%
2) 지도 법사 스님과 지도교사의 부재-50-12.8%
3) 참석하는 어린이 · 청소년들이 적어서-117-29.8%
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9-9.9%
5) 기타-83-21.4%

13-1. 위에 기입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개설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무응답-19-4.9%
1) 예-231-58.9% 2) 아니요-142-36.2%

***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 · 비운영과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14.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운영에 종단의 직 · 간접적인 지원을 원하십니까? 무응답-21-4.4%
1) 그렇다-291-60.6% 2) 아니다-167-35%

14-1. 만약 지원을 원한다면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바라십니까? 무응답-7-2.4%
1) 재원지원-69-23.7%
2) 무료 지도법사와 법회 지도교사 지원-52-17.9%
3) 법회 프로그램 등의 교육자료 지원-55-18.9%
4) 위의 세가지 모두-108-37.1%

15.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응답-20-4.2%
1)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증가해, 활기를 띨 것이다-145-30.2%
2) 현재와 비슷하게 운영 · 유지 될 것이다-154-32.1%
3) 과도한 학교교육으로 종교활동인 어린이 · 청소년 법회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58-12%
4) 앞으로 종단과 사찰의 노력이 없는 한 어린이 · 청소년 법회는 사라질 것이다-103-21.5%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불자 감소…대안은 새싹포교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좌담 :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과제



불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대한 외면 또는 방치다. 불교계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절감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자나 기반 조성에는 소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본지는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과제'를 점검하는 좌담을 마련했다.

▮일 시 : 2004년 5월12일 오후 3시
▮장 소 : 연화장세계 법당
▮참석자 : 일관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박영동 법사(명성여고)
김광호 법사(부산 금화사)

눈높이 맞추고 아이들 생각속으로 들어가라

교사·프로그램·네트워크 부족
변하는 사회 적응하기도 벅차
사찰·수련원 등 시설 적극활용
유기적 포교인프라 구축 급선무

어린이포교, 그 현실과 문제점

일관=종단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저 역시 절에서 직접 어린이 포교에 전력한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찰별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조계사 · 봉은사와 같이 내로라하는 대형사찰의 경우도 법회참석학생들이 30~40명 내외입니다. 10년전만 해도 100명이 넘던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참석학생수가 현재는 절반가량인 50명도 채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어린이포교를 하는 사찰 수는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교사와 프로그램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정보화 등 빠른 사회현상에 불교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을 양성할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사찰과 교사들 간의 정보공유와 활동을 장려할 네트워크 부재 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광호=종단은 청소년 포교를 위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 등 청소년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포교의 기반이 돼야 할 어린이 포교는 등한시 하고 있어요. 어린이 포교를 전담하는 기관 하나 없어요. 다시 말해 종단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어린이 포교는 점점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불교계의 대표적인 어린이 포교기관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에서 개최하는 지도자수련회조차 지도법사 및 지도사들이 600여명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 사찰에서 2~3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가정했을때, 보다 전문적인 법회 지도를 위해 연수에 참가하는 사찰이 200~300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비단 어린이 포교에 대한 개별사찰의 관심부족 뿐만 아니라 종단에서 가장 크다는 대불어조차 어린이 포교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그 활동 영역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동=종단이 청소년 부문에 대해 어린이 부문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타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청소년 해' 선포와 함께 지난 96년에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발족되었고, 그 활동에 대해 적잖은 물질적 지원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10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청소년 포교종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30여년전에 비해 청소년 불자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의 청소년 인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는 논할 바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 '불교미래'라는 과실을 얻으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관=청소년 포교든 어린이 포교든 가장 큰 문제점은 종단의 지원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열정'에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흔히들 어린이 법회 운영의 문제점은 종단의 관심과 지원 부족에, 청소년 포교의 문제점은 국내의 독특한 입시전쟁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을 꼽는데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대한 사찰이나 지도자들의 '열정'만 확실하다면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합니다.

이웃종교인 개신교만 보더라도 1달에 1~2회는 pc방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는 등 어린이 ·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읽어내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선교의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열정'에서 파생되는 산물입니다.

박영동=스님의 말씀처럼 열정도, 눈높이에 맞는 포교방법도 중요하지만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포교전략 수립과 방향정립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쟁점이라 봅니다. 우선 파라미타만 보더라도 8개 지부 330개 분회들이 있지만 이중 사찰 분회는 70여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이 학교분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 포교하면 사찰의 학생회만을 생각합니다. 사찰 학생회의 목적이 신앙심 고취와 불교신자 양성에 있다면, 학교 내의 불교학생회는 써클형식의 선후배모임과 친목성격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대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찰과 학교 내의 포교를 동일하게 진행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결방안은 없는가

일관=얼마전 종단은 학교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고자 중 · 고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집 <불교시청각교재>를 발간, 무료 배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학교 내의 수업활용방안 등은 불자는 물론 불교에 우호적인 타종교아이들까지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비롯한 사찰,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수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을 상호 공유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괄목할 만할 결과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김광호=요즘 웰빙(well-being)이 유행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포교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중심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종단이 앞장서 중심을 잡고 노래, 만화, 게임 등 개별사찰이 개발하기 힘든 포교 방법들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광호=급변하는 교육제도와 아이들의 고민과 정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는 종교에 상담자의 역할을 부가 시켰습니다. 지도자들이 중계자로 나서 보수적인 법회 위주의 교육에서 떠나서 아이들을 포용하고 상담, 위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됐듯 법회 지도자들은 시청각 교재 등 새로운 형식의 포교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등 아이들에게 친근한 방법을 아닙니까? 어린이 포교도 웰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교를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좋은 것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금화사 어린이 법회의 경우 pc방 수업뿐만 아니라 찜질방 수업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당에서만 교육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다양한 욕구에 부흥하는 다변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포교 방법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법회를 주 4회에서 2회로 줄여, 참선 교육과 영어법회, 상담역활 등 실질적인 포교 방법이 모색돼야 합니다.

일관=포교의 전략프로그램 다변화는 동의하지만, 끝없이 변화하는 어린이 · 청소년들의 욕구에 발맞추기란 예산상의 문제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포교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중심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종단이 앞장서 중심을 잡고 노래, 만화, 게임 등 개별사찰이 개발하기 힘든 포교 방법들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광호=급변하는 교육제도와 아이들의 고민과 정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는 종교에 상담자의 역할을 부가 시켰습니다. 지도자들이 중계자로 나서 보수적인 법회 위주의 교육에서 떠나서 아이들을 포용하고 상담, 위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됐듯 법회 지도자들은 시청각 교재 등 새로운 형식의 포교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등 아이들에게 친근한 방법을 인사고 반영 등을 통해 불교의 싹을 키워내는 법회를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박영동=인식변화는 종단과 사찰,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입시생을 둔 불자 어머니는 '너는 공부해라, 내가 대신 기도할께'라는 분위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천주교 신자들은 입시생들에게도 주말이면 꼭 교회에 가서 한 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이는 불교가 부끄럽게 여기고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몸에 밴 신앙생활이야말로 현재 어린이 · 청소년 불자들에게 가장 부족하고 절실한 점입니다. 불교가 생활에 배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됐을 때 사찰을 찾는 기복신앙으로 굳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광호=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도자들의 기본소양도 다시 재고돼야겠지요.

일관=아무래도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출신들이 열정도 있고 기본 소양면에서도 월등해 이들을 활용하는 연계방법들이 개발돼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듯 합니다. 스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 법회 출신을 지도자로 양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영동=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의사를 잘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대해 어떤 것이 알고 싶은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방법은 이미 죽은 방법입니다. 법회를 고집하는 것보다 틀 속에 들어가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춤, 노래, 영화 등 주제별, 테마별로 문화포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매주 법회를 진행하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밀린, 구석기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동=저도 법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e-메일 활용 등은 정말 새롭고 효과적인 포교방법 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도자들 또한 문자를 통해 아이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관=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들과 지도법사들이 실시간으로 리플을 달아가며 서로 연락하고 대화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같습니다.

박영동=인터넷과 사이버문화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이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포교전략 마련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자!

김광호=주5일제 수업에 따른 방안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주5일제 수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단도 현재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포교전략으로서 템플스테이 등에 연구 · 투자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일관=종단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불교문화는 다른 말로 포교입니다. 즉, 불교문화를 알리는 것은 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일입니다. 법회를 보지 않더라고 법당에 들어와 법회를 참관하는 것만도 엄청난 포교입니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이란 공간을 이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해 시설이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불교문화를 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박영동=주5일제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면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이 증폭될 것입니다. 방학을 목표로 한 하 · 동계 수련회는 포교원의 정보센터를 통해 상설로 지원하고 있지만, 주말을 이용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끼리 갈수 있는 체험학습장과 문화교육장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내에는 청소년수련원 336개, 청소년 야영장 226개 등 수 많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있지만 불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은 목동청소년수련관, 합지골청소년수련관 등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익창출을 위한 수련시설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수련시설 확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불교 희망 있다"

일관=불교가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 개인주의화 되는 양상들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단을 필두로 개별사찰, 그리고 재가자들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노력한다면 '희망'은 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단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고 시대 조류에 걸맞는 시청각 교재와 만화, 게임 등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시급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등의 활동을 이어주는 연계작업과 학업생활을 연결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종단과 사찰, 그리고 지도자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광호=포교에는 적극적인 포교와 소극적인 포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佛)자 모양의 핸드폰 걸이 하나, 단주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포교입니다. 가장 좋은 포교방법이란 그 대상인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박영동=포교에는 반드시 목적이 뒤따라야 합니다. 90년대부터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즉, 문화적 감성을 지닌 자,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가진 자, 과학과 정보마인드를 가진자, 봉사정신을 가진 자 등을 '21세기 청소년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제도 및 장치마련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개방화 국제화되는 사회에 요구되는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불교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와 세계의 미래상을 제시, 이끌어 나갈 불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정리=김은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일관 스님



박영동 법사



김광호 법사

일관 스님 — 종단 무관심 · 입시 탓만 할 때 아니다

박영동 법사 — '넌 공부 난 기도' 부모도 의식 바꿔야

김광호 법사 — 법당에서만 법회 본다는 편견 버리자

웰빙 · pc방 · 인터넷카페 · 핸드폰 · e-메일 등 총동원해야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재미·감동·생활화가 '포인트'

"싫어, 난 안가. 엄마 혼자 갔다 와."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함께 가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아온 냉담한 반응. 어렸을 땐 넙죽넙죽 절도 잘만 하더니 커가면서 불교와는 자꾸만 멀어져 가는 아이들이다.

내 아이 불자 만들기

'집안이 불교라서 아이도 불교'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막연히 불교를 믿으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법 역시 아이를 '불자'로 만들 수는 없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새싹 포교에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불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엄마'가 나서서 고민해 보자.

●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라

석길암(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씨 집에는 50여권의 어린이 책들이 책장 한켠을 메우고 있다. 이 책들은 석 씨가 아이들을 위해 틈틈이 사모은 불서(佛書). 양질의 불서들을 꿰찬 아이들은 독서습관도 기르고 불교이해의 틀도 마련해 '모범 새싹 불자'로 유명하다.

아이들에게는 그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포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교리와 가까워지기 힘든 유아들의 경우 공양게 암송 등을 통해 불교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칭찬이나 불교문화 상품 증정 등의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관음사 어린이 법회 50여명의 새싹 불자들은 지도교사의 칭찬에 힘입어 <금강경> 사구게송을 한 소리로 욀 정도다. 암송 후에 이어지는 신명나는 게송풀이와 양껏 구비된 도서상품권이 놀라운 학습능력의 '당근'이라는 후문.

● 불교문화행사에 가보자

화계사 어린이법회 이찬영 군은 최근 연꽃 합창대회에서 수상한 이후 밤낮 찬불가 흥얼거리는 재미에 한창 신이 나 있다. 뜻밖의 칭찬과 박수세례에 한껏 고무된 찬영 군, 이제는 교리 공부까지 일등하겠노라고 나서는 통에 엄마까지 흐뭇해졌다.

문화마케팅이 화두가 되는 이 시대, 포교의 중심에도 문화가 있다. 화계사에서 수년간 어린이법회를 이끌어 온 전희자 지도교사는 "사찰 안에 갖힌 법회를 넘어서 사시사철 풍성한 불교문화행사를 적극 이용하라"고 당부한다. 수련회를 겸한 사찰답사도 좋고, 찬불가 경연대회나 부처님 그리기 대회 등의 연중행사도 참여할 만하다. 사물이나 사경 역시 체험을 이끌어내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수 있다.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라

동대부중 안주희 교법사는 "불교가 쌓아온 콘텐츠를 현대에 맞게 풀어가는 작업은 이 시대 새싹불자들의 몫이다"고 말한다.

동대부중의 최은영 학생은 최근 불교이모티콘 이미지 도안 개발에 한창이다. 처음에는 특수문자들을 응용해 동자승, 목탁 등을 표현하는 데에 그쳤으나 불교문화 콘텐츠 생산에 일익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그러다보니 사천왕상, 보살상 등도 찾아보게 됐고, 그 관심은 불교미술 전반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불교미술 전반에 녹아있는 불법에 대한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불교소재를 응용한 플래쉬 애니메이션,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불교 명상음악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불법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림 · 김영민

● 일상적 사고에 불교를 녹여라

"신약 개발을 주제로 불교CF를 만들어 보라."

명성여중 권진영 교법사가 아이들에게 요구한 수업내용이다. 부처님이 약사가 된 이야기, 불성을 회복하는 약을 만든 이야기 등 아이들이 고안해 낸 광고는 다양했다.

그러나 권진영 교법사는 "'몸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을 응용한 광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적인 소재 차용에 그치지 않고 교리의 핵심까지 자연스레 뽑아낼 수 있는 사고를 제시하는 것이다.

불교교육이 종교활동에 국한될 때 아이들은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기 쉽다. 때문에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 현실에서 잘 사는 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일상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효에 대한 주제 공부에 <부모은중경> 이야기를 함께 끌어내는 방식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 엄마 스스로 참여하라

매주 50~60명이 꾸준히 참석하는 관음사 어린이 법회에 가보면 엄마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엄마들은 법회에 앞서 지도법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미리 받고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해 간다. 관음사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한순옥 보살은 "아이들을 사찰법회에 전가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이들-엄마-지도법사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키우라"고 주문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엄마들 역시 부족한 공부를 채우게 되고 궁극적으로 불자가정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연령대별 추천 불서

호기심이 한창일 나이의 아이에게 '불교'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자녀를 불자로 만들고 싶다면, 서점의 불서코너를 유심히 살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동과 재미를 곁들여 전하는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그림에 신경을 써서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최근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정채봉 씨의 동화 '오세암'을 만화로 엮은 <오세암>(유병윤 그림, 파랑새어린이)이나 동승이 절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담은 <동승과 노스님>(안태성 글/그림, 동아일보사),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등은 그림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끈다. 성철 스님의 삶과 수행을 그린 <성철 큰스님>(불교만화사)이나 편양 언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왕눈이 스님>(운주사) 등도 권할만하다.

저학년 '오세암·왕눈이 스님'

고학년 '불교EQ·아름다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불생경>, <자타카> 등 경전 속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아름다운 우리 사찰 13가지 숨은 이야기>(이규성 글/그림, 운주사)나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아름다운 부처님나라>(윤승운 글/그림, 동쪽나라) 등은 만화로 엮은 에피소드와 함께 도움말이 들어 있어 이해를 돕는다. 경전으로는 <어린이 천수경>(김호성 지음, 이정문 그림, 불광출판부)과 <만화로 보는 부모은중경>(오거서불경만화기획연구팀 엮음, 오거서) 등이 쉽게 읽힌다.

<불교EQ>(우학 스님 지음, 좋은인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에 좋다. 수년간 어린이 법회를 지도했던 대구 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받았던 질문과 그 답을 간추려 놓은 책으로, '부처님은 왜 황금색인가요' '고기를 먹으면 안되나요' 등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가족이 함께하는 불교놀이

유치원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여, 이제 더 이상 불교에 도통 흥미가 없는 우리 아이를 불자로 만들기 위해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놀이에 있다.

불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자. 놀이를 하며 불교적인 소양도 심어주고 부모 자식간의 유대감도 키우는 일석이조 전략. 쉽고 재미있는 불교 놀이를 소개한다.

놀이1. 부처님 말씀 찾기

1. 준비물 : 색종이, 매직펜.
2. 방법
1) 먼저 자신의 색상을 정한다.
2) 색상별 색종이에 부처님 말씀을 각기 나누어 한 장에 한 자씩 크게 적는다.
3) 글자가 적힌 색종이를 글자가 보이지 않게 섞어서 펼쳐 놓는다.
4) 시작하면 먼저 자신의 색상 종이를 찾아 말씀을 완성하는 쪽이 이긴다.
5) 다 찾았으면 큰 소리로 부처님 말씀을 읽게 하고 아이에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준다.

놀이 2. 나뭇잎으로 만드는 부처님

1. 준비물 : 켄트지 2절 또는 4절, 스카치 테이프, 풀, 펜, 사인펜 등 꾸미는 재료.
2. 방법
1) 부처님 상호를 꾸밀 나뭇잎을 모은다.
2) 나뭇잎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부처님을 꾸민다. 나뭇잎 외에 아이가 원하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3) 다 만들고 나면 어떤 부처님인지 부모가 부처님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해 준다.

놀이 3. 옛날에 옛날에

1. 준비물 : 없음
2. 방법
1) 모두 둥글게 앉아 리더를 정한다.
2) 리더는 불교를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해 30초 정도 이어나간다.
3) 리더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연결해 30초 정도 한다.
4) 순서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이야기 줄거리가 중단되거나 주인공이 죽으면 실격. 각자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럴듯하게 이어나가면 나름대로의 멋진 소설이나 드라마가 탄생한다.

도움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 총화종

원로원장 전야옹
종 정 이동광
부 종 정 주인현 최혜산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김화담 / 감찰원장 이만오
문화원장 신도명 / 부 원 장 이남은
교육원장 조고담 / 기획실장 김행원
호계원장 권청담 / 총무부장 박현오
선 원 장 박청해 / 교무부장 이법오
사회부장 조민호 / 재무부장 박지산
규정부장 신법광 / 조직부장 최법일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 대전교구종무원장 윤법전
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 충청교구종무원장 김기태
서울남제1교구종무원장 김혜각 / 경북제1교구종무원장 김운산
제2교구종무원장 엄자혜 / 제3교구종무원장 황현담
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 울산교구종무원장 권청담
제4교구종무원장 이내역 /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김만법
경기북제1교구종무원장 최도명 / 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제2교구종무원장 유법경 / 중부교구종무원장 김문곡
제3교구종무원장 이법오 / 부산교구종무원장 최만재
경기남동제1교구종무원장 기혜성 /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제2교구종무원장 차혜진 / 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호
제3교구종무원장 정종화 / 전북교구종무원장 권덕산
경기서제2교구종무원장 김혜암 /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3교구종무원장 김해관 / 제주교구종무원장 전신오

종도일동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
홈페이지 : http://www.chonghwajong.org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대한불교 대각종

종정대행 청원 만청

총무원장 만 청
승정원장 해 천
감찰원장 해 송
교육원장 해 방
중앙종회의장 해 정
전국비구니회장 해 진
만청문도회장 월 천

■ 전국교구 종무원

서울교구 종무원장 해 각 / 대전교구 종무원장 현 암
경기교구 종무원장 해 능 / 충남교구 종무원장 해 천
대구교구 종무원장 대 천 / 강원교구 종무원장 해 선
경남교구 종무원장 해 법 / 전북교구 종무원장 해 연
경북교구 종무원장 월 천

종도일동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TEL 041)832-1188~9 / FAX 041)832-1187

불기 2548 (총기 3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불교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법신불의 진언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통리원장 우 승 / 중앙종의회 의장 의 강
재무부장 시 정 / 중앙종의회 부의장 원 송
사회부장 환수원 / 사감원장 법 성
교정부장 지회심

서울경인 교구장 지 성 / 부산경남 교구장 혜 암
대구경북 교구장 지 광 / 충청전라 교구장 법 성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02)552-1080~3 / 전송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

Buddha's Birthday

연등축제화보

너와 나 이제 둘 아닐세

5월 23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과 종로 우정국로 일대에서 펼쳐진 불기 2548년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축제에는 지난해보다 10만여 명 늘어난 연인원 30여만 명이 참가, 어느 해보다 성황을 이뤘다.

경기침체로 참가인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참가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은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상당히 늘어난 데다, 외국인불자와 관광객들의 호응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연등축제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지구촌 잔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연등축제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나눔과 평화'라는 테마에 걸맞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면서 평화의 염원이 어우러진 축제였다. 거리축제에서는 나눔마당이 성황을 이뤘고, 제등행진에서는 평화의 염원을 담은 각종 장엄물들이 선보였다.

축제 참가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발원했다.

연등축제 현장을 사진과 뒷이야기로 엮었다.





위풍당당 '용등' 천태종의 '용등'은 화려함과 위풍당당함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역시 한마음' 올해 등 경연대회 단체 행진등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별빛 등을 들고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불교국가 전통 체험 다양

○…올 거리축제에서는 스리랑카, 태국, 인도, 네팔, 몽골, 대만 등 불교국가들의 전통음식, 의상 등 자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제2공연 무대에서 펼쳐진 이들의 문화공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직장불자 예상인원 '초과'

○…직장불자회원 4백여 명도 연등을 환히 밝혔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청와대불자회,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등 10개 일터불자회가 손수 만든 연등을 한껏 뽐냈다. 당초 예상보다 직장불자들이 많이 참가함에 따라 등을 청룡사와 진관사에서 급조하기도.

한마음선원 공연 '눈길'

○…종각역 밀레니엄 플라자 앞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열려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마음선원 학생회 거리포교단의 특별공연이 바로 그것. 180여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거리포교단은 인도댄스, 스포츠댄스, 뮤지컬, 수화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흥을 돋웠다.

한편 매년 새로운 등을 개발해 여러 단체와 사찰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마음선원은 올해 봉축위원회 주최 등 경연대회 단체 행진등 부문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4년 6월 25일~8월 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4년 5월 20일~6월 25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중국 실크로드 10일** ▶출발일 : 6월 30일 ····· **177만원**
서안-종남산-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유림석굴)-투루판-우루무치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석굴을 답사하는 최고의 일정

특선2 **인도세미 배낭여행 10일** ▶출발일 : 7월 15일 ····· **149만원**
● 인도 7대불교성지순례 : 델리-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호텔,차량,식사,입장료,보험,안내자등 포함 / 인도비자대 불포함

특선3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7월 20일, 8월10일 ····· **293만원**
● 일정 :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특선 상품담당 : 심용훈 과장 011-749-5010

■ **티벳, 네팔 순례 12일** ▶출발일 : 6월4일 ·····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 **수미산 순례 25일** ▶출발일 : 6월21일 ····· **405만원**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순례는 보다 완벽하게 진행하고자 일정이 하루가 늘어 25일간 진행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한 순례 일정과 제반 준비등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허가서,입장료,비자대,호텔,식사등 포함









힘찬 발걸음으로 연인원 30만명이 동참한 올 연등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마당으로 어느해보다 흥겨운 한마당이었다. 사진은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공연을 위해 힘차게 뛰어나가는 모습.

최우수상을 수상해 '역시 한마음'이라는 후렴구를 남기기도 했다.

청소년 댄스경연 '짱이야'

○…제등행렬이 동대문을 출발한 오후 6시 30분. 우정국앞 특별무대에서는 전국 청소년들의 화려한 댄스경연이 열렸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진행한 댄스경연대회는 5월 한 달 동안 각 지방별 예선에서 선발된 8팀이 본선에 진출, 고난이도의 댄스동작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먹거리 마당에 웰빙바람

○…먹거리 마당에도 웰빙 바람이 불었다. 금강경독송회가 마련한 '웰빙, 무공해 전통사찰식품' 코너에서는 청국장과 된장이 건강에 좋다는 언론 보도의 영향 때문인지,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과 청국장의 인기가 좋았다. 또한 외국인들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효과가 어떤지를 유심히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디카 · 폰카 위력 대단하네

○…올해 연등 축제의 진풍경은 단연 '디카 폰카'의 홍수.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진 행렬에서 연이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예년에 비해 몇 배는 늘어났다. 카메라를 들고 불을 뿜는 용등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핸드폰을 들고 올 연등축제의 상징등인 흰 코끼리 등을 찍는 사람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경찰관 茶시음 '진풍경'

○…연차(蓮茶)를 마시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행렬 가운데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녀 3총사가 있었다. 푸른색 제복의 정정윤, 정진영, 이수미 순경이 그들. 서울시경 여경기동대 소속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볼자인 이수미 순경의 제안으로 잠깐 짬을 내 봉축문화마당 행사에 참가했다고.

대구서도 흥겨운 잔치마당

○…이날 대구 두류운동장에서도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연등축제가 펼쳐졌다.

오후 3시 동대 사물놀이의 길놀이로 시작된 식전행사는 팔공다례회의 육법공양, 태고종스님들의 영산대재 시연, 패러글라이딩 퍼레이드, 찬불가공연, 국악공연 등 작년보다 더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돼 대구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산행사 '수화통역' 눈길

○…부산역 광장에서도 오후 3시부터 전통국악 한마당, 헌공다례, 봉축 합장, 영산재 및 육법공양 등의 식전 행사로 연등축제가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서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심여회 수화봉사자들이 농아들을 위해 법회를 수화로 통역해 눈길을 끌었다.

특별취재반 / 사진=박재완 · 고영배 기자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

Buddha's Birthday

연등축제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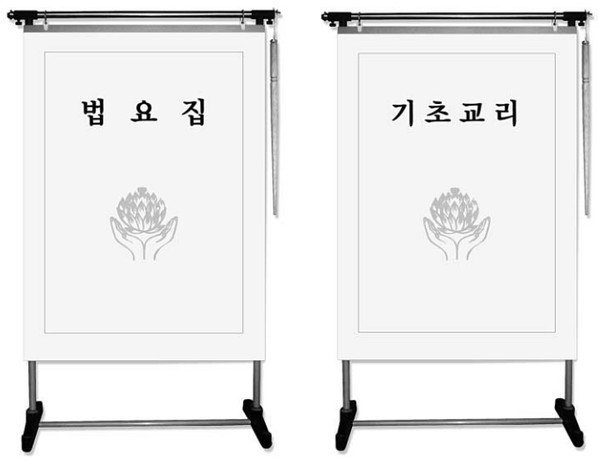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봉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축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료로는
칠판과 괘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법사님들의 많은 활용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20일 이후 전국 불교용품점에서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제작처 : 불교포교자료원 02-772-9052 ■ 총 판 : 불서총판운주사 02-3672-7181~4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광성빌딩 601호 예맥불교문화원

세계 제일 풍기인삼 그 효과를 느껴보십시요!!!

△홍삼 상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gin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 껍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망상 조직이 존재 하는데 홍삼을 이와 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 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엑기스 추출과정에 90℃ 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을색을 띠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 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은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명 품



명품 홍삼액은 소백산록의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풍기홍삼과 상황버섯을 주원료로 7일간 숙성 발효과정을 걸쳐 홍삼성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타 어느지역 제품보다 우수한 홍삼성분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내용량 100g × 60포
※ 당뇨가 있는 분을 위하여 꿀을 첨가하지 않은 무과당도 있습니다.

풍기정품 홍삼액 골드



인삼 재배에서 가공 상품 유통까지 산지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 입니다.
▶ 풍기정품홍삼액「골드」- 내용량 100g × 60포
▶ 풍기정품홍삼액「골드」- 내용량 100g × 30포

저희 풍기홍삼 정품 유통상사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최상의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품목 홍삼음료(액기스), 홍삼원액, 홍삼, 인삼, 절편삼, 인삼사탕, 인삼제리

풍기 홍삼 정품 유통 상사
공 장 : 054)636-2174 / 구입처 : 016-815-2174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원로의원 가산 지관
사부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2828 / FAX 02)914-4326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대성사
주지 정성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939-2
TEL 02)914-6532

대한불교조계종 · 성북구사암련회장
삼각산 내원사
주지 호암 정수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
TEL 02)941-2012~3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보림사
주지 묵산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1
TEL 02)914-6187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호암 정수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TEL 02)927-1232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동 탑골승방 미타사
주지 원호
총무 연경
재무 정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51
TEL 02)923-0492

(재) 선학원
삼각산 정법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0-76
TEL 02)762-0774 , 9570
FAX 02)742-8117

대한불교 조계종
천일기도도량 여래사
주지 동휘
칼라챠크라 만다라문화원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68-100
TEL 02)3673-3886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형제봉 심곡암
주지 원경
신도일동
www.simgokam.org
■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1
TEL 02)914-8860 / FAX 02)915-9933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봉국사
주지 월서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 2동 637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대한불교 조계종
서달산 맑은도량 달마사
회주 종림
주지 미명
신도회장 견불심
달마사불교대학 · 문예대학
신도일동
■ 서울 동작구 흑석1동 60-29
TEL 02)813-7425, 815-2746

대한불교조계종 · 서대문구사암연합회회장
안산 광명사 · 설법대학
주지 청곡 자원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498
TEL 02)735-1896, 736-1895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회주 박설산
주지 박응천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TEL 02)396-3405, 379-5502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불국사
조실 가산 지관
회주 연봉 태현
주지 가섭
사부대중일동
cafe.daum.net/kasup
■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 1리 573
TEL 031)719-0408~9 / FAX 031)726-0409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정사 · 경인불교대학
주지 종연
총무 덕륜
신도회장 신인철
사부대중일동
www.omnuri.org
■ 인천 남구 문학동 252-3
TEL 032)427-8400 / FAX 032)422-8401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합창단장 양원각행
사부대중일동
■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 삼영B/D 7층
TEL 031)444-5935~6 / FAX 031)444-5655

대한불교 조계종
도봉산 회룡사
회주 혜주
주지 성견
사부대중일동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11
TEL 031)873-3391

거북마을 영탑공원
태봉산 약수암
주지 성파 혜각
사부대중일동
www.youngtop.or.kr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
TEL 031)952-4801, 953-4081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적조사

주지 자성



고문 이성근, 서순희
회장 정정자
부회장 김봉규, 조성희
감사 유정남, 이종남
총무 백원일
간사 박만순(공양), 김도겸(경산회)
박상금 · 이순자(법당)
홍보 이원화, 이창건

사부대중 일동

서울 성북구 돈암2동 593 TEL 02)924-5362

대한불교 조계종
도봉산 도봉사



주지 원명

사부대중 일동

■ **도봉가족 한마당**
○ 일 시 : 5월 26일(석가탄신일) 오후 2시
○ 장 소 : 도봉사 대웅전 앞마당
○ 행사내용 : 바라춤과 나비춤, 회심곡, 가야금, 병창, 승무, 농부가 및 설장고, 인기가수 설운도 공연, 각설이 타령, 디스코 한마당, 경기민요, 뒷풀이 합창

서울 도봉구 도봉1동 494-2 www.dobongsa.org
TEL 02)954-1112~4 / FAX 02)954-7743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현역리학 연구원

◆ 생활역학 전문 교육처
- 고 자강 이석영, 고 단원 이병렬선생의 전통 학문 강의(초급~고급)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작명학 강의
- 본명 사주의 오행균형법 원형이정의 수리법 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 사상체질법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 전수

※갑신년 개요 : 강의록 테이프와 자료 판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1004호

02)2243-9598. 018-470-6314

예수재, 49재, 천도재, 화청, 바라, 나비무, 점안식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91-5692

범음범패 이수자 성불암 용산 합장

일침기요법 특강

그동안 기공사, 침구사들이 갈망하던 비법을 전수합니다.

- 무료공개강의 (일시 : 2004. 5. 24 오후 6시)
- 장 소 : 사단법인 금강선문 대강의실
- 개 강 : 2004. 6. 1 화요일 오후 7시
- 강의기간 : 4주(주1회)
- 교육대상 : 의사, 한의사
- 특강료 : 20만원 ■ 인 원 : 선착순 30명

Tel : 02)468-5388
사단법인 금강선문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함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가평 잣

● 650g 2만 5천원
031)592-2865
010-3005-2865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택배비 별도
공장 가평 초림 농산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동학사 일초대강백께서 수년전 불교방송에서 하신 〈유마경〉강의 테이프를 매도하시거나 빌려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전화 : 02)722-4162
017-236-5769
임연태(현대불교편집부장)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강의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49재,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부설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행자 및 부전스님 모십니다

▷영주
011-9342-9850

기도스님 원하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6264-1666

자동차 시주해 주실분

▷차종은 4륜구동이면되고 소중하게 감사히 쓰겠습니다

010-3056-3315
영암스님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참신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7-294-2003

부전승(여승) 기도하실 수행승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남해 삼천불관음도량
055)863-3114
016-708-0332

공양주를 모십니다

▷천년 관음 기도도량
포항 자장암
011-584-0888

산좋고 물좋은 사찰 가족되어 불사하며 함께 사실 분 모십니다

▷비구,비구니스님
▷공양주, 처사님 환영
033)345-7825

산수 좋은곳 행자님 연락바랍니다

011-696-8500

탈 종 공 고

- 사찰명: 봉운사 ●법명 : 재현 ●속명 : 조경만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1리 산 4번지

위 본인은 조계종 봉선사 말사 봉운사 소속 사미니 재현은 종단 탈종 및 「은」상자를 반납할 것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8년 5월 26
사미니 재현 합장

주지직인 무효공고

- 사찰명: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말사 성당사
- 주소: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2구 1001번지

상기 주지 직인은 2004년 4월 30일 이전으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성당사 주지 한동은 합장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강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사주와 성형관상의 대가 저자 김창규 원장의 생활역학전서

역학수강생모집 (개인지도)

- 역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사주공부를 하였으나 확신이 서지 않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해동철학원 서울 02)904-3094 부산 051)808-3260 H·P 017-277-7145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사담鍼術학회 오행生食연구소 목당易학연구원

生食

역학 | 침술 | 풍수 | 육효 | 작명 | 생식

음양五行生食

TEL. (02) 969-3169
969-0603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 가액 : 2억(절충가능)

033)766-0057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묵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011-9405-8186

암자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내
- 대지: 470평, 건물 110평 통나무집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3층 선방 30평
- 소나무 조경완벽, 정원내 생수 연못 및 다도 정자 유
-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맑은 계곡이 있음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도로포장 완벽
- 가액: 2억 2천만원 (총 투자금액 4억 4천만원)

011-509-0124

사찰안내

- 위치: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군 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 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 선원적합
- 가액 : 2억 7천만원

011-531-1334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 40평(심야전기), 주차장 : 40평(주차 8대)
- 가액 : 9천만원

011-9802-3136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챙기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은품을 드립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4-3733

세계적인 큰 스님 초청 아비담마(논장)특강 및 특별 집중수행

우 실라난다 스님 아비담마(논장) 특강

"선업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불선업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실재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그 근원의 해답을 아비담마(논장)의 가르침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 실라난다 사야도(U Silananda Sayadaw)

세계 최고의 선,학승으로 존경받는 우 실라난다 스님께서는 미얀마의 마하시 수행센터에 계시는 세 분의 종교지도자 중 한분이시며, 제 6차 불교도 결집에서는 삼장 빨리-미얀마어 사전의 편집장 이자 빨리 경전, 주석서, 보충 주석서의 저명한 편집자들 중 한분이셨고, 테라와다 국제 포교사 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면서 현재는 고인이 되신 마하시 사야도의 뜻에 따라 30년이 넘도록 세계 각국에서 아비담마, 위빠사나 수행, 그리고 테라와다 불교와 관련한 여러 가르침을 펼치고 계십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 특별 집중수행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큰 스님 (Ven. H. Gunaratana)

스리랑카의 구나라타나 큰 스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학과 수행 지도자로써, 수행과 깊이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적인 방향으로 결합하셨고, 현재는 미국 바와나 집중수행처의 선원장으로 계시면서 세계 각지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가르치고 계시며, 국내에는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위빠사나 명상" 이라는 저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

아비담마 특강 강의 일정 및 장소 : 6월 14일~6월 28일 저녁 7시~9시 / 보리수 선원
참가 회비 : 15만원 / 등현스님 통역(강의는 영어로 하십니다.)

특별 집중수행 수행 일정 및 장소 : 7월 17일~8월 13일 / 안성 황룡사 숙식 집중수행
참가 회비 : 1주 15만원 / 2주 30만원 / 3주 40만원 / 법해 통역

보리수 선원 홈페이지 (www.borisu.or.kr)의 아비담마 특강 참가신청서, 특별 집중수행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E-mail이나 우편으로 보내시고 아래의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E-mail 주소 : borisu03@hotmail.com
우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08번지 2층 보리수 선원 (135-110)
송금 계좌 아비담마 특강 : 국민은행 390201-04-004654 (예금주 : 천강희)
특별 집중수행 : 국민은행 390201-04-003884 (예금주 : 천강희)

주최 : 위빠싸나 수행처 보리수 선원 / 후원 : 법무법인 동래, 아름드리 미디어 / 협찬 : 현대 경희 한의원

보리수선원 발간도서



아비담마 해설서 (I,II)

빨리어(pali)원전과 함께 주석서와 해설서를 종합하여, 아비담마를 가장 상세하게 해설한 해설서

강종미 편저

6월 출간 예정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사념처

우 실라난다 사야도 지음
심준보 옮김
13,000원



여름에 내린 눈
우 조티카 사야도 저
박선영옮김(법보시 도서)



사성제
아잔 수메도 가르침
김상우옮김(법보시 도서)

6월 출간 예정

선정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금제 옮김

6월 출간 예정

사마타, 그리고 위빠싸나
파아욱 또야 사야도 법문
무념 옮김

지상중계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

2004년 5월 20~22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비구니의 삶과 그 불교사적 의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닻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처음 열린 '한국 비구니'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불교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불교사에서 '주변'에 머물렀던 한국 비구니를 그 '중심'로 이동케 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국 비구니'를 집중 조명한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로 한국 불교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서양 학자들과 동아시아 불교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비구니사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주제의 논문을 다수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 생중계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돼 참석자들의 편의를 돕고 국제대회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국불교사 '주변'에서 '중심'으로

한국비구니 집중 조명 첫 국제학술대회 … 주목받은 논문 많아

의의 · 성과 · 과제



5월 20일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는 1백여 비구니스님들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두번째줄 맨왼쪽)과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한국 비구니 주제 첫 국제학술대회

국내에서 한국 비구니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600년 한국 불교사에서도 비구 혹은 지배층 남성이 기록한 역사 속에 등장하는 비구니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2년 3월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 학회의 '한국 비구니에 대한 연구 : 학제간 연구의 전망'이라는 패널에 이어 국내 최초로 열린 비구니 주제 국제학술대회였다.

바바라 루쉬 교수는 이번 대회를 "한국 불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고 혁명"이라고 말한다. 로버트 버스웰(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역시 "한국 여성들은 한국 불교 전통에서 가장 역동적인 힘이었지만, 그동안 그들의 목소리는 없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그들이 한국 불교에 기여한 것을 발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서양 한국 불교학 연구 학자 총 망라

이번 대회에는 서양에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병헌(서울대) 교수도 "이번 대회는 로버트 버스웰, 존 죠르겐센(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헨릭 소렌슨(덴마크 코펜하겐 불교학연구소), 조은수(미시간 대학교) 교수 등 한국 불교를 전공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총 망라돼 더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박진영(아메리칸 대학교), 박포리(아리조나 주립대학교), 김영태(동국대), 최병헌(서울대), 김영미(이화여대) 교수와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은 모두 한국불교 전공자들이다.

한국 불교학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보조 지눌 전문가로 1974년 송광사에서 출가해 구산 스님 아래에서 5년간 수행하기도 했다.

존 죠르겐센 교수는 한국 불교와 함께 단군, 유교 연구를, 헨릭 소렌슨 교수는 근현대 한국불교를 연구했다.

흥미로운 주제, 새로운 논문들

이들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시대별, 주제별로 다양하고 새로운 논문을 쏟아냈고, 적극적인 논평도 이어졌다.

박포리 교수는 '현대 한국 비구니 사찰의 설립에 대한 고찰'에서 정화를 기준으로 비구니 승단의 형성에 대해 살폈다.

박 교수는 "비구는 대처-비구 간의 분쟁이 끝난 1970년대 이후에도 종권 다툼을 계속하고, 최근까지도 문중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끊임없는 분쟁에 에너지를 소모한 반면 비구니는 자신들만의 교육, 수행 시스템을 설립하는데 주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비구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비구니들은 개인의 혜택을 도모하기 보다는 공동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렇게 설립된 비구니 사찰에서 비구니들은 자신의 교리 공부와 선 수행을 비구승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자족적인 그룹이 됐다"고 밝혔다.

논평을 맡은 죠르겐센 교수는 "이 같은 독립적인 생활양식이 지금의 비구니 사찰을 이끌어낸 동력"이라며 "비구니 존재의 중요성은 종단에서도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에 대한 논문도 4편이나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혜선 스님(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은 '대행 스님의 수행관'에서 대행 스님의 수행관을 '주인공 관법'이라고 규정하고, 수행의 단계와 특성을 살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대행 스님의 수행관에서 주인공과 믿음의 상호작용은 보조 지눌의 '회광반조(廻光反照)'에, '세 번 죽음'은 보조 지눌의 '정혜쌍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논평했다.

또 청고 스님(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스님의 함이 없이 하는 도리'에서 대행 스님이 자주 사용하는 '함이 없이 한다'는 표현에 대해 고찰했다. 이에 대해 죠르겐센 교수는 "보다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죠르겐센 교수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과학적 사고로 종교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철저한 근거를 제시해야 과학교육을 받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독교 목사의 딸인 동시에 대표적인 신여성이었던 김일엽 스님(1896~1971)이 불교에 귀의한 삶을 통해 불교의 근대성을 고찰한 박진영 교수의 '김일엽:한국 불교와 근대성의 또 하나의 만남'은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논문 가운데 하나였다.

박 교수는 "작가, 여성운동가, 여승 등 김일엽의 다양한 삶은 불교적 사고양식이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김일엽이라는 여성의 경험을 불교와 근대성에 대한 담론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대 한국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무엇을 남겼나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불교사에서 소외됐던 비구니 역사를 발굴, 한국 비구니 승단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들은 이날 논평자들의 지적사항 등을 수용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6월에 있을 세계여성불자대회를 비롯해 향후 비구니 연구에서 이번 대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면, 보다 깊고 넓은 한국 비구니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비구니 연구에 비구스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현재 비구니 연구의 주체는 비구니스님이나 재가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 위상문제는 비구 · 비구니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비구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월운(동국역경원장), 인환(동국대 명예교수),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보광(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종립(고려대장경연구소장), 광우(前 전국비구니회장), 명성(현 전국비구니회장) 스님, 홍기삼(동국대) 총장 등 연인원 1천여명이 참석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이번 국제대회에서는 세계적인 불교 석학 등 국내외 학자 50여명이 참석,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학자 집단인터뷰 한국 불교와 비구니

"동아시아 불교연구에 한국불교 이해가 필수"

학술논문에서 깊이는 필수지만, 넓이는 선택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 10여명은 5월 19일 양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집단인터뷰에서 한국 불교와 한국 비구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개진하며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비구니 승단이 1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박포리 : 현대의 한국 비구니 승단은 한국 전쟁으로 중추적 시스템이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됐다. 비구니 개인들은 사찰 밖으로 나와 구걸을 해야 했고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에 의해서 비구니 승단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헨릭 소렌슨: 근본적으로 한국 비구니 승단은 수행에 대한 외부적인 간섭이나 강압을 받지는 않았다. 이것이 한국 비구니 승단의 존재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비구니 승단이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는 의미도 된다.

– 그레이스 : 한국 비구니 승단이 번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비구니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심오한 수행의 근본을 가르쳤던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팔경계법을 비롯한 경 · 율이 비구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헨릭 소렌슨 : 팔경계법만이 문제는 아니다. 팔경계법은 율장의 사상과 실재를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불교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율장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팔경계법 속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관점에서 율장을 바꾸어 나가야한다.

▲서양 학자들에게서 '불교는 알아도 한국 불교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 박포리 : 동아시아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한국불교 위상은 중요하다. 많은 서양인들은 중국 불교가 일본 불교로 전파된 것만 알지, 한국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불교가 불교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제는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 대한 호기심도 증가할 것이다.

– 로버트 버스웰 : 현재 미국 주요대학에서 불교강좌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신청할 만큼 큰 인기다. 그러나 한국 불교학을 비롯한 한국학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변화중이고 빠르게 바뀔 것이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서양인들은 번역물에 의존해 한국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있는데, 한국 불교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텍스트의 영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에서 한국불교학의 발전 전망은 밝은 것인가?

– 로버트 버스웰 : 그렇다. 매우 밝다.

– 헨릭 소렌슨 :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아직은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 티베트 불교와 문화 수업이 개설될 정도로 티베트 불교가 특별히 강세를 띠고 있다.



왼쪽부터 미리암 레버링, 캐서린 류(미시건 주립대학교), 바바라 루쉬, 로버트 버스웰, 그레이스(일본 묵조선 수행자), 박포리, 헨릭 소렌슨 교수.

버스웰 서양대학 불교강좌 큰 인기

박포리 한국불교 역할 · 장점 잘 몰라

소렌슨 한 · 중 · 일 불교연구 계속 증가

루 쉬 여성들 연대로 세계화 견인

▲최근 한국 불교의 화두는 세계화다. 한국 불교가 세계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충고한다면?

– 바바라 루쉬 :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 최초의 비구니는 한국을 불교의 스승으로 생각했다. 그 스님의 글에 따르면 스님은 한국에 와서 한국 비구니에게 불교를 배웠다.

지금은 많은 한국 비구니들이 일본에 와 불교를 배우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불교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협력 관계가 있었다. 불교를 통한 여성 불자들의 연대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 헨릭 소렌슨 :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불교가 해외로 나가서 서양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처럼 느껴진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 불교와 비구니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 로버트 버스웰: 원효스님의 모든 저작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완성할 것이다. 벌써 첫 번째 책이 나왔고 내년에 모든 작업이 끝난다.

– 조은수: 이번 학술대회를 정리하는 책을 발간하겠다. 이 책은 한국 비구니 관련 첫 번째 영문서적이 될 것이다.

– 박포리: 일엽, 인홍, 대행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수행을 연구해서 현대 한국 비구니 승단이 어떻게 성립됐는지를 밝혀내겠다.

정리=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포천
- 법당 : 17평
- 요사 : 1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6천만원

- 위치 : 충남서산
- 법당 : 20평(3포)
- 요사 : 10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9억

- 위치 : 충남
- 법당, 요사 :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가액 : 2억 2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포항죽장하옥

- 편션 별장 같은 요사와 법당
- 산세 수려함
- 대지 200평, 전 500평
- 국유지 2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2층 법당 45평(종무실, 공양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연등 1 천개, 닷집 단청필
-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 4층(40평)
- 방 2개, 주방(단독주차)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특징 : 주변 주택 및 APT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436-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부지 : 900평
- 법당 : 33평
- 요사 : 60평
- 가액 : 10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역앞 초량2동
- 3층법당 공양간 대중방 주지실 법당 종무실
- 삼존불 후불탱화 70평 산중탱화 104위 70평 산신탱화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51)466-7237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산호 4거리시장 입구 3층건물 중 2층
- 30평, 법당 11평, 방2개 주방, 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권리금 답사 후 결정
- 사찰인수한 관계로 급 양도함

011-489-3758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 용왕단
- 가액 : 3억1천만원 (융자 4천포함)

011-785-5670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강남 구곡리
- 대지 : 47평, 건평 : 17평
- 야산 및 전망 최고 교통편리
- 가액 : 1천 9백만원
- 전세가능

011-9580-6566

지 리 산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진주 50분거리
- 해발 700미터, 16,500여평 부지
- 법당, 주택3동, 황토집(빼치카, 통유리) 전망 웅장, 맥반석 계곡, 동남향 명당
- 선원, 기도원 적합, 차량 진입가
- 가액 : 4억 2000만원

011-9136-1314

사 찰 안 내

[사찰터]

- 위치 : 경기 분당
- 부지 : 950평
- 양도가 : 10억
- 산세 및 교통좋은 절터임

- 위치 : 충남논산
- 부지 : 7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80평(2동)
- 양도가 : 3억 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경인교육대학) 전철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계산시장입구)
- 평수 : 2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지장, 칠성, 산신탱화 모셔져 있으며 인등도 有
- 보증금 : 1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필요하신 스님 법사님 직접오셔서 보시고 결정바랍니다.

032)543-924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역에서 10분거리
- 대지 : 종교용지 430평
- 임야 : 1300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52평(심야전기)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2억 1천만원 전세도가능 : 7000만원

055)222-734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계산 전철역 부근
- 법당 : 3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32)541-798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산47-5
- 대지 11400평, 법당 25평,
- 목조건물, 요사 2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찰(긴급)안내

- 위치: 합천 진주간 중간지점
- 건물: 법당(기와): 25평, 요사채(스라브신축): 30평 요사채(스라브): 20평 <등기필> 산신각, 용왕당
- 대지: 250평 등기, 임야 100평(법당뒤 산세수려)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정남향 위치) 마을어귀
- 불필요 전화사절, 절충가능함(꼭 사시고자 한분)
- 가액: 1억 5천5백만원(경남권으로 포교 요충지)

011-9017-5445

사 찰 안 내

- 경남 마산시 화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부지, 대웅전 31평, 목조, 상포, 오포, 금단청 필 명부전 10평, 단청 필, 요사 80평, 방 10칸 주방 2개, 거실 주지실 10평, 기타 창고 약 6평, 주차장 100평정도
- 가액 : 9억(건물완공 약 7년)

※ 소개인 사절함

055)294-4889 / 011-554-0102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9415-6831

5월23일 조계사 앞 불교문화마당에서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웰빙전통사찰청국장은 국산콩(대두100%)을 유기농 볏짚에 띄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무공해 청국장이며, 수행정진의 기운이 듬뿍 배어 있어 맛이 순하고 드시기 편합니다. 꼭! 동참하셔서 복 많이 지으시고 온 생명이 건강해지고 후복 해지길 발원합니다. (택배도 가능함)

▮효 과 : 청국장은 혈전(피떡)을 녹여 피를 맑게 하고, 지방을 체외로 배출시켜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으며, 항암물질(사포닌), 레시틴, 핵산, 셀레늄 등 생리 활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두뇌 발달 등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악성변비는 매끼 2수저씩 7일이면 큰 효과를 봅니다.
(D대학의 쥐 실험 결과 메주가루를 먹은 쥐의 두뇌가 170% 더 좋아짐.)

청국장(분말,환,찌개용,무염생청국장)주문 받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 100% 순 우리콩(대두)
메주 매년 1~2월 판매.

※ 연락 하실 곳 : 금강경독송회 010-2227-1250

서울 02-742-0172/포항 054-261-2231/부산 051-514-3566/대구053-425-3063/대전 042-862-8638/울산 052-245-0337/수원031-253-2677/강릉033-644-9009/뉴욕 718-539-9108/LA 562-407-1059

토굴안내

(현 사찰로 사용)

- 위치: 경북 김천 구미 경계
- 대지 : 78평, 건평 28평
- 임법당, 방, 주방(입식), 거실, 화장실(수세식)
- 보증금 : 1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
- 삼존불 개금되었음. 소불 80분, 연등 교통편리, 집안주차장, 뒷 텃밭

016-744-0421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
- 대지 : 1440평, 논 100평, 임야 25000평
- 법당 23평(목조), 삼성각 7평(목조) 요사채 50평
- 가액 : 10억원

033)763-4328
011-798-87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건물 4층 콘크리트
- 1층 법당. 2층 공양체. 3,4층 주택
- 산을 끼고 있으며 용도변경 가능함
- 법당 부분 주불 관세음보살 호신불 305불 조성되어 있으며 단청되어 있으며 법당 시설비는 일체 받지 않음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051)343-5689
011-597-8889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 대지 및 임야 20,500평
- 건물 : 대웅전,극락전,요사채3동 및 다수(연못2곳,석탑,불상등)
- 특징 : 1. 조경수려 2. 예산시내와 인접하여 교통매우편리
- 가액 : 35억
- 실소유 하실 분만 연락요망

017-433-4525
011-422-2909
011-9883-0008 주인직접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도심속 암자)
- 현재 운영중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단독주택 80평
- 임법당, 큰방 2개, 작은방 4개, 공양간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철학하시는 스님 및 거사 보살님적합
- 유동인구 많음. 전주에서 15분거리

011-9437-5127

비구니 스님 선원 분양안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금선사 내 여래선원 3층건물 24세대 (1세대 17평)
- 준공검사 완료. 현재 입주가능
- 가액 : 17평 5,500만원(1층, 3층) 17평 5,700만원(2층)
- 연락처 :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011-538-3879 / 054)772-7171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 건물 : 50평(2층건물 2층) 주방, 화장실
- 법당 : 20~30평
- 시설비 : 1500만원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

016-640-8133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최고 요지
- 포교당 인연 따라 바람따라
- 위치 : 송파구 방이동
- 54평 3층(대로변)
- 불교, 요식행위 가능
- 권리금 3500만원(조정안됨) 보증금 : 2500만원 월 136만원

010-4749-811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김포시 담정동 485-16 관음사 포교원
- 법당 : 52평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조정가능

031)997-54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56-280
- 대지 : 56평(평당 420)
- 건물 : 2층 (약 40평)
- 특징 : 리모델링 예쁜집, 조용함. 집앞에 산과 공원인접 조계종 소속 작은 사찰 여승

011-1775-3525
016-205-5063

토 굴 안 내

- 위치: 중남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014)753-8137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시장
- 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 (절충)
- 도심포교에 뜻 있는 분

016-424-0500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불원 미술원

원장 김 진 구

서울 강동구 성내 3동 409번지 301호
☎ 02)477-9178

선불화공방

탱화 / 벽화 / 개칠

내 마음자리가
정토를 볼때
손끝의 붓은
그곳을 그렸습니다



참나 박 경 귀 합장

110-220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61-1
작업실 733-0730
011-226-0730
자 택 733-0731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8-5
TEL 031)855-5035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봉선사 말사

불곡산 백화암

주지 보 인
총무 도 일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주시 유양동 산 40
TEL 031)840-1582

대한불교조계종

돌고개앵무봉 지장기도도량

대 원 정 사

주 지 해 련
총무실장 박정일
신도회부회장 김원식
거사회총무 김형하
사 무 장 정선봉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26
TEL 031)855-5001, 5003 / FAX 031)855-5502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지 길 산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보 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 188번지
TEL 042)633-1141

한국불교태고종

녹 야 원

주지 묘 덕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지동 108-5
TEL 042)627-4906

보문불교서점 · 전시관

대표 김정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7-7
TEL 042)257-0161
042)253-6446

영등포 탑사포교원 소년소녀가장 3가족과 결연



영등포 탑사포교원 주지 무량스님(왼쪽 두번째)과 신도들이 5월14일 진아(왼쪽 세번째) 할머니(왼쪽 네번째)와 후원결연 했다.

주지 무량스님·신도들 '더불어 살기' 실천
"작은 것이라도 직접 만나 함께 나누자"

초등학교 4학년 진아는 울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여느 가정의 아이들처럼 크게는 울지 않는다. 그냥 눈에 고이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만 쳐다본다. 진아는 슬프면 마음으로 통곡할 뿐 겉으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영등포 탑사포교원 주지 무량 스님이 5월 14일 후원자 결연을 위해 진아네 집을 찾았다. 서울 장위동 단독주택의 담장 한편으로 난 쪽문을 통해 들어가면 할머니와 살고 있는 진아네 집이다.

좁은 통로를 타고 들어가면 부엌에 붙은 방하나가 있다. 그곳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진아네 할머니 유인복씨가 누워있다. 헤진 벽지위에는 00사 사찰달력이 걸려있다.

할머니는 갑작스런 스님의 방문에 몸을 일으키지만 쉽지가 않다. 당뇨병으로 신장이 녹아버렸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중단 상태에 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한 삼촌이 있지만 가출한 아버지가 삼촌명의로 카드를 사용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큰 도움은 못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왔다"는 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저야 이렇게 가면 되지만 어린 진아를 생각하면 목이 메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영등포 탑사포교원 스님과 신도들은 이어 초등 5년 선호와 초등 1년 민혁이네도 방문해 후원결연을 했다.

무량 스님은 "매달 후원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시간이 나는 대로 신도들과 결연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보살필 것"이라며 "신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운동에 참여하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원정사, 나눔의 등달기 거리모연



대원정사와 대원불교대학은 5월16일 공평사거리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달기 거리모연을 전개했다. 사진=김원우 기자

16일 서울 종로 공평사거리서
40여 신도, 합창단 공연에 성황
5월 한 달 남산순환도로에 점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연등을 달아주세요"

5월 16일 오후 2시. 일요법회를 마친 대원정사 신도들과 대원불교대학 학생들이 서울 종로 공평사거리에 좌판을 깔았다.

본사 나눔의 스티커와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 자비의 등 어깨띠를 두른 신도들이 자리가 정된되자 마자 지나가는 불자들을 향해 권선하기에 바쁘다. 특히 일요일을 맞아 관광 온 외국인들은 집중공략 대상이다.

처음에는 그냥 힐끔 쳐다만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더니 이내 접수대는 발을 디딜 틈이 없이 붐빈다. 순간 열심히 목탁을 치는 김범준 상임법사의 얼굴에 화색이 만연해진다.

김 법사는 "신도들에게 거리모연을 제안했을 때 '되겠느냐'며 약간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뿌듯하다"고 즐거워했다.

3시쯤 되자 중고등학생회 회원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홍보봉사의 바톤이 터치되고. 이내 분위기는 활기 그 자체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공평사거리는 이제 불자는 물론 외국인, 기독교인조차 그냥은 지나치지 못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합창단 불자들도 가세했다. 20여명에 이르는 합창단의 찬불가에 맞춰 모연을 외치는 20여명의 신도들의 극성에 이웃을 위한 자비의 거리모연은 호황이다.

대원정사는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과 공동으로 소년소녀가장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자비등 3천등을 5월 한 달 동안 남산순환도로에 매달고 있다. 1등 3천원. 문의 (02) 773-9171, 754-1613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아름다운 가게' 석왕사에 문 열다

"안 쓰는 물건, 이제 석왕사로 가져오세요!"

재활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비영리재단 '아름다운 가게'(공동대표 박성준·손숙·윤팔병)가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석왕사(주지 영담) 내에 문을 열었다. 전국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가 사찰 내에 매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석왕사 원미점 명예점장으로 위촉된 영담 스님과 아름다운가게 손숙·윤팔병 공동대표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찰 매장 '1호점' …19일 개점
윤팔병 대표 등 애장품 기증



석왕사내에 개원한 아름다운 가게.

영담 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석왕사 내에 아름다운 가게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석왕사 원미점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숙 대표는 감사인사를 통해 "물건을 아껴 쓰는 '나눔과 순환' 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교시설에 아름다운가게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담 스님은 사용하던 벽걸이 시계와 향로, 도자기 등을, 윤팔병 대표는 이날 불상 9구를 기증했다. 아름다운가게 석왕사 원미점은 앞으로 책과 의류, 장난감, 생활용품 등의 물건을 기증받아 판매하게 된다.(032)654-7497

여수령 기자

나눔의 저금통 수거현황

한마음선원 중부 경남지원-105만 6천120원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1차접수-52만 150원

변복희, 최철환, 홍제길, 오병희, 이필자, 이갑희, 조용준, 임영자, 김증여, 김두식, 박연향, 우병례, 김계임, 이봉순, 신정자, 김차해, 전우증, 길상원, 회룡한의원 이상- 31만 3천200원

※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722-4162~3 김원우.

성금 내신 분

이순자- 3천원
한경복- 10만원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과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홍천 운봉산 광운사
서울 포교원 **광운정사**
주지 청운
광운불교대학
홈페이지 : www.kwangwoonsa.com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1-8966 / 033)433-9108
FAX 02)381-8525

대한불교 조계종
축서사
주지 무여
사부대중일동
불교 교양대학 운영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계단리
TEL 054)672-7579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번지
TEL 054)633-3464

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사
주지 지현
신도일동
홈페이지 www.cheongryangsa.org
■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
TEL 054)672-1446

대한불교 조계종
봉암사
신도일동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번지
TEL 054)571-3733, 9088

대한불교 조계종
경북불교대학·불광사
바른 배움 / 바른 깨침 / 바른 포교
학장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053) 792-1353, 1181
FAX 053) 791-4951

대한불교 조계종
금용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5

대한불교 조계종
관운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 931-7777

제 2 갓 바 위
향림사·선재불교대학
주지 정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리 산 1
TEL 053) 767-7504
FAX 053) 767-7503

팔공산 1신1지장 만불보탑 건립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주지 지공
신도회장 대각심
부회장 여래장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541-1
TEL 053)744-0151/FAX 053)744-0150

관음기도 도량
약수암
주지 대명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603
TEL 053)983-1517

대한불교 조계종
서봉사
주지 경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암
주지 현선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2동 136-44
TEL 053)743-7070

대한불교 부처님세계
수참사
(한국불교법사 총연합회)
주지 향림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1동 657-29
TEL 053)561-3129

깨달음의 법, 전법하는 사
한국불교법사대학
법림회 일동
■ 서울특별시 종토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3층)
TEL 02)720-1836 733-1959

대한불교 조계종
천성산 내원사
동국제일선원 비구니선방
주지 혜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291
TEL 055)374-6466
FAX 055)374-6467

대한불교 조계종
속리산 달마선원(선문화예술원)
주지 범주
선묵전시관, 명상센타
■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2리 294
TEL 054)535-0378
H·P 011-9584-0378
FAX 054)535-4750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산 불은사
주지 무공
대중일동
매주 초하루 법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TEL 053)581-0770

대한불교 조계종
성화사
주지 진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521
TEL 053)625-9030

재단법인 선학원
금강선원
주지 성철
신도회장 문경태
삼오금형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 90-1
TEL 054)471-3997

대한불교 조계종 **감천사**
사회복지법인 **감천사회복지재단**
노인 · 아동 · 여성 · 재가복지시설
www.gamchun.com
주지 오정
임직원 · 생활인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151-1
TEL 053)982-0562, 986-5522

법화종
앞산우리절 무량사
주지 일우
신도회장 이진호
총무 성주은
우리절 불교대학학생, 신도회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1550-49
TEL 053)655-3301/H·P 011-9853-3843
FAX 053)655-3380

보국불교 염불종
정운사
주지 월명
사부대중일동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176
TEL 054)872-2372

원기사
주지 혜련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산24
TEL 053)633-1444, 632-1444

광원사
주지 덕양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북구 광음동 466-3
TEL 053)324-0882

청룡사
주지 서암
신도회장 정한국
총무 권성분
대웅전 조성불사 발원
■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산200
TEL 054)532-9808 /533-0823

대한불교 조계종 **원만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지 법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 257-1914

금화사
주지 진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19
TEL 053)616-5571, 9396

수림사 (구)용암사
주지 혜광
■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861-98(2층)
TEL 053)983-3920

구암사
주지 상법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806
TEL 053)424-3414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법화종
경북교구종무원(지부)
종무원장 (지부장) 김경호(도안)
임직원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산 77번지
TEL 053)627-7703 / FAX 053)656-3939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대한불교조계종
소 재 사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4
TEL 053)614-6637

대한불교조계종
용 암 사
주지 보 일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대송면 홍계리 177-1
TEL 054)285-0308

대한불교조계종
용 천 사
주지 백 산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62
TEL 054)372-7204

한국불교 태고종
약사여래 기도도량 **관 음 사**
주지 벽 파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29-2
(안심지하철역에서 하양쪽으로 300m 전방 대림육교 좌측 철길)
TEL 053)963-4028

대한불교 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 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동 421
TEL 054)972-2700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법 천 사
주지 석법천
신도회일동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26
TEL 054)474-3855

문경새재內 주출산
혜 국 사
주지 보 경
대중일동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13
TEL 054)571-0341

대한불교 조계종
내 원 암
주지 정 현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5
TEL 053)982-0225

대한불교 조계종
광 흥 사
주지 일 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자품리 813
TEL 054)841-6848

월 인 사
주지 혜 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605
TEL 053)767-3971

관음사 포교원
주지 지월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리 555
TEL 053)767-2908

운 주 사
주지 약 천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74-9
TEL 053)951-0002~3

대 산 사
주지 선 오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1143번지
TEL 054)372-6534

천지산 봉천사
주지 보 일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전리
TEL 054)733-6336

염불종 정운사
주지 월 명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176
TEL 054)872-2372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성 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2리 865
TEL 053)768-9920

삼 보 사
주지 사 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2리 산75
TEL 053)676-3234

부처골 卍지장선원 卍지 장 암
(영가천도/구병시식)
주지 혜 봉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89
TEL 054)383-8553

청 백 원
"청백원의 눈으로 찾아낸 고품격의 작품"
■ 전시장/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46-1
TEL 053)253-1121 / 256-7484

다기류일절
홍 백 원
"진솔한 향기가 있는 곳"
대표 이화숙(법률행)
■ 전시장/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76-1
TEL 053)256-5847/ FAX 053)253-0903

삼 보 불 구 사
(불교용품전문)
현진 이한득 합장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14
TEL 053)257-7578, 256-0443
H·P 011-526-4058

대구불교산악회
'산을 좋아하는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정기산행: 매월3째주 일요일
회 장 김장근
회원일동
www.1008.co.kr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14-5
TEL 053)763-1919/FAX 053)768-4548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강 충
(주) 고 도 건 축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TEL 053)964-0858/H·P 011-804-1748

불심으로 서각하여 부처님도량을 장엄하는
國談書刻硏究所
晴虎 申健一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146
TEL 053)851-1511/H·P 011-9378-9001
FAX 053)851-1191

건들바위 레스토랑
양/한식전문점
대표 변충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32-2
(진각회관 맞은편)
TEL 053)421-1500

고 향 떡 집
최고 품질 재료와 섬세한 솜씨로 만든 정성과 품격이 담긴 혼례음식, 폐백, 이바지 음식과 각종 떡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전지역 택배)
■ TEL 053) 472-9597
(대구 앞산 효성타운 대구은행 맞은 편)

현대자동차 부품대리점
동남자동차부품
대표 박희천
■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66

델 타 석 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 판매 (신속 공급)
대표 박성일(보경)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나무아미타불 기도도량
정 토 원
정토선원
주지 장고봉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561
TEL 053)984-0409

대한불교 조계종
인 각 사
「역사와 문화의 산실 삼국유사 저술지」
주지 초암 상인
신도회장 배창순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동 612
TEL 054)383-1161

대한불교 조계종
관오사·불교사회복지회
주지 지 도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77-15
TEL 053)471-6640(관오사)
053)476-6631(복지회)
FAX 053)476-0334

대한불교 조계종
천 해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구미시 구포동 산 42-1
TEL 054)471-6176

대한불교 조계종
천 수 암
주지 상 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177-1
TEL 053)614-9555

대한불교 조계종
안 일 사
주지 혜 정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산225
TEL 053)655-0225
반야유치원 TEL 053)655-0223

대한불교 조계종
보 림 사
주지 도 견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471-1
TEL 054)373-4255

「적멸보궁」
팔공산 반야사
주지 일 정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813
TEL 053)983-6421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성 륜
대중일동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28-1
TEL 055)583-2601

대한불교 조계종
성 주 사
주지 혜 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산1-4
TEL 053)585-0450

대한불교 조계종
천등산 봉정사
주지 장문인
사부대중일동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TEL 054)853-4181
FAX 054)853-4185

대한불교 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 조계종
지 장 사
주지 지 형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10
TEL 053)755-9817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대한불교 조계종
보 갑 사
주지 원 진
거사림 대표 정종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747
TEL 054)372-5702

대한불교 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1동 3-1
TEL 053)941-3503(아양교옆)
053)953-4481

대한불교 조계종
금 강 사
주지 이정우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원남동 100-25
TEL 054)452-0845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 구 도 광 사
주지 법 성
칠성회 회장 이태영
관음회 회장 조경래
지장회 회장 김원기
자비회 회장 안옥순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708-6
TEL 053)653-8583/H.P 011-813-8587

경 주 정 각 사
해월불교무용연구소
주지 해 월
무용단원, 수강생모집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1동 1484-15
TEL 052)247-1380

청 수 사
주지 종 열
청수어린이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117-36
TEL 053)741-2562

효 성 사
주지 효 성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2동 1064-37
TEL 053)472-5777

天明寺 혜정원
주지 혜 정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08
(진인동 앞 작은다리 우회전 300m)
TEL 053)986-8090, 7790, 0111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1동 578
TEL 053)782-0120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
대구광역시 신도회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회장 장영관
임원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14번지
TEL 053)253-2886 / 252-9485

(양초 · 고급향)
연 꽃 양 초
대표 김동호 합장
■ 공 장 : 053) 811-5331
휴대폰 : 011-517-5978

원기형 미용실
유럽 참피온 타이틀 획득
대한 미용사 중앙회 기술강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시장 입구
TEL 053) 762-6282

정 우 조 경
조경 · 설계 · 시공
대표 이 정 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4-10
TEL 053)762-3952
011-513-6807

동성한약방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번지
약전골목내
TEL 053)252-6411/255-0008

대창 종합 열처리
대표 김상진
IS9002, QS9000국제인정서
특허 0266125, 실용실안등록번호 0173004
CE업체등록, 광양제철소등록업소
현대중공업등록업체, CLEAN사업장 인정서
몰리부덴코팅, 중장비 바스케 수리보강
풍산금속 방산업체등록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227
TEL 054)762-0117/FAX 054)763-0117
H·P : 011-503-9196

(株)玖峰 · 鍍金 · 精工
ISO 9000:2000인증업체
QS 2000-1998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구봉정공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 053) 351-0009, 4856
FAX : 053) 352-1717
(주)구봉 TEL : 053) 582-0156
FAX : 053) 582-0157
구봉도금 TEL : 053) 581-0009
FAX : 053) 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일주문



하와이 무량사 법요식서 법문

서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은 5월 26일 하와이 무량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법문하고 6월 4일 귀국한다.



화엄경 금니사경전 전시

함양 벽송사 조실 원응 스님은 6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광불화엄경> 80권 60만자를 사경한 '화엄경 금니사경전'을 개최한다.



'도봉가족 한마당 봉축음악회

서울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은 5월 26일 오후2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국악인 유창, 오갑순 씨의 음성공양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02)954-1112



'호국영령 천도재 봉행'

성남 성보사 주지 휴암 스님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호국영령천도재'를 봉행한다. (031)753-3360



대승원 창건 50주년 기념 강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목정배 총장은 5월 21일 수원 대승원 창건 50주년 기념법회에서 '21세기를 맞은 대승불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제7회 개인전 개최

서울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은 5월 25일 인사동 단성갤러리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를 주제로 제7회 개인전을 열었다.



'깨달음… 위파사나' 무용 공연

청주 서원대학교 무용학과 윤덕경 교수는 5월 13일 충주문화회관에서 '고요한 시간, 그 깨달음-위파사나'를 주제로 창작무용을 공연했다.

"중도 실천에 국민통합의 길 있어요"

박세일 교수, 초파일날 도피안사서 강연



"조국의 선진화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좌와 우의 분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찾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살 중도(中道)의 길이고, 대도(大道)의 길이고, 천하공도(天下公道)의 길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5월 26일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에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세일(한나라당 당선자 • 사진) 교수의 강연이 열린다. 주제는 '중도로 본 국민 통합론'. 박교수는 미리 밝힌 강연 요지에서 중도 사상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뛰어 넘는 가르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 교수는 강연 초반에 "좌는 우에서 배우고 우는 좌에서 배울 때 진정한 좌가 되고 훌륭한 우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하고, 진보는 보수에게 배우고 보수는 진보에게 배울 때 진정으로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좌나우, 진보와 보수는 인간 사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중도의 세기'로 규정한 박교수는 좌우와 진보의 대립을 넘어 조화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 등을 정치적, 결제학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중도적 가치가 그 해결책임을 역설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5월 17일 귀국한 엄홍길 대장이 환영나온 봉선사 신도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엄홍길 씨 히말라야 15좌 완등

17일 귀국 … 봉선사 신도들 공항서 축하

5월 5일 네팔 히말라야 얄룽캉(8505m)에 등정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5좌 완등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엄홍길 등반대장(44 · 트렉스타 이사)의 '2004 한국 얄룽캉 원정대'가 5월 17일 귀국했다.

60여 일간의 긴 원정에도 지친 기색없이 배낭을 직접 메고 귀국한 엄 대장은 귀국 인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등정 성공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다"며 "오는 8월 로체샤르 원정에 나섬으로써 세계 최초 16좌 등정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영배 기자

홍조근정훈장 수상
성기태 충주대 총장



충북 충주대학교 성기태 총장(52 • 사진)이 '제2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열린 교육 공로자 시상식에서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지난 2001년 48세 최연소 직선 총장으로 당선돼 화제가 된 성 총장은 동국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충청북도 종학장협의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김철우 기자

'청정도론' 완역 봉헌법회 성료

18일 300여명 동참…각묵 스님 특강도



봉헌법회 후 기념촬영. 앞줄 가운데가 대림 스님.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역된 팔리(Pali)본 <청정도론(淸淨道論)> 봉헌법회가 성황리에 거행됐다.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5월 18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청정도론> 완역 봉헌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역경원장 월운,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선우도량 공동대표 현각, 해인사 강주 종묵, 동화사 강주 해월,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안심사 주지 일연, 봉녕사 강사 대우 스님과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국제피플투피플 곽일훈 총재, 황경한 진양유조선 대표 등이 동참했다.

이날 <청정도론> 역자인 대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년만에 완역한 <청정도론>은 부처님 법을 정확히 해설하려는 아비담마와 실제 수행체계인 위빠사나를 이어주는 수행 지침서이자 초기경전을 이해하는 디딤돌"이라며, "2008년까지 <디가니까야><맛지마니까야><쌍윳따니까야><아궁따라니까야> 등 4부 니까야를 비롯 팔리삼장의 역경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월운 스님은 축사를 통해 "행주좌와 일상 수행과정을 또박또박 체계화한 <청정도론>의 국역은 시의적절한 불사"라며 "사부대중이 어렵게 번역한 경전과 논서가 널리 읽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도 "자랑스러운 <청정도론> 국역을 계기로 상좌부 경전의 국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봉헌법회에 앞서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을 주제로 특강했다. 관련기사 30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안양 지장선원, 팔순신도 합동잔치



안양 지장선원(주지 현호)은 5월 19일 선원 대웅전에서 신도 팔순 잔치를 거행했다.

팔순을 맞은 신도 6명을 비롯 150 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장선원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불자 개그맨 최영준 씨의 변사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파-워봉 통증해결!!

통증의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고,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은 氣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통증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통증에서 벗어나는 비결!

동양의학에서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氣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픈것은 氣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인체는 기(氣)와 혈(血)과 임파액이 잘 통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지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으로 근육이 경직되면 기와 혈이 잘 통하지 않고 몸 구석구석이 막히게 되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에 자연 치유법으로 기와 혈을 소통시켜주면 통증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워봉은 육각성과 피라미드 원리와 미약 자기발생의 원리로써 경락의 국소부위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순수한 자가요법이며 자연치유법입니다. 말이 필요없으며 단 한번의 체험이 모든것을 말해줍니다.

사용해 보신분들이 반드시 이웃에 권하고 있습니다.

파-워봉은 11년전에 개발되어 비구니스님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봉암사를 비롯하여 전국 선방에는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어 왔습니다.
10여년간 파-워봉, 신선대를 사랑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약청 의료기 제조허가 1119호
품목허가 03-791호
특허청 의장등록 제180471호

스님들께 특별 사은판매!

지난 11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파-워봉을 애용해 주시고 이웃에 소개해주신 공덕으로 파-워봉은 이제 세계적 상품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보답코자 저희는 스님들께 특별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시중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가격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주머니 사정에 맞춰 드립니다.

※ 파-워봉으로 신도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찰, 암자의 스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신도확보에 확실한 방법입니다. 파-워봉을 포교용으로 사용하실 종단이나 스님들이 연락주시면 최대한 부담없는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파-워봉 개발자 이재복

• 천일기공 연구회 회장
• 파-워봉 연구학회 회장
• 한국 안전, 품질혁신재단 이사

<<저 서>>
• 우주파-워의 활용법
• 천일기공
• 통증없이 사는법

초청강의단체
• 중앙경찰학교 국립경찰대학교 • 삼성종합화학(주) • 한솔개발(주)
• 한국중공업 • 독일동서의학병원 임상실험참가

※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에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오셔서 수년간 고생하던 건강이 빠르게 호전되어 놀라워 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이 오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5박 6일 코-스와 1박 2일 (토,일)코스의 기공 강좌가 있습니다.

※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 중에서 골반이 틀어져서 고생하시는 스님들 이제 걱정 마세요.
스스로 골반잡는 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 골반이 바로 잡힙니다.

11년의 역사!!
파-워봉 연구학회

주문전화 : **1544-3246**

소백산수련원(경북 영주) TEL: 054)638-2224

좋은것은 외국에서 먼저 압니다. 미국(뉴욕, LA), 캐나다, 독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서의학 병원 의사들을 통해 유럽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천일기공**을 치세요



불자 세상보기

최 종 석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불교문화상품의 조건

최근 호주의 '에코부다' 라는 신발을 만드는 업체에서 "유럽형 디자인에 동양적 가치를 접목시킨 제품"이라며 부처님의 좌상로고를 신발 뒤축에 새긴 스포츠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가 웹사이트를 이용한 판촉에까지 나서자 불교국가인 태국정부에서는 호주정부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 경우처럼 단순히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마인드만 가지고 만든 상품은 불교를 폄훼하거나 왜곡시키기 일쑤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마인드와 불교적 정서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불교문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불교문화를 상품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유한 불교 정서와 현대인의 정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일은 시급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여기에서 조심할 일이 있다. 과연 불교문화상품이 불교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작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불교문화를 상품화하여 이익을 내자는 경제의 논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필자를 감동시킨 장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4년 전 TV서 본 것으로 기억된다. 내용은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오로지 '지장보살상' 을 조성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고 어떤 사람은 칠을 하고, 다듬고, 운반하고, 판매하고 있었다. 지장보살상의 모양도 제각각이었고 크기도 아주 다양했다. 온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을 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일에 전념했다. 이 곳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버스로 연일 주차장이 가득했다. 이 마을의 불교문화상품은 '지장보살상' 뿐이었다. 열쇠고리 모양에서 저금통 모양의 지장보살상까지 다양한 색채와 크기로 만들어졌다.

깜짝 놀랄만한 것은 이 지장보살상에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우 특이한 모습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장보살상은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모양이었기 때문에 비록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 흉하지 않았다. 그럼 왜 눈이 하나밖에 없단 말인가?

이 마을에 지장보살을 모시러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름대로 원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으려 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했다. 모두 나름대로의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집으로 가져간 저금통 모양의 지장보살상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자신의 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린다. 저금통 모양의 보살상이 동전으로 가득 찰 쯤이면 그들의 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들은 소중하게 모시던 외눈박이 지장보살상에 나머지 한쪽 눈을 스스로 그려 넣는다고 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불교문화상품(?)이 아니겠는가? 원을 이룬 그들은 두 눈을 갖게 된 지장보살상을 부처님전이나 아니면 양로원, 고아원 등에 바친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다른 원을 이룰 지장보살상을 모셔가기 위해 다시 지장마을을 찾는다고 한다.

문화상품에 스토리가 빠지면 생명력이 없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문화가 상품이 되려면 역시 감동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상품도 마찬가지다. 불교적 정서와 기업적 마인드가 결합된 아이디어의 창출은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오늘 부처님 오셨으니…

부처님이 오시었다. 그분이 오신 뒤의 시간과 공간은 오시기 전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이 되었다. 무명의 어둠이 지배하던 시간과 공간은 사라졌다. 깨달음의 광명이 충만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들은 살게 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이 오신 의미를 기리며 그 환희를 온몸으로 표현한다. 그날이 바로 이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이 밝혀주신 진리의 빛 속에서 참다운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불퇴전의 정진으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을 걷겠다고 다진다. 그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불보살의 가피를 받는 세상에 살게 된 감사의 마음도 잊을 수 없다. 재앙과 고통의 세상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한 감사와 기쁨이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환희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나온다. 내가 바로 부처님을 닮은 참다운 생명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오신날을 장엄하는 감사와 기쁨이다. 이러한 마음을 절실하게 눈물나도록 느껴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불교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불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부처님께 의지하여 자신의 복락을 기구하고, 그 가피력으로 재액을 물리치려는 마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자이며, 바로 그 시간 거기에 부처님은 오신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펴는 그 속에 부처님 세상은 열려가고, 거기에 부처님은 거듭 거듭 오신다.

올해의 '부처님오신날', 2천만 불자들이 항상 품어오던 감사와 기쁨을 '함께' 그리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자. 그 감사와 기쁨을 타고 온 누리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전해지도록 하자. 아직도 우리 세계에 짙게 드리운 괴로움과 갈등의 어둠을, 모든 불자들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를 외치면서 손잡고 함께 거두어나가기를 다짐하자. 그렇게 부처님같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 우리는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높은" 존재이며, 모든 중생들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고 선언하는 그 날이 불국토의 완성이다. 그 날을 하루 빨리 이룩하려는 크나큰 서원에 모든 불자들이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이 되도록 하자.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신용불량

"가난하고 궁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사치를 즐기면 가정이 파괴되고 재앙을 부른다."
〈선생경〉

올 1/4분기 신규 개인파산 신청건수와 개인파산자수가 모두 전년 동기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현재 신용불량자수가 4백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최소한 돈 문제로 족쇄를 차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가 '신용불량 시대' 를 넘어서 본격적인 '가계파산 시대' 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가정경제 파산이 가정 파탄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카드 빚에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고, 온 가족이 빚 독촉에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등진다. 여기에 사회활동의 첫 발을 디딜 청년인구까지도 극심한 경기침체로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있다. '그간 쏨쏨이가 헤폈다' 고, 또 '네 문제니 알아서 하라' 는 사회적 비판은 이미 설득력이 없어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 신용불량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을 출범시켰다.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과 국가가 무절제한 소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부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천청문경>에 이런 말이 있다. '소욕(少欲)이 최상의 쾌락, 만족은 최상의 부귀다'. 아마도 작금의 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분수에 맞게 쓰라' 는 지극히 단순한 이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다가온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의 미덕이 아쉬운 현실이다.

■김철우(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에 대한 불신과 오해

불미전 공모안 오해 더이상 없길…



심원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우선 윤범모교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미전은 아마추어의 취미행사에 그쳐서도 안되고, 특정집단을 위한 은밀한 행사이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런 것' 으로 낙인을 찍혀서는 정말 안되겠지요. 창의성에 비중을 두고 시대정신이 담보된 당대의 불교미술을 위한 공모전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기고문의 제목이 '제20회 불미전 공고를 보고' 라고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 재구성해 보면, '불미전은 격년제로 열리며 불교미술의 맥을 계승하고 저변확대와 신인 등용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공모전이다. 출품작 중 현대미술(창작)분야는 제외한다.' 이런 공모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모안은 교수님의 공모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음이 저희 공모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역량있는 신인을 발굴 · 육성하고, 불교미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개최하오니,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방침- 가. 응모작품은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창의성이 풍부한 작품이어야 함. …'

저희 공모안에 '세계유일' 이란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촌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는 않겠지요? 응모자격 제한은 아예 폐지하여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였으니, '능력있는 현역작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 한 것도 아니고, 그럼으로써 '전시의 위상을 격하시키' 지도 않겠지요? 또한 작품응모부분에 전통이니 현대이니 하는 구분을 없앰으로써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작품 자체의 예술적 품격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의깊게 배려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공모안을 곁눈질로 보았더라도 미술평론가로서, 더구나 불미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을 역임하셨던 교수님같은 분이 어찌 그런 글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저의 소견으로는 평론가의 기본 자질은 정확한 판단력에 있고,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참된 애정과 올바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없는 비판은 난도질이고, 올바른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은 날조된 명예훼손입니다. 그나마 이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입을 상처는 어찌 보상합니까? 또 그렇게 잘못된 비판을 근거함으로 인하여, 혹은 그에 감염되어 연쇄적으로 파생될 수많은 불신과 오해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교수님의 문투가 고아한가 천박한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불미전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했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향과 주관적인 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모안을 꼼꼼이 정확하게 잘 읽어보시고 더 큰 애정을 갖고, 정말로 '제20회 불미전 공모안을 보고' 라는 글을 써 주십시오.

첨언하면, 제가 염려해 마지않던 '연쇄적으로 파생될 불신과 오해' 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연호님이 쓴 기고문의 경우, 일정 정도 저희와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마 저희 공모안보다 윤범모교수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제인 듯합니다. 불미전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20회 불미전' 의 공모안을 불신과 오해없이 살펴봐 주십시오.

끝으로 바라옵건대 불교의 사상과 정신이 살아 있으며 예술적 품격을 갖춘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불미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제37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개 요

1. 일 시 : 불기 2548년 6월 12일(토) 17:00 ~ 13일(일) 15:00
2. 장 소 : 속리산유스타운(충북 보은 소재)
3.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4.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 예상인원 : 500명
6. 연수참가비 :

구 분	미리접수	당일접수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해외거주자
초심자반	50,000원	60,000원	40,000원	무료
어린이와 함께하는 인형극	60,000원	70,000원	50,000원	
놀이속의 과학	60,000원	70,000원	50,000원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70,000원	80,000원	60,000원	
불교대학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50,000원	60,000원	40,000원	

※ 입금하신 참가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재료비 포함가격
※ 과목별 대상 인원만 받습니다.

7. 지 급 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휴대폰골드스티커)
8. 개인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옷
9. 접수방법 : 본 회 홈페이지 www.dongja.org 또는 전화 (051)864-4569, 457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 정 표

공통과정

〈특강〉 교재 · 교구에 부처님 마음을 담자
캠프율동 — 본회 교육국
찬불가와 율동 — 정 유 탁 풍경소리

초심자 과정

지도자가 꼭 알아야 할 부처님 말씀 — 운성 스님 본회 부회장, 대장사 주지
초심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 최 미 선 ♀해나라어린이집원장
여름불교학교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 이 수 안 본회 사무국장
부처님 말씀을 담은 교구 만들기 — 이 수 경 동국대 불교 아동학과 교수

심화 과정

어린이와 함께하는 인형극 — 박 서 영 동화구연강사
놀이속의 과학 — 조 오 근 장영실 고등학교 교사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 정 욱 부산대학교 심리생활 연구소 연구원
불교학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 이 성 훈 선재이벤트 실장
박 재 성 (사)부산어포레크리에이션 협회 사무국장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TEL.(051)864-4569, 4570 FAX.(051)864-4665

봉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법인설립 공고 축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고 해당법원에 법인등기 절차를 마쳤으므로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 : 2004-3(허가년월일 04. 4. 16)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社團法人 韓國佛敎曹洞禪林)
3.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52 원 효 사
4. 목 적 : 조동선문(曹洞禪門)의 선맥(禪脈)을 복원하고 불교사상 발전에 기여함.
5. 사 업 : 1) 조동선(曹洞禪)과 선학(禪學)의 연구개발
   2) 불교사상의 포교와 원리 연구
   3) 국내외 불교학술 교류사업
   4) 조동선학의 교서출판 및 정기간행물 발간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의 법통(法統)은 구산선문(九山禪門) 수미산광조사(須彌山廣照寺) 조동선문의 개조(開祖) 이엄진철(利嚴眞澈) 조사의 조정(祖庭)인 중국강서성 운거산(雲居山) 진여사(眞如寺) 조동적통(曹洞嫡統) 강서수창파(江西壽昌派) 조동종 제49대 해음등료(海音騰了)선사로부터 사법전등(嗣法傳燈)하고 창종을 선포한 한국조동종 총본산의 운영모체(運營母體)법인으로 일천여년간 단절되었던 선맥을 복원 하였다. 이로써 서천(西天:인도) 87대 동토(東土:중국) 60대 조동(曹洞) 50대의 혈맥(血脈)이 이어지고 정전법계(正傳法系)를 계승한다.

불기 2548年 5月 26日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 대표 금선 학봉(今禪 鶴峰) 합장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52 TEL 02)704-8065, 713-0475 / FAX 02)704-8064



慶 동탑산업훈장 수상 祝

2003년 주택건설의 날

Dreams are the same
같은 꿈을 꿉니다, 한화

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열어갑니다



한화

꿈에그린

DREAM & GREEN

당신이 꿈꿔왔던 아파트-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생활의 아름다운 여유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소중한 보금자리, 한화 꿈에그린 - 한화건설은 인간중심, 가족중심, 자연중심, 미래중심의 아파트 설계철학을 통해 단지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이 되는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듭니다.

Feeling 느낌이 좋은 아파트, 꿈에그린

한화 꿈에그린은 단지 외관설계에서부터 단지설계 그리고 조경설계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을 위한 차별화 설계를 통해 오감으로 느끼는 아파트 문화를 실현합니다.

Sense 실속이 넘치는 아파트, 꿈에그린

유행을 따라다니는 아파트가 아닌 최신 유행을 만드는 아파트, 한화 꿈에그린 - 고품격 인테리어와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실속공간으로 생활의 여유를 드립니다.

Digital 미래가 보이는 아파트, 꿈에그린

최단 디지털 기술이 생활 속으로, 입주민의 상상을 뛰어넘는 한화 꿈에그린만의 앞선 디지털 기술력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미래 생활을 가장 먼저 펼쳐드립니다.

• 한경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 히트상품 (매일경제신문 외 7개 언론사 선정)
• 광고대상 (한국일보 외 9개 언론사 선정) • 소비자 만족대상 (대한매일)
• TOP 브랜드 대상 (대한매일 외 17개 언론사) • 마케팅 대상(서울경제)

문의: (080) 729-2400

한화건설 www.dream-green.com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부처님오신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서원

당신,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나를 위해 거기에 계시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거기 당신이 계시기에
나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나는 달려가고
당신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 나눌 수 있으니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저 옛날,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공경의 예를 갖추었듯이
그래서 무량의 공덕을 쌓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공경하고 무엇이든 나누고 싶습니다.
내 작은 나눔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
그 공덕의 그늘이 세상을 덮고 삼라만상에 깃들 때까지
당신께 달려가고 무엇이든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거기 계시는 당신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당신이 있어
당신의 자성에 비추어 나이고
나의 본래 자리를 돌이켜 당신이기에
고통과 희망도 본래 하나이던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있는 거기에 나는 항상 있으니
내가 있는 여기에도 항상 당신은 계십니다.
눈길만 주어도 마음으로 합일하고
손짓만 하여도 두 길일 수 없으니
지금 여기서 나는 당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내게 오시는 날
내가 당신에게 달려가는 날
나와 하나인 당신의 손잡고 흥겨운 날
당신인 나의 두 손에 연등 환하게 밝혀 든 날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 세상 인연 다하도록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당신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다함이 없이 나누겠습니다.

– 임연태 기자 –

서울 아산 중앙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불자 김양순씨가 종이 연꽃과 연등을 들고 환자 이춘봉씨를 찾아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4>



종교적 신념과 깨달음

신라시대 승가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지도층은 참으로 중중존(衆中尊)이었습니다. 몇몇 종파가 형성되었지만 선지식은 조사로 추앙받을 뿐, 오늘날처럼 다투어 추종하는 무리를 짓거나 종정의 자리에 올라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승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깨달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주장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깨달아야 할 법에 대하여 사성제, 팔정도, 연기, 공, 무아 , 불성 등을 말한 것입니다.

원효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뜻이 같을지라도 말이 다르면 범부는 헛갈려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원효는 믿음과 깨달음의 대상을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를 높이 세워야 모든 주장을 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만약 뜻(意)을 얻지 못하고 말을 따라서 글 뜻(義)을 취하면 유변(有邊)이거나 무변(無邊)이거나 모두 허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변이 아닌 문에 의지한다면 무변의 뜻(義)을 거짓으로 설할 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록 저 국토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변두리 땅(邊地)에 있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지혜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능히 스스로 겸손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부처님을 우러러 생각하며 한결같이 엎드려 믿으면(仰惟如來 一向伏信), 이와 같은 등의 사람은 그 행과 품계에 따라 저 국토에 왕생하고 변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변지에 태어나는 사람은 특별한 한 부류로서 구품에 섭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응당 망령되게 의혹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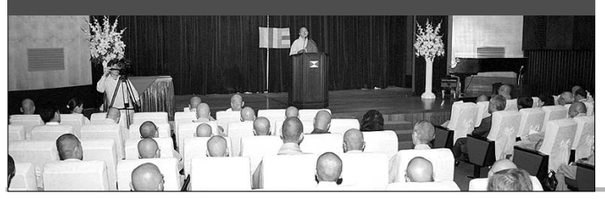
원효는 믿음에 대하여 앙신(仰信), 곧 '우러러 믿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우러러 생각하며 한결같이 엎드려 믿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써 부처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고 깨달음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대하여 실체가 있다 혹은 없다 헤아리지 말고 '일체 경계는 일심(一心)인 지혜'를 우러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심은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성취해야 할 법입니다. 여래의 본원력에 힘입는 칭명이나, 자력의 관행(觀行)이나, 혹은 정각이라 말하든지, 견성이라 말하든지 모두가 종교적 신념을 일으키고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야만 진정한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효의 종교적 신념이요, 불교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우러러 믿으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문 열려

<관무량수경> 제8 상관(像觀)에서 '시심작불 시심시불(是心作佛 是心是佛)'이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자성 청정심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번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신심입니다. 신심이 불성이요, 믿음이 부처입니다. 이와 같이 알고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으면 자연히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심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는 것이 깨달음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때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cafe.daum.net/amitapa)

'청정도론' 완역 기념 각묵 스님 특강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 주요내용



"<대념처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체이다. 해체하지 못하면 본래청정, 본무생사, 대아, 진아, 여래장, 불성, 마음이라는 무슨 실체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된다. 해체해서 볼 때 괴로움의 근본원인인 무명과 갈애가 소멸된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5월 18일 한국일보 송현클럽 대강당에서 <청정도론> 완역을 기념,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을 주제로 특강했다. 각묵 스님은 "비판이 없는 한, 한 집단이나 교학체계 또는 수행법은 썩기 마련"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의 수행 열기와 관련, 수행자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묵 스님은 특강을 통해 △수행 과정이나 방법을 도외시한 '돈오(頓悟)' 지상주의 △깨달음의 당체(대아, 진아, 본성, 자성, 주인공, 여래장, 불성 등)를 건립하여 집착하기 △깨달음에 대한 지나친 갈애 △본래부처, 본무생사, 본자청정에 안주하는 무사선(無事禪) △좌선 지상주의 등을 경계했다. 각묵 스님은 이와 같은 일부의 치우친 수행현상을 '돈오 한방의 로또 광풍과 깨달음에 대한 갈애에 기인한 가상임신'에 비유하며, 사성제와 팔정도, 계정혜 삼학을 기초로 한 '바른 마음챙김(正念)' 수행을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했다.

수행과정 뺀 '돈오지상주의' 경계하라

과정 도외시한 돈오 지상주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문제는 과정이나 방법은 알려들지도 않고 오직 깨달으면 그뿐이라는 단편적인 사고에 빠져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돈오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자무식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기 쉽다. 마치 '즉심시불'을 '집신세벌'로 잘못 알아듣고 수행해서 깨달았다는 사람처럼.

깨달음 당체 세우고 착각에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의 당체를 건립하여 그것을 굳게 움켜쥐고 있다. 대아, 진아, 본성, 자성, 주인공, 심지어 여래장이나 불성을 세워 그것과 하나 되는 것으로 수행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착각이라 부른다. 초기불교에서는 '나'와 '내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자아가 무명과 갈애의 근본이기에 해체를 강조한다. 무엇이든 깨달음의 당체를 세우는 한 외도적, 힌두교적 발상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깨닫겠다는 집착마저 놓아야

깨달음은 갈애를 버릴 때 실현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갈애를 키우고 있다. 수행자가 특수한 체험을 하고 이를 깨달음으로 착각해서 여기에 안주한다면 애기를 놓고 싶어서 '가상임신'한 여성과 다름없다. 진정한 출가자는 그 어떤 집착도 놓고 어떠한 당체도 움켜쥐거나 세우지 않는다.



애정어린 비판의 시각으로 일부의 잘못된 수행풍토를 지적하는 각묵 스님.

'무사선(無事禪)'에 안주해 있어

돈오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일부 수행자는 어떤 닦음도 불필요하다는 무사선(無事禪)에 빠져있다. 본래부처요, 본무생사요 본자청정이요 본무번뇌이기에 아무것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무명 속에서 탐진치에 휘둘리는 중생의 실상을 무시하고 '지혜는 자성에 본래 갖춰져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과 다름없다. 사성제를 철견하여 부처가 되려면 교학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좌선은 만능이 아니다

간화선은 망상 속에서 좌선만 하는 수행을 '흑산귀굴에 앉아 있다'고 배격하고 일상선을 주창했다. 그러나 지금의 간화선은 오히려 앉는데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깨달음과 적정처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성제와 팔정도, 삼학을 바탕으로 매순간 일상 속에서 모든 현상을 무상, 고, 무아로 꿰뚫어봐야 한다.

수행의 핵심은 8정도의 '정념'

8정도 가운데서 본격적인 수행법과 관련된 것은 정념(sammaasati, 바른 마음챙김)이다. <대념처경>은 몸(身) 느낌(受) 마음(心) 심리현상들(法)에 마음챙기는 공부를 설한다. <대념처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체'이다. 해체하지 못하면 본래청정, 본무생사, 대아, 진아, 여래장, 불성, 마음이라는 무슨 실체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된다. 해체해서 볼 때 괴로움의 근본원인인 무명과 갈애가 소멸된다. 해체해서 보기 위해서는 단속하고 집중하고 통찰하는 훈련을 해야한다.

해체해서 보는 게 위빠사나

오온의 가합을 나라고 취착하는 한 인생은 고이다. 해체해서(vi-) 보는 것(passanaa)이 바로 위빠사나(통찰, 관찰)이며 반야이다. 뭉치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우리가 이름 짓고 개념지어 대상을 파악하고 아는 한 그것은 나를 속박한다. 해체의 출발은 마음챙김이요 챙김을 통해서 문단속을 하고 삼매와 통찰지를 구족하게 된다. <청정도론>은 이러한 계(육근의 단속), 정(사마디, 집중), 혜(법을 통찰) 삼학을 설하고 있으며 해체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각묵 스님의 열강을 경청하는 불자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공생선원 6월2일 하안거 입제

서울 공생선원(선원장 무각)에서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하안거 정진에 들어간다. 하안거 입제식은 6월 2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정진시간은 아침 6~8시, 오전 10시30분~12시0분, 오후 7시30분~9시30분으로 각각 진행된다. 가족 참선법회로 잘 알려진 공생선원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금강경 강의, 매주 금요일(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참선반도 개설하고 있다. (02)900-2448

보리수선원 실라난다 스님 초청특강

서울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타)은 6월 14~28일 아비담마(논장) 학계의 최고 원로인 우 실라난다(U Silananda) 스님을 초청, '아비담마 특강 및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담마난다 위하라(Dhammananda Vihara)에 주석하는 우 실라난다 스님은 미국 테라바다불교협회, 버클리법륜명상센터, 산호세여래명상센터의 지도자다. 미얀마의 <삼장 팔리-미얀마어 사전>의 편집장을 역임한 고승이다. (02)517-2871

부산 반냐라마 위빠사나 수련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7차에 걸쳐 4박5일씩의 위빠사나 수련회를 개최한다. △6월26일~7월 2일(대학생) △7월 7일~7월11일(일반인) △7월14일~7월18일(일반인) △7월21일~7월25일(일반인) △7월26일~7월30일(교사) △7월30일~8월 3일(초중고생) △8월 4일~8월 8일(일반인). (055)331-2841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부처님 오신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지장경을 읽읍시다

오는 6월 2일(음력 4월 15일) 수요일
하안거 결제일을 맞이하여 우리절에서는
[지장경독송회]를 결성하고 그 첫 기도를 봉행합니다.
목요대비주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봉행하며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 전체를 독송합니다. 물론 참석하신
분들은 부처님전에 낱낱이 축원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하신 불자님들께는 동봉스님이 번역하고
편집한 <<일원곡>> 제10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원곡⑨
지 장 경
짓고쓴이 : 고불고조
옮겨쓴이 : 지암일원
요모조모 : 동봉정휴

! 우리절에 오시면 무료로 보시해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나와 불교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불자들이 설렙니다. 길가에 내걸린 연등 물결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불자들이 불교와의 인연담을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불교는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자기 변화의 과정을 경험했는지 들어볼까요. 부처님오신날에 되돌아보는 불자들의 불교 인연. 그 이야기보따리를 풀어헤칩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부처님과 함께 행복

이평래(충남대 철학과 교수 · 한국불교학회장)



일제 말에 태어나서 8 · 15 해방, 6 · 25 전쟁 그리고 4 · 19 혁명을 체험한 세대인 나로서는 실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전쟁 속에서 성장한 나에게는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성난 파도와 같은 격정의 세월로 얼룩져 있는 것 같다.

무척이나 빈곤 국가이던 처지에 전쟁까지 겹쳐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나 뿐 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았다.

전쟁이란 그 속성이 잔인할 수밖에 없다. 이기면 흥하고 지면 망하는 흥망성쇠가 촌각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무기가 덜 발달될수록 사람의 목숨을 더 많이 빼앗아 가는 것 같다. 무기가 후진적일수록 사람이 대신 더 싸워야 하는 까닭이다. 어쨌든 전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뿐 아니라, 가족과 헤어지게 하며,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산하를 황폐하게 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인간의 심성을 메마르게 하므로 싫다.

실로 전쟁은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그렇게 험난하고 거친 풍상을 겪으면서도 내가 불안 · 공포 · 좌절 · 실망 · 고독 · 분노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견디어 온 것은 오로지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님의 손을 잡고 절에 다녔기 때문에 일찍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부처님에 '미치고' 부처님 가르침에 '미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전하는 데에 '미쳐서' 거의 한 평생을 보낸 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광물이 모두 땅 속에 묻혀 있지만, 광맥을 찾지 못하면 캐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생도 따져보면 광맥을 찾는 것과 같다. 삶이란 실로 암중모색이다. 그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고꾸라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숱한 애환(哀歡)이 내 속에 모두 자리잡고 있다.

그래도 오로지 외길,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고단함 속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다. 왕위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둥게스와리(인도, 가야 : 전정각산)에서 고행하신 부처님의 고행상을 생각한다면 견디어내지 못할 일도 없으리라.

나무 시아본사 샤끼야무니불!

공연이 있을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빈다

손재현(동국대 체육교육과 무용전공 교수)



내가 부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어렴풋한 기억으로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법당에 발을 들였던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데려갔다고 생각했던 부처님을 미워하면서도 나와 부처님의 인연은 그렇게 깊어져 가고 있었다.

부처님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피나는 노력과 연습 끝에 대학무용과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작고하신 나의 은사 조승미 교수님께서는 선교무용에 한참 열성을 쏟고 계셨다. 불교신자로서 선교무용을 한다는 자괴감에 빠져있을 즈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란다. 너의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단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교수님을 도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하거라."

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교수님을 도와 더욱 열심히 공연을 했다. 이때부터 조금씩 나도 불교무용을 하며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공헌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마도 지금의 내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불교무용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다.

1999년 무용단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해외 공연을 갔다. 종교도 다른 나라, 그것도 2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이스라엘의 야외무대에서 한국 불교무용을 선보일 때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단원들의 긴장을 풀어 주려고 애썼지만 후들거리는 다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무대 뒤 의자에 주저앉아 부처님을 찾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외할머니가 나타나 내게 손을 내미셨다. 그 까칠하면서도 따스한 손을. 눈물이 쏟아졌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긴다. 보살행을 많이 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빚을 갚아 가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주신 것에 감사

정상옥(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나는 항상 부처님께 감사한다. 일찍 부처님을 알게 되어 불교청년활동을 하며 불법 홍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

성격 급한 나를 유순하게 만들어준 부처님의 가르침도 감사하다. 화가 날 때나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나는 부처님을 생각한다. 세간의 일체를 버린 위대한 출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얼굴엔 미소가, 가슴엔 의지가 절로 솟는다.

불문에 발을 들여놓은 지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부처님같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즐거웠던 일만 생각하면서, 주변의 후배들에게도 재미있고 즐겁게 부처님을 믿고 따르자고 독려한다.

나도 한때 사업이 어려운 적이 있었다. 그 때는 부처님을 원망도 해보았다. 갈등과 불면을 술로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좋은 도반들이 있었다. 그들의 위로를 받으며 매일 조계사 법당에서 108배 참회와 기도를 하며 마음을 추스렸다.

결정적 어려움을 거래처에서 양보하여 파산은 면했다. 부처님의 가피였다. 오랜 기간 빚을 정리해 가면서도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감사했다.

청년회 임원을 한지도 20여년이 넘었다. 지금 나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자리까지 하고 있다. 대불청 중앙회장을 하면서 갖게 된 고민은 청년회원의 감소와 노령화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포교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때마침 뜻을 같이하는 본회 채수범 중앙이사가 청년지도자 양성 교육에 선뜻 3000만원을 출연했다. 감사한 일이다. 게다가 학업에 바쁜 전준호 정책기획실장이 지도자 교육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요즈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집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 청년회에서는 도반들에게. 끝으로 부처님께 감사한다.

'자유의지'로 내 삶을 영위한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김종관(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총무)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본주의 종교요 나를 중심으로 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처음 뵌 것은 다섯 살 남짓. 이후 유년기 내내 동네 사찰은 아예 나의 집이었다.

불교는 행복 그 자체였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1993년 어느 날 조계사청년회에 입문한 것이 본격적인 신행활동의 시작이었다. 그 해 부처님 오신날 하루 전, 조계사 대웅전 철야법회에서 무진장 스님의 법문은 나를 불제자로 태어나게 했다. "불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행복해짐을 믿으라"는 법문을 듣고 불교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됐다. 단순히 삼배만 하던 나를 반성하고, 불교를 제대로 알기로 다짐했다. 법우들과 회보를 만들고, 도반들과 교리 공부를 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답을 찾게 된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의 책임도 내가 지게 된다. 불교는 이런 과정에서 언제나 인생의 지침이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적용되는 만고의 진리인 인과론은 자신을 반추하는 길라잡이였다. 노래에도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창조신이 있어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달리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 내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교리공부를 통해 법우들과의 우정도 쌓았지만, 위대한 우주적 존재인 '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나에게 큰 행운이다.

인간의 생명은 한 호흡에 있다. '선'과 관련한 책을 보다가 '인간의 생명은 한 호흡에 있다'란 부처님의 말씀에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수선회에서 현담스님의 지도로 참선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참선 수행을 시작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고 수선회 시민선방에서 안거를 지냈지만 아직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불교를 만났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원효의 무애사상은 어린 내게 큰 충격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만난 것은 40년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원효 대사 일대기를 읽으면서였다.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라고 외치신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내 마음을 오래 잡았던 것은 무애와 회통의 통쾌한 장면 하나였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깊은 산속에서 귀신과 도깨비가 나타나 희롱할 때 원효 스님은 신통을 부려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거나 죽이지 않고 그들 방식대로 낄낄거리며 춤을 추면서 함께 한마당을 벌이는 게 아닌가.

그 광경은 어린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20세기 중반 이념적 갈등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서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시절 우리나라는 서로를 불신하고 선악으로 구분하여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심한 흑백논리가 팽배할 때였는지라 '악한 무리들과 함께 논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효의 무애사상과 회통의 원리는 내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고, 불교로 자연스레 빨려들게 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나를, 우리를, 세계를 돌아보게 하는 웅변으로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공생의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아무려면 귀신이나 도깨비보다 더 흉악할까.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악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는 패거리 정치가 판을 치고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세계평화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음을 새삼 절실히 느낀다.

부처님은 내 인생을 늘 최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하루하루 내 생활과 세상만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만큼 더 큰 기쁨도, 더 깊은 가피도 없다. 또 그렇게 위없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불교가 시대흐름의 중심에 서서 이 사회를 보듬고 이끌어가는 종교로 우뚝 서는 게 내 소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인연 따라 삶을 아름답게 회향하고 불교가 한 걸음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더 없는 행복을 느낀다.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삼론종
부 석 사
(종정예하 주석사찰)
방장 석봉
신도일동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289
TEL 033)333-7682

대한불교삼론종
안 덕 사
(종회의장 주석사찰)
주지 대안
신도일동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포교2리 506
TEL 031)636-2858

대한불교삼론종
혜 림 사
(총무원장 주석사찰)
주지 혜광
신도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44호
TEL 02)379-7196

대한불교조계종
능 인 선 원
주지 지광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대한불교조계종 등룡사
대한불교조계종 용장사
신도일동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02)577-5800 / FAX 02)577-0052

대한불교 조계종
강화 전등사
회주 장윤
주지 계성
사부대중일동
www.jeondeunsa.org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TEL 032)937-0125 / FAX 032)937-5450

우 주 정 사
주지 법현
기적의손 부처님의 기를 전달하여
디스크환자 팔 다리 마비환자
신경통 관절염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손을 가진 스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8-2
TEL 031)251-2871 / 252-1766

한국불교 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연
신도일동
법회(음) 1, 18일
■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18-4
TEL 02)701-7488, 703-5575

대한불교 조계종
노 적 사
주지 박종후
신도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북한산성 내)
TEL 02)353-5016, 4924
FAX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현 불 사
주지 법우
(사)우리전통문화예술진흥회
신도일동
■ 대전 동구 구도동 150-11
TEL 042)271-3395

정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 서울 노원구 월계 4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광
학장 묘순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5
TEL 02)923-0582, 922-9652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교구
서 원 사
주지 자하(한산)
사부대중일동
천도재 49재 전문 봉행사찰
■ 경남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207-1번지
TEL 055)291-6405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만 의 사**
주지 성직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140
TEL 031)376-6005 / FAX 031)377-1717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해
대중일동
약사여래영험기도 및 방생 도량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TEL 033)682-1933 / FAX 033)682-1707

동 방 암
주지 법련 혜일
사부대중일동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4-1
TEL 031)293-5264

대한불교조계종
금수산 무암사
주지 황도
신도일동
법회 1, 18일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 1
TEL 043)652-0897

무 량 사
회주 민성하
주지 효선
사부대중일동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28번지
TEL 043)851-4879

대한불교조계종
마 하 사
주지 지현
사부대중일동
■ 부산 연제구 연산7동 2039번지
TEL 051)852-2436 / FAX 051)861-4016

한국불교태고종
원 광 사
주지 화경
http://www.sky33.org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262번지
TEL 031)353-2877

대한불교조계종
자 비 사
주지 운봉
포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 경기 포천시 군내면 직두1리 477-1
TEL 031)535-0493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
자 비 정 사
■ 강릉시 포남동 1156번지
TEL 033)642-3555

전통불교(傳統佛敎)조계종
부산직사 총무원장 주석사찰
지 장 암
무경 감조
대중일동
■ www.haesuwon.net
TEL 051)757-3334

세계최대 단일석상 열반와불 봉안 성전
성광미륵사
주지 성광
신도일동
■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전3리 13-1
TEL 031)544-4800

공생선원
주지 무각(無覺)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TEL 02)900-2448

대한불교조계종
도봉산 광륜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도봉구 도봉 1동 401
TEL 02)956-5555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황금선원 수국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41번지
TEL 02)356-2001. 359-6297
FAX 02)356-2002

대한불교조계종
종현산 호국 범음사
주 지 호택
신도회장 염완균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106-34
TEL 031)832-0912

대한불교조계종
청록사 한성포교원
주지 법농
불교신행대학
1째 일요일 정기법회
3째 일요일 월운 큰스님 경전법회
매달 그믐부터 초이틀 다라니기도
■ 서울 중랑구 면목 8동 11-9
TEL 02)2207-8296

대한불교선교종
혜 원 사
주지 해원
■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160-21
TEL 031)336-3734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 륵 종

종 정 운허 연화

중앙원로원장	윤정업	총무원장	윤송정
중앙감사원장	김영각	사무총장	이보성
중앙종회의장	강연봉	교무부장	이혜경
중앙종회부의장	조월상	규정부장	박혜종
비구니회장	정동성	재무부장	권묘각
비구니회부회장	김행인	포교부장	이해산
비구니회 총무	조법화	교육부장	전법일
	김청화	사회부장	강영운

중앙교구종무원장	박영탄	경남동부교구분원장	지도심
영남교구종무원장	권마하	경남서부교구분원장	김행인
경기강원종무원장	윤천명	경북교구분원장	최혜연

총무원 :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1-11 / 전화 02)351-3679 www.mireuk.org
부산연락사무소 : 부산 동구 초량동 1203-14 남아빌딩 201호 전화 051)466-3977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법 우 회

고 문 윤송정

회 장 이보성

등반대장 이해산

회원일동

경남 진해시 충무동 25-11
TEL 055)547-3469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비 구 니 회

회 장 정동성

부회장 김행인

총 무 김청화
(서울. 경기. 중부지역)

총 무 조법화
(영남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
TEL 051)531-0478

(사)한국불교미륵종 종정예하 주석사찰

대 인 사

진신사리
보궁도량

조 실 운허 연화

주 지 송 정

신도회장 이금용
(보광)

신도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58
TEL 055)375-2076~7

(사)한국불교미륵종 재무부장 주석사찰

도 명 암

주 지 권묘각

신도일동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11
TEL 02)351-3679

(사)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관 음 정 사

주 지 윤송정

신도일동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
TEL 055)345-4741

(사)한국불교 미륵종 감사원장 주석사찰

용 연 사

주 지 김영각

신도일동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3-15
TEL 055)337-0408 / FAX 055)338-4408

(사)한국불교 미륵종 사무총장 주석사찰

약 사 암

주 지 이보성

신도일동

■ 경남 진해시 충무동 25-11
TEL 055)547-3469

(사)한국불교 미륵종 교무부장 주석사찰

금 강 사

주 지 혜경

신도회장 김보광 총무 김공덕화, 황흥운
약사회장 김보문심 총무 강향곡
지장회장 이관음심 총무 이성덕화
관음회총무 이무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976
TEL 051)293-0137 / 080-2002-108

청주·청원 사암연합회

고 문
종산, 이두, 보안,
원봉, 범추, 화산

회 장 설곡

부회장
일봉, 광해, 각의, 혜근

총 무 자 행

사무국장 연복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45 희성빌딩 4층
TEL 043)294-0107
FAX 043)296-8254

(재)선학원 충북교구본사

풍 주 선 원

선원장 범추

원 주 덕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번지
TEL 043)256-5585
FAX 043)221-4760

대한불교 조계종

보 문 정 사

주 지 묘정

보문유치원장 덕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6-1번지
TEL 043)231-1718(보문정사)
043)234-5858 (유치원)

왕 암 사

주 지 자성

■ 충북 청원군 남일면 문주1구 425-1
TEL 043)298-6584

용 화 사

주 지 강청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2리 산 1번지
TEL 043)877-6515

약 사 암

원 주 강청정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4-11번지 (2층)
TEL 043)222-0155

제일화재 보험 밀양영업소

팀 장 전성자

■ TEL 055)353-0290
H·P 011-846-2294

대한불교조계종 · 고양시 사암연합회회장

덕 양 사

주 지 도명

사부대중일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61-6
TEL 031)972-8067

양평 불교사암연합회

양평 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1구 238-1
TEL 031)771-4106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김진실행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전화 051) 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관음어린이집
회 주 불국정관
주 지 범 산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 754-2210 유치원 754-6120
어린이집 755-2888 수련관 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운암(석현엽)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
전화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739
전화 052)295-7655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주 지 송구산
총 무 변혜선
신도회장 홍일랑
신도일동
부산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전화 051)467-3316

황령선원 홍 제 사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 3동 산51-2
전화 051)802-0130

밀양 천황산
얼음골 천 황 사
- 보물제 1213호 석불좌상 -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전화 055) 356- 2540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주 지 김정각
부 주 지 김묵담
법 사 고지정
불교자비원이사장 김성길
새샘복지재단이사장 정하용
노인대학학장 김연순
바라밀합창단단장 이정희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장 김경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23-194
전화 051)404-4300, 403-4848
팩스 : 403-4860 E-mail:jbwooo@cholian.net

대한불교조계종
비슬산 동명불원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남구 용당동570번지
전화 051)624-7667/626-4337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산 내 원 암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울산남구노인복지관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12
전화 052)238-5088 / 052)239-0388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2 전화 051)294-9300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정한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사하두송자활후견기관
전화 051)265-9471 www.dusong.or.kr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홍말연, 조정숙
총 무 류경자, 하영조
재 무 김지언,박정연
감 사 이경월,이소연
교 화 김혜순,이복선,박갑연
운 영 임정숙,김경자, 서화영
봉 사 박영옥,김경희,김현숙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및 각 지구회장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2-4166, 팩스 051)867-8048

반냐라마 근본불교학교
근본도량 신어산 다보선원
서울 지혜선원
대구 지혜선원
최고지도법사 빅쿠 붇다하빠-라
대표법우 혜일법우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전화 055)331-2841
서울 02)597-2841
대구 053)475-2841
홈페이지 www.bodh.net

부산 불교신도회
부설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명예회장 하도명화, 정금강행
회 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김창석
부 회 장 이근철, 박수관, 이영숙, 황진옥, 배태순, 김성림
감 사 서병흔, 최익두 , 이대원성
사무총장 이종판
기획실장 김수현
이사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3-2021 / 팩스 051)853-2036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 토 사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주 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남구 옥동 803-5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불교교육대학
학 장 강선태
교직원 일동
부산시 진구 양정2동 157-1 불교회관 5층
전화 051)867-9944 / 팩스 051)853-2036
www.psbuddhism.org

불교전문편집회사
대 한 기 획
051)866-7818, 팩스 864-7075
daehana@korea.com
도서출판 부다가야
전화 051)865-4383
www.buddhagaya.co.kr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 하는
釜山佛敎實業人會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상임부회장 하문원
부 회 장 김종태,박영근,박수관,배영호, 이근철,이상태,이달수,조길제
감 사 임정웅,지호경
회원, 마야 부인회 일 동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회관 3층
전화 051)818-9914(代) / 팩스 051)818-9916

통도사 부산포교원
대광불교대학
주지 상진
신도회운영위원장, 부회장, 상조회, 총무부, 재무부, 교무부, 문화원, 홍보부, 호법부, 섭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90-34
전화 051)816-2241 / 팩스 051)806-2430

재 단 법 인
보 현 장 학 회
이 사 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정현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여현 정만
사무국장 이욱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전화 051)403-7096 / 팩스 051)403-9801

지장불교근본도량 사회복지법인
공 덕 원
주 지 효 선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전화 051)625-2253
팩스 051)623-3946

사 단 법 인
법 연 원
회 주 조 연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588-6
총 본 산:054-748-6577
서울본원:02-2651-8853
부산본원:051-868-7733
홈페이지:www.byw.co.kr

강 서 예 술 촌
설립자 청 원
촌 장 강세우
회원, 직원일동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5979-5
전화 051)972-3912
팩스 051)971-3384

백옥부처님천불기도도량
소원을이루는 우리절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8번지
전화 051)973-5224
팩스 051)973-3076

도서출판/불교용품 무량수
불교전문기획출판 보안기획
대 표 주영배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151-3
(거상B/D4층)
전화 051)248-0011,255-5675
팩스 051)255-5676,
0303-4242-0048
www.buddha21.co.kr

대한불교총화종
망 월 사
주 지 혜 성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남구 우암2동 127-139(14/2)
(우암동 장고개 동사무소 위)
전 화 051)636-0975
휴대폰 011)586-0975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총 재 법 장
회 장 조홍인
수석부회장 조홍인
각지역회장단일동
부산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전화 051)627-1869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지부회장 류상영
수석부회장 하재호
외무부회장 박상언
내무부회장 오세희
사무차장 박경수
부산시 동구 초량1동 974 소림불교회관1층
전화 051)467-5241

대한불교조계종
금련산 세 존 사
대불법회
주 지 장 산
대불법회 명예회장 이자성심
회 장 황선제월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1149-1
전화 051)752-7788,756-3301

대한불교선화종
대 원 사
조 실 의 천
주 지 법 광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 152번지
전화 063)288-2752


아미노-밸류
Amino-Value
동아오츠카
활 · 력 · 체 · 감
아름다운 몸,
활동적인 생활을 위한
새로운 아미노산 함유 음료- 아미노 밸류!
필수 아미노산 BCAA 함유 음료, 아미노 밸류 탄생
격렬한 운동이나 일상 활동으로 우리 몸이 지쳤을 때는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미노 밸류에는 지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필수 아미노산 BCAA가 함유되어 있어 언제나 활기차고
균형있는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아미노 밸류는
BCAA(Branched Chain Amino Acid:분지쇠사슬 아미노산 - 발린, 로이신, 이소로이신)가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 함유 음료입니다.
BCAA : 2000mg
MAKE YOUR BODY NEW
Amino -Value
아미노-밸류
아미노산 함유
BCAA : 960mg
Valine:240mg
Leucine:480mg
Isoleucine:240mg
Arginine:240mg
MAKE YOUR BODY NEW
Amino -Value
아미노-밸류



남도에서 햇차 수확이 한창인 요즘, 서점가에도 차 향기 가득 담긴 책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5월 25일 차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차 문화의 명맥을 이어온 차인을 기리는 책 3권을 소개한다.

茶를 아낀 옛사람들 한잔에 담긴 멋…풍류…인생…



초의선사
곽의진 지음 | 동아일보사 | 9천8백원
역사 속의 우리 다인
천병식 지음 | 이른아침 | 1만5천원
다불
정찬주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8천5백원

우리 차문화 명맥 이어온 차인들의 이야기 잇따라 나와

소설가 정찬주 씨가 쓴 **<다불>**은 신라 왕자로 태어나 중국 구화산(九華山)에서 정진하고,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金喬覺, 696~794) 스님의 일생을 소설로 옮긴 것이다.

등신불(等身佛)로 잘 알려져 있는 김교각 스님은 특히 차(茶)를 사랑해 신라에서 금지차(金地茶)씨를 갖고 중국으로 건너가 차를 퍼뜨리며 차로 정진, 선다일여(禪茶一如)로 부처가 된 '다불(茶佛)'로도 유명하다. 김교각 스님은 세납 99살, 구화산에 들어온 지 75년 만에 법상 위에서 입적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법체가 썩지 않자 문도들이 탑을 세워 그곳에 육신불로 안장했고 그 탑의 이름을 육신보전이라 했다.

소설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차 연구가인 임 박사가 대원사 주지 고현 스님과 함께 중국 구화산으로 김교각 스님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임 박사는 스님의 행적을 뒤쫓으며 우리 차가 김교각 스님에 의해 중국에 전래돼 그곳의 명차가 된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스님의 본명으로 알려진 '교각'은 중국에서 '대각(大覺)'을 뜻하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므로 '지장 스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진리를 찾고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스님의 생애와 치열한 열정을 그리고 있다.

<역사속의 우리 다인>은 지난해 타계한 故 천병식 교수가 신라시대의 명문장가 고운 최치원을 비롯해 우리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선사, 현대 차문화 이론을 정립시킨 효당 최범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인 20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차학회 회장을 역임한 천 교수는 차와 관련된 역사인물들의 멋과 풍류가 어우러진 차생활을 정갈한 필치로 전한다.

책에 담긴 차인들의 생애를 읽다보면 우리 민족의 차생활 흐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사원을 중심으로 차문화가 발달하여, 다법(茶法)도 정립되었고 차를 마시며 멋과 풍류를 즐기는 다인들도 많아졌다. 청평거사라 불렸던 고려시대의 문인 이자현(1061~1125)은 임금에게 차와 탕관을 하사받았고, 유불도의 삼교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삼교일리(三敎一理)'를 주장했던 문인 원천석(1330~?)은 고향의 치악산에 은거하며 차와 더불어 생활했다. 고려 말 고승 나옹 혜근선사(1320~1376)는 도(道)를 묻는 수행자에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숭유억불(崇儒抑佛)을 내세운 조선이 들어서면서 차문화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찰이나 사대부 집안에서는 차문화가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율곡 이이와 사계 김장생 등은 제례에 차를 올리도록 권장했으며, 한재 이목(1471~1498)은 <다부(茶賦)>를 지어 남기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리의 차문화는 중흥기를 맞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가 있었다. 그들이 사상과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자리에는 항상 차가 있었고, 직접 차를 만들어 주고받기도 했다. 차를 통해 교유하고, 그들의 교유를 통해 우리의 차문화는 더욱 깊어진 것이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차문화는 암흑기를 맞는다. 커피와 일본식 차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차문화는 그 존재 자체가 잊혀져 가는 듯 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효당 최범술과 의재 허백련을 중심으로 다시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차문화는 1970년대 '우리것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차문화의 중흥조라 불리는 초의선사



초의선사 영정.

(草衣禪師, 1786~1866)의 생애와 사상은 소설가 곽의진 씨가 지은 평전 **<초의선사>**에서 더욱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지은이는 초의 선사의 행적을 따라 진도와 강진, 해남 등 전국 각지를 답사하며 조선후기의 선승으로 차(茶)문화를 널리 보급한 초의 선사의 생애를 펼쳐 보인다. 스님의 출가에서부터 대흥사에 머물며 '초의'란 법명을 받게 된 사연,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와의 교유 등을 그리고 있다. 또한 초의 선사가 남긴 시와 그림을 통해 스님의 사상을 되새겨 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초의 선사가 주석했던 대흥사 일지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초파일에 읽을 만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데 부처님 일대기만큼 적합한 책은 없을 것이다. <불타 석가모니>(동쪽나라)를 우리말로 옮긴 법정 스님은 "그 사람을 모르고 그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불타 석가모니의 경우처럼 그의 삶이 곧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한다. '부처님 일대기'를 훌륭한 불교 입문서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처님오신날에 읽어볼만한 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까지 출간된 부처님 일대기는 연대기적 전기에서부터 그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 학술서, 일대기를 소설로 꾸민 책 등 50여 권 정도. 그 중에서 꾸준히 읽히는 책으로는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동쪽나라)와 박경훈 씨의 <부처님의 생애>(불광출판부), 부처님 일대기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소설인 헤르만헤세의 <싯다르타>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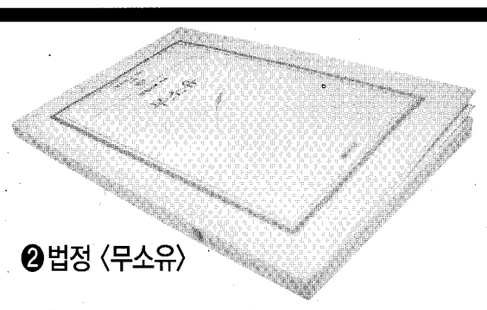
<불타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 다른 종교와 사상계의 움직임 등을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 일대기 책 중에서는 드물게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본생담>에 전하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부처님 생애를 되짚어가면서 그 가르침을 익히도록 구성돼 있다. 헤르만헤세의 <싯다르타>와 소설가 유홍종 씨가 낸 다큐멘터리 소설 <붓다>(해누리), 전북불교대학교 강건기 학장의 <부처님 생애>, 법륜스님의 <인간 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읽기에 알맞다.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아슈바고사 지음, 정태혁 옮김, 여시아문)는 붓다의 전 생애를 전해주는 전기로, 인도의 시인인 아슈바고사(馬鳴)가 기록한 시문(詩文) 형식의 <붓다차리타>를 번역한 책이다.

이 밖에 어린 싯다르타의 이야기를 담은 <싯다르타의 길>(데이비드 깔루빠나 외 지음, 재연 스님 옮김, 숨)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학자 폴커 초이츠의 <붓다>(김경연 옮김, 한길사),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의 <불타의 세계>(김영사)도 손꼽히는 부처님 일대기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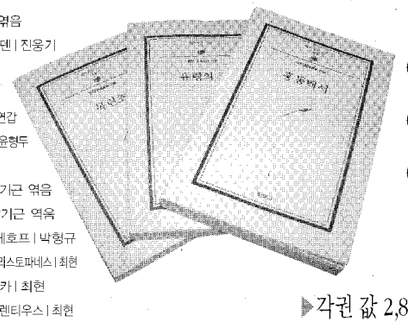
티벳
佛敎 성지순례
카일라쉬(수미산) 대탐사 24일 / 345만원
■ 5월 25일 - 출발 확정, 6월 23일, 7월 27일, 8월 3일
인천/성도-라사-장체-사가체-라체-사가-파망-다르첸-카일라스코라-구계왕국-마나사로베호수-파망-사가-라체-에베레스트BC-텅그리-니얼람-카트만두-방콕/인천
패키지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
티벳/네팔 문화탐방 11일
▶ 5/27, 6/3, 6/17, 7/15 ▶ 260만원
단체 배낭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
환상의 우정공로를 횡단하는 티벳/네팔 12일
▶ 5/21, 6/18, 7/23, 7/30 ▶ 173만원
티벳/네팔/인도 23일
▶ 6/20, 7/4, 7/29 ▶ 239만원
티벳 전문 혜초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



주머니 속의 작은 친구 범우문고

❷법정 〈무소유〉

1 수필 피천득
3 바다의 침묵(외) 베르코르 조규철·이정림
4 살며 생각하며 미우라 아야코 | 진웅기
5 오, 고독이여 F.니체 | 최혁순
6 어린 왕자 A.생 텍쥐페리 | 이정림
7 톨스토이 인생론 L.톨스토이 | 박형규
8 이 조용한 시간에 김우종
9 시지프의 신화 A.카뮈 | 이정림
10 목마른 계절 전혜린
11 젊은이여 인생을… A.모루아 | 방곤
12 채근담 홍자성 | 최현
13 무진기행 김승옥
14 공자의 생애 최현 엮음
15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L.린서 | 곽복록
16 김소월 시집 김소월
17 장자 장자 | 허세욱
18 예언자 K.지브란 | 유제하
19 윤동주 시집 윤동주
20 명정 40년 변영로
21 산사에 심은 뜻은 이청담
22 날개 이상
23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24 애정은 기도처럼 이영도
25 이브의 천형 김남조
26 탈무드 M.토케이어 | 정진태
27 노자도덕경 노자 | 황병국
28 길매기의 꿈 R.바크 | 김진욱
29 우정론 A.보나르 | 이정림
30 명상록 M.아우렐리우스 | 최현
31 젊은 여성을 위한 인생론 P.벅 | 김진욱
32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33 조병화 시집 조병화
34 느티의 일월 모윤숙
35 로렌스의 성과 사랑 D.H.로렌스 | 이성호
36 박인환 시집 박인환
37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38 창문 김태길
39 방랑 H.헤세 | 홍경호
40 손자병법 손무 | 황병국
41 소설·알렉산드리아 이병주
42 전락 A.카뮈 | 이정림
43 사노라면 잊을 날이 윤형두
44 김삿갓 시집 김병연 | 황병국
45 소크라테스의 변명(외) 플라톤 | 최현
46 서정주 시집 서정주
4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L.톨스토이 | 김진욱
48 불가능은 없다 R.슐러 | 박호순
49 바다의 선물 A.린드버그 | 신상웅
50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C.힐티 | 홍경호
51 딸깍발이 이희승
52 몽테뉴 수상록 M.몽테뉴 | 손석린
53 박재삼 시집 박재삼
54 노인과 바다 E.헤밍웨이 | 김회진
55 향연·뤼시스 플라톤 | 최현
56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R.릴케 | 홍성호
57 피천득 시집 피천득
58 아버지의 뒷모습(외) 주자청(외) | 허세욱(외)
59 현대의 신 N.쿠치키(편) | 진철승
60 별·마지막 수업 A.도데 | 정봉구
61 인생의 선용 J.러보크 | 한영환
62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F.사강 | 이정림
63 이동주 시집 이동주
64 고독한 산보자의 꿈 J.루소 | 염기용
65 파이돈 플라톤 | 최현
66 백장미의 수기 I.숄 | 홍경호
67 소년 시절 H.헤세 | 홍경호
68 어떤 사람이기에 김동길
69 가난한 밤의 산책 C.힐티 | 송영택
70 근원수필 김용준
71 이방인 A.카뮈 | 이정림
72 롱펠로 시집 H.롱펠로 | 윤삼하
73 명사십리 한용운
74 왼손잡이 여인 P.한트케 | 홍경호
75 시민의 반항 H.D.소로 | 황문수
76 민중조선사 전석담
77 동문서답 조지훈
78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 최현
79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80 문주반생기 양주동
81 신조선혁명론 박열 | 서석연
82 조선과 예술 야나기 무네요시 | 박재삼
83 중국혁명론 모택동(외) | 박광종 엮음
84 탈출기 최서해
85 바보네 가게 박연구
86 도왜실기 김구 | 엄항섭 엮음
87 슬픔이여 안녕 F.사강 | 이정림·방곤
88 공산당 선언 K.마르크스·F.엥겔스 | 서석연
89 조선문학사 이명선
90 권태 이상
91 내 마음속의 그들 한승헌
92 노동자강령 F.라살레 | 서석연
93 장씨 일가 유주현
94 백설부 김진섭
95 에코스파즘 A.토플러 | 김진욱
96 가난한 농민에게 바란다 N.레닌 | 이정일
97 고리키 단편선 M.고리키 | 김영국
98 러시아의 조선침략사 송정환
99 기재기이 신광한 | 박헌순
100 홍경래전 이명선
101 인간만사 새옹지마 리영희
1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일엽
103 모범경작생(외) 박영준
104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105 찰스 램 수필선 C.램 | 양병석
106 구도자 고은
107 표해록 장한철 | 정병욱
108 월광곡 홍난파
109 무서록 이태준
110 나생문(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 진웅기
111 해변의 시 김동석
112 발자크와 스탕달의 예술논쟁 김진욱
113 파한집 이인로 | 이상보
114 역사소품 곽말약 | 김승일
115 체스·아내의 불안 S.츠바이크 | 오영옥
116 복덕방 이태준
117 실천론(외) 모택동 | 김승일
118 순오지 홍만종 | 전규태
119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 M.베버 | 김진욱(외)
120 요재지이 포송령 | 진기환
121 한설야 단편선 한설야
122 쇼펜하우어 수상록 쇼펜하우어 | 최혁순
123 유태인의 성공법 M.토케이어 | 진웅기
124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125 인물 삼국지 모리아 히로시 | 김승일
126 한글 명심보감 장기근 옮김
127 조선문화사서설 모리스 쿠랑 | 김수경
128 역옹패설 이제현 | 이상보
129 문장강화 이태준
130 중용·대학 차주환
131 조선미술사연구 윤희순
132 옥중기 오스카 와일드 | 임헌영
133 유태인식 돈벌이 후지다 덴 | 지방훈
134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135 세계의 기적 박광순
136 이퇴계의 활인심방 정숙
137 카네기 처세술 데일 카네기 | 전민식
138 요로원야화기 김승일
139 푸슈킨 산문 소설집 푸슈킨 | 김영국
140 삼국지의 지혜 황의백 엮음
141 슬견설 이규보 | 장덕순
142 보리 한흑구
143 에머슨 수상록 에머슨 | 윤삼하
144 이사도라 덩컨의 무용에세이 I.덩컨 | 최혁순
145 북학의 박제가 | 김승일
146 두뇌혁명 T.R.블랙슬리 | 최현
147 베이컨 수상록 베이컨 | 최혁순
148 동백꽃 김유정
149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A.베넷 | 이은순
150 평민한문학사 허경진
151 정선아리랑 김병하·김연갑 공편
152 독서요법 황의백 엮음
153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B.러셀 | 이재황
154 조선사 연구(草) 신채호
155 중국의 신화 장기근
156 무병장생 건강법 배기성 엮음
157 조선위인전 신채호
158 정감록비결 편집부 엮음
159 유태인 상술 후지다 덴 | 진웅기
160 동물농장 조지 오웰 | 김회진
161 신록 예찬 이양하
162 진도 아리랑 박병훈·김연갑
163 책이 좋아 책하고 사네 윤형두
164 속담에세이 박연구
165 중국의 신화(후편) 장기근 엮음
166 중국인의 에로스 장기근 역옮
167 귀여운 여인(외) A.체호프 | 박형규
168 아리스토파네스 희곡선 아리스토파네스 | 최현
169 세네카 희곡선 세네카 | 최현
170 테렌티우스 희곡선 테렌티우스 | 최현
171 외투·코 고골리 | 김영국
172 카르멘 메리메 | 김진욱
173 방법서설 데카르트 | 김진욱
174 페이티의 산문 페이터 | 이성호
175 이해 사회학의 카테고리 막스 베버 | 김진욱
176 러셀의 수상록 러셀 | 이성규
177 속악유희 최영년 | 황순구
178 권리를 위한 투쟁 R.V.예링 | 심윤종
179 돌과의 문답 이규보 | 장덕순
180 성황당(외) 정비석
181 양쯔강(외) 펄벅 | 김병걸
182 봄의 수상(외) 조지 기싱 | 이창배
183 아미엘 일기 아미엘 | 민희식
184 예언자의 집에서 토마스 만 | 박환덕
185 모자철학 가드너 | 이장배
186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 오상순
187 무하선생 방랑기 김상용
188 어느 시인의 고백 릴케 | 송영택
189 한국의 멋 윤태림
190 자연과 인생 도쿠토미 로카 | 진웅기
191 태양의 계절 이시하라 신타로 | 고평국
192 애서광 이야기 구스타브 플로베르 | 이민정
193 명심보감의 명구 191편 이응백
194 아큐정전 루쉰 | 허세욱
195 촛불 신석정
196 인간제대 추식
197 고향산수 마해송
198 아랑의 정조 박종화
199 지사총 조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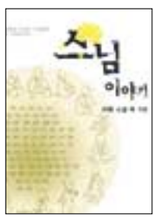


200 이어령 단편선 〈흥동백서〉
201 최인호 단편선 〈유령의 집〉
202 오정희 단편선 〈목련초〉

▶각권 값 2,800원 ▶계속 출간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www.bumwoosa.co.kr T.(02)717-2121 범우사

스님이 쓴 스님들의 수행 일화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외 14인 지음
여시아문 | 1만2천원

법정 · 종진 · 명성 등 85명 스님들의 일상사

고매한 인품 번뜩이는 재치, 재미 · 감동 전달

세상사가 어지러울 수록 중생들은 수행자에 기대하는 마음이 커진다. 지묵 · 설곡 · 효림 등 15명의 스님들이 쓴 <스님이야기>는 청정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허전한 마음을 달래준다.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 대부분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 철저한 수행기풍과 인품 만큼은 독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이야기가 감칠맛나는 문체에 녹아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송광사 불일암에서 공양주를 살며 모셨던 법정 스님과의 일화는 지묵 스님의 가슴속에 아직도 커다란 가르침으로 남아 있다. 한 번은 지묵 스님이 법정 스님의 반응을 보기 위해 스님의 밥그릇안에 고기 몇 점을 넣었다. 그랬더니 이를 눈치 챈 법정 스님이 느닷없이 노처녀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한 노처녀가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만났지만 결혼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지켜온 정조가 아까워서'라는 것이다. 스승의 번뜩이는 대기설법에 지묵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무엇이 먹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점잖게 힌트를 주어 표현하는 선사다운 풍모에서부터 발바닥 중간의 용천혈을 자극하는 나름대로의 건강관리법까지 법정 스님과의 일화가 담백한 글로 소개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초발심을 늘 간직해 수행자의 귀감이 되는 스님들도 있다.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과 금산 스님, 결제때는 물론 해제때 마저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법현 스님, 해제와 결제가 따로 없이 늘 정진하는 일선 스님 등은 수행자로서 모범을 보인 일등 수좌들이다.

세간에 잘 안 알려져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과 포교, 보살행에 매진하는 잔잔한 수행담도 눈길을 끈다. 대강백 명성 스님, 운문인들의 귀감인 흥륜 · 일진 스님, 하루 4시간씩 자며 강의 준비와 번역일에 몰두하는 혜원 스님.

이 책의 장점은 바로 이런 스님들의 일상을 통해 보여준 수행의 향기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젊은 객승이 자신의 사찰에 찾아와도 허리굽혀 인사 하며 어느 도량에서 왔고 은사 스님은 누구인지 물어보는 등 따뜻하게 맞아주는 '인욕제일' 지월 스님, 60년대 후반 도량의 무명 옷들을 주워 손수 빨아 두었다가 행자나 옷이 없는 스님들에게 나눠 주었던 홍법 스님, 무예가 뛰어나지만 얻어맞으면서 까지 하심에 하심을 했던 대오 스님 등의 얘기를 대하면 감동을 넘어 숙연해 지기까지 한다.

이 책은 스님들의 삶과 치열한 구도열정을 널리 알리고자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8월 6일까지 3년여에 걸쳐 현대불교신문에 소개됐던 연재물중 85명의 스님이야기를 선별해 엮은 것이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사찰은 일반인에게는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는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정한 스님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며,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인들은 살 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되니까 말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스님들의 진솔한 수행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이 책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티베트 마법의 서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 지음
김은주 옮김
르네상스 | 1만2천원


동물의 탈을 쓰고 동물신을 체현하는 수도승.

서양 여성학자가 체험한 티베트 풍속과 수련법

<티베트 마법의 서>는 티베트를 최초로 방문한 서양 여성인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문화인류학자, 1868~1969)이 쓴 티베트의 문화 · 풍속 및 티베트 밀교의 신비한 마술 세계에 대한 소개서이다. 1929년에 출간된 이 책은 티베트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했던 서양 학자의 티베트 정신세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단순히 밀교의 마술이나 전설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련법을 직접 체험해 본다.

그것중 하나가 바로 '룽곰(lung-gom)'이다. 이는 영적 · 육체적 신통력을 지향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집중과 호흡법을 결합한 다채로운 수행법을 말한다. 이 수행을 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공중부양'과 '축지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티베트에는 빙설 지대에서 벌거벗다시피 하고 겨울을 보내는 은자(隱者)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열을 일으키는 '투모' 수련을 한다. 티베트 밀교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텔레파시도 저자가 체험한 수행중 하나다. 명상을 오래한 위대한 은자들은 여러 가지 관조적인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결과로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시체를 소생시키는 '룰랑 의식', 저주를 담은 단검 '풀바', 죽음의 성찬식인 '초드 의식' 등 밀교의식과 세계의 모든 것이 '신기루'일 뿐임을 깨닫는 명상법에 대해서도 라마승들에게 들은 얘기와 경험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청담 스님을 모르고서 한국불교 안다고 말라



아! 청담
김광식 지음
화남 | 1만2천원

스님 신도 타종교인 등 36인 청담 스님과 인연 증언

"스님의 수행력, 인욕보살행, 정화정신, 이를 스님의 3대 정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담은 한국의 불교사에 남을 이름입니다."(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저는 그 분을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담 스님이 가신 것을 매우 아쉬워 했지요."(강원용 목사)

이 책은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종회의장, 종정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선학원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을 넘나들며 한국불교 발전에 헌신한 청담 스님과 인연깊은 36인의 증언을 대담집으로 엮은 것이다. 그 인연있는 인사들 가운데 월주 광우 능혜 동광 법흥 등 스님들과 심재열 윤청광 우경배 이승택 등 재가불자와 강원룡 목사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며 청담 스님을 가까이 모셨던 능혜 스님(삼화사 회주)은 "스님은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진 소신있는 승려였다"고 술회했다. 청담 스님을 은사로 입산한 동광 스님(前 도선사 주지)은 "이따금씩 내가 거울을 보자, 거울을 또보면 얼굴을 확 그어버리겠다"며 "수행자가 속으로 공부를 해야지 외모에 신경을 쓰면 어떡하냐"며 야단 맞았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본래 이 책은 도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여성불교>에 2001년부터 3년간 36회 연재한 '청담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란 제목의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이 연재를 기획한 것은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청담 스님을 모르고서는 한국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열흘간의 만남>**(신경림 · 조오현 지음, 아름다운 인연, 9천8백원)=신경림 시인과 백담사 무금선원의 오현 스님이 거침없이, 꾸밈없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삶의 깊이와 순수함을 간직한 무욕의 법문과도 같다.

■ **<낮잠>**(상봉 스님 글 · 그림, 리즈앤북, 9천8백원)=전국 1백여 사찰의 탱화를 그린 불교미술 화가 상봉 스님의 시화집. 일상에 대한 성찰이 담긴 시구가 정겨운 풍의 수묵화와 어우러져 읽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 **<길을 지우며 길을 걷다>**(이원규 지음, 좋은생각, 9천원)=도시의 삶을 버리고 생명평화를 화두삼아 지리산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이원규 시인의 편지형식 글 모음. 삼보일배, 생명평화 순례 등 걷기를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시인이 길 위에서 보고 느낀 바를 담담하게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 **<선인들이 남겨 놓은 삶의 흔적들>**(허균 지음, 이경재 외 사진, 다른세상, 1만원)=장독대, 단청, 서낭나무, 태극문양 등…. 너무나도 흔한 것이라 가치마저 평가절하하기 쉬운 우리의 문화유산들이다. 한국적 아름다움과 정신을 연구하는 이답게 예리한 안목과 미적 감각으로 생활 속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 소개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문의:(02)737-0695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3	참나	혜거 스님	선문출판사
4	육조혜능 평전	이은윤	동아시아
5	선, 문 밖에 나서다	해탈 스님	여시아문
6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7	청정도론 1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8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틱낫한	장경각
9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동숭동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법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사단법인 대한불교 불이종
종정 김성공 대종사
사서실장 강학운
원로원장 김법공
중앙종회 의장 서갈평
중앙종회 부의장 이혜종
총무원장 민법묘
사무국장 황수기
총본산 : 용국사 내 총무원 TEL 055)572-0209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840

大韓佛教 禪宗
宗正 朴浩永
元老議長 金鶴洙
宗會議長 金在洪
總務院長 金光雄
總務部長 性海 教務部長 性喆
財務部長 海日 社會部長 度性
監察部長 法性 禮敬室長 一禹
司書室長 法草
■ 總本山 :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七浦里 607 大願寺 TEL 054)261-2396 / FAX 054)261-6119
■ 總務院 : 慶州市 忠孝洞 山199-5 永興寺 TEL 054)745-2731 / FAX 054)773-4326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 제141호 (한불총02-44호)
大韓佛教 禪宗 任員 一同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1>



부처님 탄생이야기

붓다의 탄생을 전해 주는 문헌은 풍부하다. 물론 이런 문헌들은 붓다의 사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형성된 것들이다. 시기별로 탄생 전설의 내용이 조금씩 발전하여 가는데, 이러한 변화는 붓다 라는 한 위대한 스승에 대한 존경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비례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붓다의 정신적인 정각이라는 한 가지 핵심은 변화하지 않고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숫타니파타>를 중심으로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숫타니파타>에서 사리풋타는 붓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도솔천에 있었다는 것과 탄생 후 붓다의 지혜 광명으로 모든 무지의 어둠을 물리치고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붓다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도솔천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불전 최초기부터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 같다.

붓다가 머물고 있던 도솔천이란 어떠한 곳일까? 도솔천은 불교의 우주론에 의하면 욕계에 속하는 천계이다. 인간계 바로 위에 사천왕천, 삼십삼천, 야마천이 순차적으로 놓여있고 야마천 바로 위에 도솔천이 있다. 도솔천은 천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진다. 미래의 붓다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경건한 불자들은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게 된다. 미래 붓다의 어머니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솔천이라는 이름은 즐거움이 가득차 있다는 의미이다.

<숫타니파타>의 다른 부분에선 붓다의 탄생과 관련한 아시타(Asita)라는 선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다. <숫타니파타> 중 나라카라는 소제목 하에 45개(679~723)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부분만 요약하기로 한다.

아시타(Asita)는 선정 중에 삼십천의 신들이 그들의 주신인 인다(Inda)를 찬양하고 깨끗한 옷을 흔들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 악신인 아수라들과 싸워 이겼을 때 조차도 이처럼 기뻐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메르(Meru) 산의 정상에 살고 있는 신들은 대답한다.

"비할 바 없이 훌륭한 보살이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인간 세상에 석가족(Sakya)의 마을인 룸비니에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도로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그는 모든 중생 중 최상이고 탁월한 자이며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자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의 군주인 사자처럼, 그는 선인이라는 동산에서 법륜을 굴릴 것입니다."

삼십천의 신들로부터 미래의 붓다가 인간계에 탄생했다는 말을 들은 아시타는 숫도다나왕의 처소에 가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된다. 어린 아이의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아시타는 행복하였다. 신들은 천개의 살로 이루어진 일산을 공중에 펼치고 황금 손잡이의 부채를 상하로 부쳤다. 아시타는 어린 아이 머리 위에 펼쳐진 하얀 일산을 보고 옅은 붉은 색의 모포 위에 놓여 있는 보석 같은 어린 아이를 보며 기뻐했다. 베다의 주문과 점상에 정통한 아시타는 어린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외쳤다. "이 어린 아이는 최상의 존재로 인간 중에서 최고이다."

아시타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자 주위 사람들은 걱정하며 어린 아이에게 무슨 불길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아시타는 자신은 이미 늙어 어린 아이가 장성하여 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뿐이라며 어린 아이의 미래를 예언했다. "이 어린 왕자는 최상의 정각에 이를 것입니다. 가장 청정한 것을 보고 많은 대중들의 이익을 위한 자비심을 갖고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성스러운 삶은 널리 찬양될 것입니다."

이상 붓다의 탄생 전설이 불교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고찰해 보자.

먼저 천상의 신들이 보살의 탄생과 붓다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타가 신들로부터 붓다의 탄생을 듣고 어린 왕자를 조사해보고 그의 미래를 확인했다. 결국 탄생전설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붓다의 탄생은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중생 구제라는 이타행으로서 붓다의 탄생을 찬미하기 위해 천상의 신과 아시타 선인의 등장이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붓다의 탄생을 기뻐했던 삼십천의 신들과 그들의 주신인 인다는 불교의 발생 이전에 이미 힌두교인들에 의해 신앙되던 신들이다. 이런 것들은 붓다의 탄생을 더욱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불교가 힌두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야 부인의 백상 태몽, 우협탄생, 탄생 직후 일곱 걸음, 탄생게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다음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위해 붓다 탄생

힌두교인이 섬기던 신들 붓다 탄생 찬미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교수

과거불 집착말고 현재불 찾아라

부처님오신날 듣는 큰스님 법문 I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불자들이 낡은 의식을 일깨워 늘 새롭게 태어난다면 날마다가 부처님오신날"이라고 말한다.



지상 백고좌

부처님오신날 스님들이
燈 내주고 돈만 받지 말고
신도들이 직접 만들어
정성껏 올리도록 가르쳐야

여하즉시(如何卽是)오
위음왕불(威音王佛) 출세전(出世前)에 절각니우설리안(折角泥牛雪裡眼)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꼬
위음왕부처님이 나기 전에 뿔 꺾인 소가 눈 속에서 잔다 하리라.
오늘 대중은 과거불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몸 속에 있는 현재불을 찾으라

불자언무생(佛自言無生)인데 여하망설불생가비라(如何妄說佛生迦毘羅)며
불자언무멸(佛自言無滅)인데 여하망설불멸구시라(如何妄說佛滅拘尸羅)오.
부처님께서 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망령되게
부처님이 가비라국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며
부처님께서 멸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망령되게
부처님이 구시라국에서 열반하셨다고 하는가.

약언불유생(若言佛有生)이면 낙상견(落常見)이요
약언불유멸(若言佛有滅)이면 낙단견(落斷見)이라.
만일 부처님이 나셨다고 하면 상견에 떨어지고
만일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단견에 떨어지리라.

약언여래(若言如來)가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하면
천불(千佛)이 출세(出世)라도 영불성불(永不成佛)하리라.
만일 부처님이 나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천불이 출세해도 영영 성불하지 못할 것이다.

대중은 옷 입을 때 옷 입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오래 오래 공부하면 화두밖에 다른 망상이 없어
부처 되고 조사 되는 것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이 말 뿐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해서 사방에서 법문을 해달라고 하지만 이 말밖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과거불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몸 속에 있는 현재불을 찾으라는 말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거든.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해봐야 맛을 보지 않겠소? 그런데 온통 말뿐이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야.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일러주시는 분이 부처님인데 지금 불교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불교 믿으면 계급도 올라가고 회사도 잘 된다느니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로 온통 떠들썩합니다. 물론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사탕발림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이 다 인줄 알고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 길도 없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다가 남의 다리 긁을 것 없이 '자기 몸 속에 있는 현재불을 찾아라!' 라

석주 큰스님의 병풍

단 한번의 기회 !!
석주큰스님 글씨가 있는 팔상도8폭병풍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주어집니다.
1,000점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보문복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한정제작-

살아계신 한국현대 불교사로 추앙받고 있는 칠보사, 봉은사 조실 강석주 큰스님.
사대부중 모두가 존경하옵는 큰스님의 반야심경이
청곡화백의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를 여덟장면의 중요부분으로 그림에 옮긴 팔상도와 함께 양면표구되어 불자님들에게 보급됩니다.


(앞면)석주큰스님의 친필 반야심경(영인본)


(뒷면)청곡화백의 팔상도


김선원 선생의 사영수 도자기
KBS1TV 진품명품 고서화 감정위원이시며
이시대 최고의 서예가이시며 한학자이신
매산 김선원 선생께서 친필로 정성을 다하여
써주신 사영수 도자기. (기린(麒), 봉황(鳳), 신구(龜), 용(龍))


고당스님의 친필 달마도
30년간 수행정진의 경정체인 고당스님의 달마도는
행운의 달마도로서 복운을 덕아주고
상스러운 가풍을 발현시켜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달마도.
(※작품만 드립니다.)

意義
- 당대(當代) 제일의 법력과 필력을 가지신 석주큰스님의 좋은 글씨를 널리 알리고 여러사람이 소장하여 보고즐길수 있도록 함입니다.
- 부처님의 일대기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덟장면을 알기쉽고 친근한 그림으로 나타낸 팔상도를 널리 보급하여 불교의 진리를 체득과 생활의 귀추가 되게 합입니다.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0. 보문사 산하 보문복지원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KBS1TV 진품명품 감정위원이시며 이시대 최고의 한학자겸 서예가이신 매산(梅山) 김선원 선생께서 친필 사영수도자기를 좋은일에 동참하시기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 우리나라 선서화의 대가이신 선월 고당(古堂)스님께서 직접 그리신 달마도를 내놓으셨습니다.

팔상도8폭병풍(석주큰스님 반야심경)
매산 김선원선생의 친필 사영수도자기
고당스님 친필 달마도
~~860,000~~ → 395,000원

※ 개별 구입도 가능합니다.

보문복지원 대행 : (주)명성아이앤씨
문의전화 : 02-424-9901

는 말뜻을 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스스로가 정리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앞뒤를 살필 줄 알아라' 이 말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칼 가는 사람이 칼을 보고 칼을 갈아야 되겠는지 아니면 먼 산을 보고 갈아야 칼이 잘 갈리겠는지? 차를 운전하든지 걸어 다니든지 똑같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핸들을 잡고 좌우를 잘 살펴서 아는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헛디디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말고 옷 입을 때는 옷 입는 것만 생각하고,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그 놈을 명명백백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법문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프랑스 유명 잡지사 편집장이 틱낫한 스님에게 취재를 부탁하자, 틱낫한 스님은 곧바로 취재에 응하지 않고 일주일동안 함께 머물며 똑 같이 수행해 본 후에 대화를 나누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스스로 체험해보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부처로서 변함 없이 이어져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밥은 오래 씹을수록 맛이 있고 한가지라도 자꾸 되씹다보면 나라는 존재성, 내 갈 길을 내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내 갈 길은 내가 찾게 되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할 수록 자꾸 멀어져 갑니다. 죽자살자 내가 개척한다 하고 가면 빠른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가르침을 남기신 분인지에 살펴 보고 그 길을 따르려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처님오신날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당장 밥 한그릇 못 얻어먹고 쫓겨나더라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지금 한국의 부처님오신날은 꼭 지 애비, 지 할애비 생일 팔아먹는 형국입니다.

등 다는 것만 해도 아무 스님이 계시는 절에 내가 대접을 위해서라도 한 등을 올려야 안 되겠나 하니 그게 어디 공덕이 있겠습니까? 정녕 부처님 생일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으면 신도들한테 정성껏 등을 만들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도록 하면 됩니다. 등을 내주면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바르게 만들든 엉터리로 만들든지 신도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처님 전에 성의 있게 올리는 정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정성의 등불, 마음의 등불을 밝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스님들의 할 일입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가르침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만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이 분명해야 내일도 분명해 집니다. 그러니 오늘이 똑똑치 못하면 내일도 그렇게 몰고 간다 이 말입니다. 사월 초파일은 부모 생일날과 같은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 생일이니 우리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주지스님이 어디 가서 탁발해다가 신도들을 먹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스님 된 것도 부처님 덕인데 아무리 우리 절이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나 한테 찾아오는 신도들 내가 밥 한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러한 어른이다' 하는 말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등 값은 얼마나 들어왔나 따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소리하면 '저 스님이 남의 밥통 다 깨네' 하고 야단들일 겁니다. 하하하!


항상 편안한 웃음으로 신도들을 대하는 보성스님.

내 갈 길은 내가 찾는것
스스로 체험해야 달라져
참 불자라면 낡은 의식 깨워
늘 새롭게 태어나야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이 깨어나야 변화가 옵니다. 달라이라마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 받은 상금 전액을 아프리카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기자들이 "당신네도 나라를 빼앗기고 난민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에 주느냐?"고 질문을 했

"당신이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처럼 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 난민이 많다고 하지만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는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금을 아프리카로 돌리는 것이 이 상을 제정하고 상금을 주는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인간 아닙니까? 절대 남의 힘 빌리지 말고 인간의 자리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으니 지옥이니 극락이니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그만하고, 인간의 기본을 새롭게 하고 의식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해 보자는 말입니다.

'오래 된 길'의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다만 '오래 된 길'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길을 정비하시어 사람들을 가게 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의 무지몽매한 의식을 일깨워 인간 정신의 황무지에서 탐욕을 갈아엎고 어리석음을 뽑아 내어서 거기에다 씨 뿌릴 준비를 마친 분입니다. 대지를 경작하는데도 적당한 비와 햇볕과 때에 맞는 거름, 제초작업이 필요하듯이 인간 정신의 경작도 그와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잘 지켜보고 악을 막는 일과 선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나쁜 버릇을 없애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 나가는 것이 계의 기본 정신입니다. 무릇 불교인들은 낡은 의식을 일깨워 늘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 매일이 부처님 생일이요, 우리의 생일입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기자가 뵌 보성스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숨 쉬지도 말아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뵌 보성 스님의 얼굴에는 검은 딱지가 가득했다.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딱지다.

"스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햇빛을 너무 봐서 알레르기가 생겼어."

송광사 텃밭에서 장시간 일을 하신 탓이다.

"일꾼한테나 젊은 스님들한테 맡겨 놓으시지요."

"제대로 해야 말이지. 하도 답답해서 웃통 벗어 놓고 했더니 노인 얼굴이 이리 돼 버렸어. 이것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니 부속품들이 여기 저기 고장이 잦아서 정비소(병원)에 다녀야 할 형편이야."

스님의 말씀은 늘 웃음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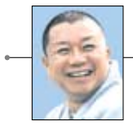
"일하기 싫으면 가서 낮잠이나 자거라. 그리고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아라"는 말로 후학들을 이끌어온 스님의 세수는 77세(1928년 생)이다.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스님은 50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4, 5, 6, 7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1997년에는 조계총림 방장에, 12월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2002년 10월 전계대화상에 추대되어 계율을 바로 세우는데 진력하고 있다.

언행으로 대중들을 이끌고 있는 스님은 "부산에 와서 지내는 동안 송광사 대중들이 좀 편안할 거야. 잔소리를 안 하니 내가 밥맛이 좋다"고 웃어 보이셨다. 말씀과는 달리 스님은 매일 송광사에 전화를 걸어 대중들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기신다.

또한 스님은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이 생긴 것이며, 불국사가 불국사봉사단을 결성해 수재민을 도운 것 등 종단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고 계셨다.

"이제 국제화 시대야.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 제대로 해야 해. 모두들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한 가지라도 두터운 생각으로 부처님을 따른다 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땅도 거름을 잘 해주면 열매도 실하게 많이 열리듯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것 이상은 없어."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 혜암 스님 (3)



하안거와 동안거, 나고 죽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년 중 육 개월은 고즈넉한 도량에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한다. 해인사는 안거가 시작되면 공부하는 스님들이 안거기간동안 대중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율원장스님을 모셔서 발우 공양 등 여러 가지 습의를 실시한다.

그럴 때 마다 대중은 율원장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난 후 위의와 행의를 율원장 스님으로부터 배운다. 혜암 스님은 이 자리에 꼭 참석해서 대중들과 함께 율원장스님께 삼배를 올린다. 율원장인 종진 스님은 어른스님께서 참석하신 것만도 송구한데 삼배까지 받게 되니 죄송한 마음에 어른스님께서는 그냥 앉아 계시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는 율원장스님이 법사이니 괘념치 마시고


그림 · 문병성

평소처럼 습의를 진행하라고 하시면서 습의가 끝날 때 까지 대중과 함께 한다.

강원 학인 대중들은 물론 상판 스님들도 빠지고 싶어 하는 게 안거 습의인데, 스님은 산중의 최고 어른이면서도 대중규약은 철저하게 지키니 공부분위기 만큼은 자연스럽게 모범적으로 만들어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대중과 함께하는 동사섭 정신은 방장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해인사는 안거 기간동안에 모든 대중이 일주일간 잠을 안자고 좌선을 하는 용맹정진을 한다. 용맹정진은 산내의 모든 대중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법문 날 법상에 오른 혜암 스님께서, 내 상좌가 선방에 용맹정진하러 이제는 오려나, 이제는 오겠지 하고 기다려 봐도 오지 않자 내 상좌가 강원에 있는데 한번도 용맹정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공표를 했다. 물론 당사자인 나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법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 스님을 항상 가까이하니 언제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합리화와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일 텐데 하는 해태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은사스님은 습의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상좌는 법문 날조차도 보이지 않으니 공부는 차치하고라도 마음상태가 글렀다고 판단하시고 대중에게 공표해서 내 마음의 나태함을 잡아 주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도량에서 만나뵈면 늘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던 뒷방의 노스님들부터 반응이 싸늘했다. 산내 암자에서 정진하는 비구니스님들은 두말이 필요 없을 만큼 냉랭했다.

내가 강원에 있으면서 용맹정진을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아니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 가게 되면 수 없이 하는 게 용맹정진인데 왜 학인이 선방에 올라가야하나?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용맹정진해야 할 정도의 발심도 못했다. 또 용맹정진하고 내려오면 그 후유증도 심했다. 학인들은 체 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한달정도 강원공부에 지장을 초래했다.

혜암 스님은 대중처소에 살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한다는 철칙을 갖고 계시고 당신은 자리에 누울 때 까지 실천에 옮겼다. 방장소임을 볼 때도 대중과 함께 용맹정

산중 최고 어른이면서도 안거 습의 꼭 참석 모범 보여

진 했고, 종정 소임을 볼 때도 원당암 대중선방에서 손수 죽비를 들고 경책하셨고 법문도 하셨다.

자운, 성철, 혜암, 일타 스님 등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불교계의 선지식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현대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신데 있다.

성철 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모셔왔던 분이 자운 노스님이었다. 그러면서 후배인 성철스님이 총림을 다스리는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은 부산 감로사로 거처를 옮기셨다. 또 성철스님은 자운 스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청풍당이라고 이름 붙인 요사채를 지어서 항상 깨끗하게 비워 두었다.

자운 스님께서 청풍당에 오셔서 쉬는 모습은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두 분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했다. 하나같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정겨운 모습뿐이다. 혜암 스님은 이렇게 청정하고 거룩한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깨달음을 향해서 전설과 같은 공부를 일생동안 굳건한 마음으로 실천해 냈다. 그 분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인식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도반들과 후배들을 아낄 줄 알았다. 그 결과로 법맥을 사람으로 이어 나갔다.

우리는 불교를 무엇으로 이끌어 나가야할까. 신심이 턱 없이 부족한 나로서는 걱정이 태산같다. 산으로 다시 돌아가 한철 기도한 후에나 바로 보는 눈이 제대로 잡힐 수 있을까?

■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소원하는바 모든 일이 원만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조 실 석주 정일
주 지 설담 원혜

청정공덕회(신도회)일동

(우)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 02)511-6070, 팩스544-2141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봉은학림 선가귀감 강좌 법회 안내

선종 수사찰의 전통을 간직한 봉은사에서는 선수행 전통을 계승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현대인들에게 감로를 제공하고자 올 갑신년 한해동안 참선과 관련한 법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종 최고의 경전인 육조단경을 참구하는 육조단경 논강을 성황리에 개최한 데 이어 하안거 동안 한국불교 최고의 선서(禪書)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禪家龜鑑)' 강좌 법회를 봉행합니다. 갑신년 하안거를 참선에 대한 참구로 이끌어갈 이 법회에는 우리시대 최고의 강백 가운데 한분이신 통광스님을 어렵게 모셔 다시 듣기 어려운 소중한 법연을 마련하였으니 관심있는 불자님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기 간 : 6월 13일(일) ~ 8월 29일(일) 매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1시
● 장 소 : 봉은사 법왕루
● 강 사 : 통광스님
● 문 의 : ☎02)3218-4811~5 (포교 • 교육팀)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국내의 명산 중에서도
가장 여기가 좋은 곳이요,
불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

삼국유사/일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 주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총무국장 : 원 행　연수원장 : 무 구
기획국장 : 인 광　포교국장 : 무 주
교무국장 : 동 은　호법국장 : 고 견
재무국장 : 법 상　산　　감 : 적 천
사회국장 : 관 행　원　　주 : 자 월

4교구 월정사 신도회, 거사림회, 청년회, 어린이 자모회, 연꽃 합창단, 연꽃 유치원 자모회, 강릉 장애인 복지관

사부 대중일동 합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종무소 : 033)332-6663~5 Fax 033)332-6915
▶원주실 : 033)332-6661~2 Fax 033)332-9684
홈페이지 : www.wolje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 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방 장 **진성원담(眞惺圓潭)**

주　지 **법 정**
도　감 **지 운**
기획국장 **도 광**
재무국장 **효 성**
교무국장 **정 암**
사회국장 **자 명**
호법국장 **선 본**
포교국장 **강 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TEL : 041)337-6565 / Fax : 041)337-0072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 타**　주 지 **종 상**
학 장 **덕 민**　선원장 **종 우**



부주지 관 우
강 주 응 각
총 무 장 주
사 서 신 행
기 획 청 원
교 무 종 천
재 무 정 문
사 회 성 탄
포 교 성 제
호 법 종 덕
교 육 보 명
문 화 기 형

- 부 설 기 관 -
불국사문화회관
불국유치원
룸비니어린이집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법보신문

신도회장 변영우외 16개 신행단체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FAX 054)746-1476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해 인 총 림 방장 **도림 법전**

주　지 **수봉 세민**

팔만대장경 동판복원불사 추진위원회

총림대중일동, 신도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TEL : 055)934-3003 / Fax : 055)934-3010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덕진 초우**
주 지 **이산 현문**

총무국장 **산 옹**　기획국장 **시 공**
교무국장 **문 성**　재무국장 **현 기**
사회국장 **만 오**　포교국장 **선 오**
호법국장 **덕 원**　원　　주 **방 원**

총림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TEL 055)382-7182 / FAX 055)382-7196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 주 사

주 지 **정 락**
총 무 영 명
기 획 원 오
교 무 성 무
재 무 성 직
사 회 응 진
호 법 지 강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TEL 031)234-0040
FAX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 흥 사

주 지 **석마근**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TEL 033)636-7044, 7393
FAX 033)636-7556

전시

원담 스님 선서화전 '무심'

5월 26일부터 한달간 수덕사 황하루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의 미공개 선서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한다. 5월 26일부터 한달간 수덕사 황하루에서 열리는 원담 스님 선서화 특별초대전 '무심(無心)'이 바로 그것. 이번 전시회에는 스님의 작품중 가장 빼어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월산고(小月山高 · 그림)' '달마도' 등 7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원담 스님은 한국불교의 선맥을 구축한 선지식 경허 ·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해 평생을 참선에 매진한 선승이다.

만공장학재단 설립 기금 조성 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봉 · 수안 스님 등 다른 스님들과 일반 화가들의 작품 8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041)337-6565

석채로 살아온 아미타 부처님

6월 2~8일 인사동 모로갤러리 김효진 불화展



김효진 作 '아미타삼존도'.

불교 신앙을 탱화로 승화시킨 선조들의 고고한 예술혼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불화작가의 신심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주제로 6월 2~8일 서울 인사동 모로 갤러리에서 열리는 김효진 불교회화전이 그것.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채색법인 천연석채를 8년여간 공부해 온 김효진 작가의 아미타 부처님과 지장보살 등 총20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들은 비단에 진채화와 담채화, 원형 모사와 현상 모사 등 다양한 채색법과 화법으로 그려져 관객의 시선을 잡는다.

단청문양보존연구회원이기도 한 김효진 작가는 원광대 미술대와 용인대 예술대학원에서 한국화와 불교회화를 전공하고 10여차례의 그룹전과 개인전을 열었다. (02)739-1666

공연

아바타로 변신한 21세기 처용

5월 26 · 27일 문예진흥원 대극장



신라시대 처용(處容) 설화가 아바타의 모습으로 각색돼 무대에 오른다. 5월 26 · 27일 저녁 7시30분 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손인영NOW무용단의 '아바타 처용2'(사진). 이 작품은 현란한 보디페인팅과 화려한 조명을 통해 '처용'을 21세기의 아바타로 변신시킨 것. '처용' 외에도 이번 공연에서는 여러 잡귀를 등장시켜 놀이와 축제의 요소를 강화하고, 특수분장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또한 한국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장르 구분을 적절하게 구성해 표현의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화와 역사, 가상과 현실,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를 아바타란 매개체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무대다. (02)3674-2210

피아골 울리는 김덕수 사물놀이

26일 구례 불락사 불교예술제



김덕수 단장의 사물놀이 공연.

지리산 피아골에 위치한 전남 구례 불락사는 5월 26일 오후 1시 '김덕수 사물놀이패 특별초청공연'을 연다. 음악과 춤과 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제19회 불교 예술제'에서 춤은 채향순 교수(중앙대 타악연희과)가 이끄는 중앙국악가무단과 이영희 무용단이, 노래는 김성녀 교수(중앙대 국악대학)가 각각 맡는다.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 국제 축구대회때마다 운동장에서 신명나는 우리 가락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김씨의 사물놀이를 이번에는 지리산 산사에 펼쳐 놓는다. 부처님오신날 축하기념으로 말이다. (061)782-5420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묘음법륜장(개금형, 청동형)



신라와 백제불교의 법륜장 문화를 현대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재탄생시킨 묘음법륜장. 2m이내에 사람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전자회로를 작동시켜 에밀레종 소리, 새소리 등과 함께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작법보유자 능화 스님의 <반야심경>독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

재질:순금개금+청동+크리스탈+고위도 LCD 크기:320mm×154mm 가격:86만 4천원(개금형), 43만원(청동형) (02)732-1520



5월 26일 MBC-TV가 방영하는 봉축프로그램 '한국의 비구니' 중 한 장면.

사미니계 수계식 영상으로 만난다

부처님오신날 볼만한 특집 TV프로그램

5월 2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공중파 · 케이블 TV 등이 다채로운 봉축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을 찾아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단연 '한국의 비구니'. MBC에서 봉축특집으로 마련한 다큐멘터리 '大.自.由.人.-한국의 비구니'(26일 오전 10시 50분)는 국내 최초로 송광사 사미니계 수계식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석남사 선원의 동안거와 울력 모습도 공개된다. 前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동안 가리워져 있던 비구니 스님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백련사 성탄 스님, 흥륜사 혜해 스님, 부인사 성타 스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공주 정관 스님등 다양한 곳에서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

이외에 눈에 띄는 다큐 프로그램은 KBS 1TV의 '청화, 56년간의 증거 그대 고향에 이르렀는가'와 KBS Korea의 '허황옥은 과연 인도공주인가?' 두 편. 청화 스님의 다비식으로 시작하는 '청화, 56년간의 증거 그대 고향에 이르렀는가(26일 오후 10시)'는 지난해 11월 입적한 청화 스님의 생전 모습을 따라가며 스님이 56년간 지켜온 원칙과 고행을 통해 참 종교인의 의미를 추적한다.

KBS Korea에서 제작된 '허황옥은 과연 인도공주인가?'는 인도에서 왔다는 허 왕후의 흔적을 찾아 인도로 떠난 제작진이 김해에서 발굴된 유골에 대한 DNA 검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로를 담고 있다.

불교TV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인공 선재와 동자승, 달마와 마야가 떠나는 여행을 통해 교훈을 전하는 '애니메이션 부모은중경'을 26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한다. 불상을 만들거나, 불화를 그리는 불모들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불모'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EBS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 '내 안의 부처(26일 오후 12시)'와 특선 영화 '호국 팔만대장경(26일 오후 12시 50분)'를 마련했다.

26일 오전 10시에는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KBS를 비롯해 MBC, 불교TV, BBS 등에서 실황중계된다.

MBC '대자유인-한국의 비구니' 눈길
KBS1 청화 스님의 수행 56년 추적
불교TV 애니메이션 · 뮤지컬 오세암 방영
불교방송 해설이 있는 연주회 '불향'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방송사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KBS 1TV	26일 오전 10시 50분	KBS일요스페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정 산에서 그를 만나다'를 앙코르 방송한다.
	26일 오후 10시	청화, 56년간의 증거 그대 고향에 이르렀는가	청화 스님이 출가해서 입적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수행과 삶을 조명한다.
	26일 밤 12시	은둔의 땅, 무스탕	1부 히말라야에서 만난 부처 편에서는 싱기 스님, 마부 참보와 함께 황량한 협곡에서 옛 삶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부처의 모습을 조명한다.
KBS 2TV	26일 오전 10시 30분	특선영화 보리울의 여름	사찰과 성당 아이들이 축구를 매개로 종교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아가는 영화.
	26일 오후 12시 20분	앙코르 인간극장	꾸러기 스님들 동자승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간극장 꾸러기 스님들 편을 앙코르 방송한다.
	26일 오후 5시35분	특집애니메이션 오세암	설악산 오세암에 얽힌 다섯 살 길손이 남매의 설화를 만화로 그려낸 작품.
KBS Korea	26일 밤 예정	허황옥은 과연 인도공주인가?	인도에서 왔다는 가야국 수로왕비 허왕후의 흔적을 따라 인도에서부터 발자취를 따라온다. 허왕후가 인도인인지 밝히는 DNA 작업까지도 밟았다.
MBC	26일 오전 10시 50분	大.自.由.人.-한국의 비구니	한국 여성 특유의 담대함과 주체적 정신으로 남녀차별적인 교리 안에서도 꿋꿋하게 법맥을 이어온 '석가의 딸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는다.
	29 · 30일 오후 11시30분	특집드라마 연화도 1 · 2부	불교에서 설하는 인연의 고리를 전생과 현생에 걸쳐 다룬 드라마. 전생에 부부였다가 헤어진 이들이 현생에 어머니와 아들로 만나 헤어짐과 만남을 통해 화해를 하는 내용이다.
EBS	26일 오후 12시	특집 다큐멘터리-내 안의 부처	대성사 도문 스님의 수행 모습과 그제자인 법신 스님이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조명, 부처가 말하는 삶과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26일 오후 12시 50분	특선영화-호국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목판에 새기는 작업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판을 이운하는 장면, 몽고군의 침략이 되풀이되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처럼 16년에 걸친 팔만대장경 조성 장면을 착실하게 고증한다.
BBS	26일 오전 9시 5분	부처님오신날 특집 '큰스님에게 듣는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들어보는 시간.
	26일 오후 6시 15분	전국은 연꽃세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춘천 등 지방국을 연결해 현지 사찰에서 펼쳐지는 봉축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26일 오후 8시 5분	부처님오신날 특별연주회-불향	한중일 삼국의 창작불교음악이 연주되는 '불향'의 공연 실황을 박범훈(중앙대) 교수의 해설로 들어본다.
Q 채널	26일 오후 12시 50분	사찰음식으로 부처를 만나다	사찰음식전문가 홍승 스님과 함께 1년간 전국의 전통사찰과 숨겨진 산사들을 심층취재한 사찰음식 다큐멘터리. 2부작
	26일 오후 6시	가장 인간적인 부처	1860년대 식민지 고고학자들에 의해 처음 밝혀진 실존했던 인물 부처의 이야기를 담았다.
	27일 오후 8시	성스러운 길-(04) 부처의 발자취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숭배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히말라야 산간의 네팔 왕국에서 인도까지 순례한 작품. 인간 석가모니의 흔적을 살피고, 불교 사상과 의례, 불교 사원과 유적을 소개한다.
캐치온	26일 오후 5시 15분	동승	주경중 감독의 불교 영화 동승. 엄마를 그리워하는 동승과 큰스님, 젊은 스님의 티격태격하는 일상사를 잔잔하고 아름답게 그렸다.
MCN	26일 새벽 2시	만다라	법운, 지산 스님의 구도행을 그린 임권택 감독의 영화.
CTN	26일 오후 4시	한국문학기행-만해 한용운	문학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흔적에서 스님을 조명했다.

게시판

함께 해요

산림환경 체험교육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은 6월부터 10월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산림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오산시 수청동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장에서 실시되는 체험교육은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031)375-9748

가족체험환경활동 한국환경교육협회가 6월부터 10월 모두 4차례 도시권 자연, 환경시설을 활용한 가족체험환경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대를 서류심사해 선발한다. (02)571-1195

대학생 해외견문단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대학생 해외견문단'을 모집한다. 참가희망자는 5월 29일까지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ade-campus.com)로 신청하면 된다.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사진) 인천 청소년수련관은 6월 13일 개최되는 인라인스케이트 슬라럼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스피드슬라럼과 프리스타일 등 2개 종목에 걸쳐 초등부와 중 · 고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032)440-6262



음식폐기물 사진공모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음식물류 폐기물 사진 공모전'을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홍보가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규격은 11×14인치다. 공모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진 뒷면에 작품명과 작품요약설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02)2600-3600

다랑논 모내기 체험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은 5월 30일과 6월 6일 양일간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맹산반딧불이 자연학교 인근 논에서 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30일에는 논을 뒤엎어 갈고 논둑을 다진 뒤 내달 6일 전통 줄모 방식으로 모내기를 실시한다. (031)702-5610

좋은 벗들, 고구려 흔적따라 역사기행



청소년을 필두로 한 역사기행단이 지역 문화재를 탐방하고 있다.

백두산에서 민족의 기상을 느끼고, 압록강 · 두만강 푸른 물 따라 펼쳐진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과 문물을 둘러보며 역사의 숨결을 생생히 느껴보자.

국제 평화 · 인권 · 난민 지원센터인 좋은벗들이 8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 9일 동안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제10차 역사기행'을 떠난다.

역사기행단은 고구려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최초로 쌓은 성인 오녀산성과 제2수도 국내성,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역대 고구려왕들이 제사를 지낸 국동대혈 등 고구려의 흔적을 따라간다. 참가신청은 6월말까지 홈페이지(www.goodfriends.or.kr)를 통해 하면 된다. (02)587-8996

어린이 세무교실 경기도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한다. (031)249-4438

야외 가족영화제(사진) 서울 은평구립도서관이 5월 28일 불광중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가족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은 윤인호 감독의 '아홉살 인생'이다. (02)385-1671



영상작가전문교육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설 영상작가전문교육원은 TV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극본과 시나리오를 제공할 '제2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희망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cenario.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6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2275-0566

즐겁게 떠나요

적멸보궁 특집기행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26일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문경시 봉암사로 특집기행을 떠난다. 평소 스님들의 선도량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곳인만큼 나만의 특별한 봉축행사를 가져보면 어떨까? (02)725-1284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 주 대 성
주 지 혜 진
신도회장 문수용
신도부회장 김종길
거사림회장 김태룡

보현회
관음회
금옥회

사부대중일동

■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2번지
종무소 : 055)337-0101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사불교대학
기본교리/경전과정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33
☏ 051)809-0926
팩스 051)803-0188

불교의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 재가복지봉사센타,치매노인주간보호센타
용호어린이집,가정봉사원파견센타
무료급식(매일300여명),노인대학(매일200여명)
관 장 혜 총

■ 전화 : 051)628-6737 / 팩스 : 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조 실 고 산
주 지 원 허

고산장학회 / 선지식회 / 자비회 /
만불회 / 지장회 / 관음회 /
연꽃부부회 /자원봉사단 / 선원대중 /
혜원합창단 / 청년회 / 대학생회 /
중·고등학생회 / 어린이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산1113-1
전화 : 051) 866-7771
팩스 : 051) 866-7777

대 한 불 교
해 인 종

종 정 만허 혜지
원로원장 혜동
중앙종회의장 법정
총무원장 보산
사정원장 월타
교육원장 청암
포교원장 정산
학술원장 법안
종정사서실장 법성
해인불무도원장 호송
사무총장 자륜

총무원: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46-12 낙은사
전화 051)312-3777, 팩스 051)322-5918
홈페이지 한글주소 해인종,www.haiinjong.org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 여 선 원
여 여 정 사

(부설) 신행학교
선원장 정 여
명혜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거사림회, 청년회,
어린이회, 복지회, 합창단,
다도회, 선림회, 여진부,
참선부, 수림회, 금빛모임

■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전화 051)853-5486~7 / 팩스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전화 055)355-9290~1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부처님의 자비를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불교복지기관을 통해 베풀어 주십시오

회 장 혜총 스님
기획실장 박용하
사무국장 이춘성
간 사 김영곤, 서은해

■개 금 사 회 복 지 관 관장 박용하/과장 채종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부장 박신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여스님/부장 정순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광수/부장 배의식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부장 김맹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현스님/부장 김민아
■양 정 청 소 년 수 련 관 관장 범산스님/차장 장문숙
■양 주 암 어 린 이 집 원장 범산스님/원감 양금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혜총스님/부관장 이춘성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정스님/부장 장병주, 한승미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원장 윤숙자/사무국장 서성자
■부 산 보 현 의 집 원장 이기표/총무 이영숙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 법인사무국 : 051)892-9803
부산 : 051)892-9877
서울 : 02)732-0772
창원 : 055)281-0772
미국휴스턴 (0011)713 467-0997
홈페이지 www.ahnkookzen.org

대한불교조계종 신창농장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HOMEPAGE :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제14교구
백 양 산 선 암 사

법 주 중 원
주 지 사 명
신도회장 신제철
봉사단장 왕선자

신도회,어린이 숲속학교
원효불교대학,원효합창단,
봉사단 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3동 628
전화 051)803-7573
팩스 051)803-7521
홈페이지:www.sunam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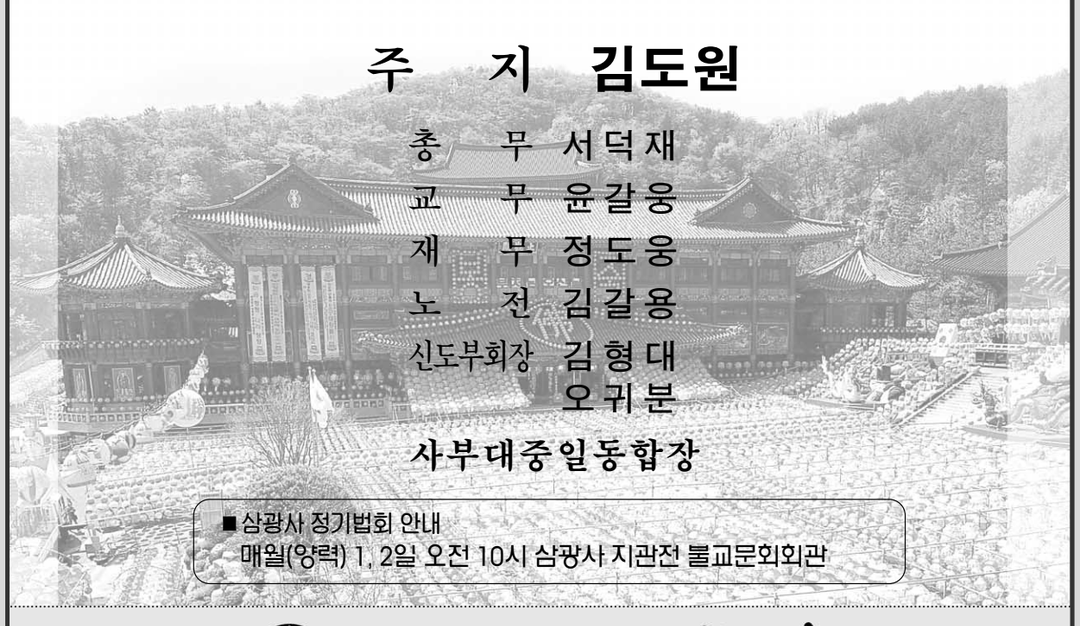
대한불교 선화종 총본산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의장

종 정 석의천
종회의장 원 효
총무원장 법 천
사서실장 원 당
총무부장 법 선

■ 총무원 031)865-8170
종정실 063)214-0788
총무원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04번지 쌍용사

'도심 속 문화와 신앙의 대가람'



주 지 김도원
총 무 서덕재
교 무 윤갈웅
재 무 정도웅
노 전 김갈용
신도부회장 김형대
오귀분
사부대중일동합장

■ 삼광사 정기법회 안내
매월(양력) 1, 2일 오전 10시 삼광사 지관전 불교문화회관

大韓佛教 天台宗 釜山 三光寺

TEL. 051)808-7111~5 / FAX. 051)803-1332 / www.samkwangsa.or.kr

---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 원 사

주 지 신법인
총 무 서대원
대중일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83
TEL 041)561-3545 / FAX 041)556-1425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명 상 신 문 사

한국불교 태고종 달 마 선 원

주 지 청광 도각
직원 및 신도일동

■ TEL 02)738-1275, 02)312-8248

<불교천문대> 건립발원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전법대본산 보현도량 도피안사' 부설
도서출판 도피안사

法 主 金河光德
住 持 松庵至元

■ (T) 031-676-8700 / (F) 031-676-8704
(E) dopiansa@kornet.net

<종이거울자주보기> 운동
유리거울은 내 몸을 비춰주고
종이거울은 내 마음을 비춰준다

공동대표 조홍식 · 이시우 · 황명숙

<종이거울자주보기> 운동 부설
도서출판 종이거울

■ (T) 031-676-8700 / (F) 031-676-8704
(E) dopiansa@kornet.net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 주 사

주 지 도 공
부주지 무 상
총무국장 원 장
교무국장 장 원
재무국장 원 일
사회국장 황 도
호법국장 도 안
원 주 구 공

사부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사무실 043)543-3615, 8655
원주실 043)543-4755
FAX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 화 사

조 실 법원진제
주 지 일응지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2 FAX 053)985-4405
홈페이지 www.donghwa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삼신산 雙磎寺

조 실 고산 혜원
주 지 우담 원정
강 주 제월 통광

사부대중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TEL 055)883-1901 FAX 055)883-6084
www.ssangge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주 지 혜 승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TEL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회 주 태공 월주
주 지 불일 평상
부주지 벽산 원행

기획국장 월강 일원
재무국장 자재 방착
교무국장 대명
호법국장 영광 원성
포교국장 덕림
신도회장 김백호외 신도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TEL 063)548-4441~2 FAX 063)548-1390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E-mail geumsa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 선 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철안

부 주 지 동호
종책실장 정수원월
연수원장 수환풍
총 무 묵화암
기 획 화광
교 무 혜화만
재 무 회원
사 회 교 수봉
포 교 법 묵
호 법 송
연수실장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TEL 031)527-1951~3
FAX 031)527-8568

대한불교조계종

내설악산 백담사

주 지 일 문

대중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690번지
TEL 033)462-6969
FAX 033)462-3224

산내암자 봉정암
감 원 정 념

산내암자 오세암
감 원 성 민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수원포교당

주 지 성관
부주지 성보
선원장 금산
입 승 덕안
교 무 대진
포교국장 지견
기획국장 응초
법 사 지찬

대중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TEL 031)245-7048

한국불교태고종 전통사찰48호

송 덕 암

주 지 고동우

사부대중일동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02번지
TEL 041)688-2913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 지 자 운

- 태중아기 영가천도 전문도량
- 천도재, 구병시식,49재 수시 접수중

신도일동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4층
TEL 02)3391-8523

포교·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도량!

■ **포교분야**
주간 도선법보, 월간 여성불교, 홍은동 포교당, 봉천동 포교당, 성주 대흥사, 안동 세심사, 하와이 무량사

■ **교육분야**
재단법인 청담장학문화재단, 학교법인 청담학원 청담중고등학교, 도선불교 실달학원 교리반 경전반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불교양로원, 혜명보육원, 각구 어린이집 11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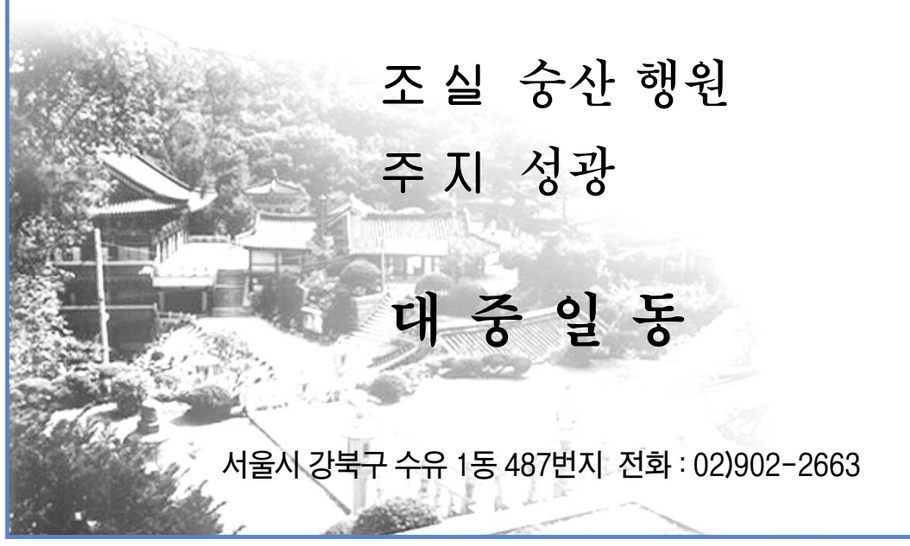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대중일동 합장

우142-87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전화 02)993-3161~3 / 팩스 02)993-3164 www.dos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화 계 사



조 실 숭산 행원
주 지 성광

대중일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 02)902-2663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의 밝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초파일을 맞이하는 마음자세

문 오신 바가 없기 때문에 가신 바 또한 없다고 하시지만,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금,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야 하는지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답 해마다 봉축일이 다가오고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습니다만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해서 더 한층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사람 되는 법을 가르치셨고,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 뜻을 알고 자기를 깨달아서 그 길을 따르게끔 또 가르치셨고, 영원한 불생불멸의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각자 그 마음을 깨달아서 밝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켜는 연등이 우리 모습, 몸으로 표현했고, 그 등 속의 촛대는 우리네들 중심으로 표현을 했고, 그 불은 영원한 불성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등을 켜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 내 마음을 계발시키고 내 마음을 진화시켜서 승화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는 '아집을 버려라. 너라는 것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환상을 놓아라.' 하셨는데 모든 게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오늘이 옛날 그 시절에만 있던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늘이 있을 거고, 오늘도 오늘이 있을 것입니다. 삼천 년 전에만 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몸소 몸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 주시고, 행을 보여 주시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길을 인도한 그 뜻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해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각자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밝게 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뜻을 표현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또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나, 그것을 한생각에 놓으면 그 고통은 다 사라지느니라. 아집을 갖지 않고 욕심 없고 또는 남을 탓 안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이 됐으니 부처도 될 수 있느니라. 부처도 될 수 있으니 바로 어느 것을 이름해서 부처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길에서 가신 님이 되실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뜻을 소상히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배우고 나가면서도 한 치도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의 밝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어떠한 날인지도 모르면서도 등을 켜고 '우리 식구가 잘돼야지.' 하고 등을 켜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등을 켤 때 우리 마음이 항상 온 누리에 함께 하고 있고, 같이 공생하고 같이 공용하고 공체이기에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온 누리가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데도 생각이 있고 보이는 데도 생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도 생명이 있고 보이는 데도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게 돌아가는 잘나잘나의 생활, 시공이 없는 생활, 그대로 밝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밝다 밝지 않다 하고 온갖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거기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밥이 없더라도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면 아침밥 굶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영원하게 건져 주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는데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아십니까? 조그마한 거, 큰 거 작은 거 아니, 언짢은 거 나쁜 거, 이러한 것을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천차만별로 변동하면서 잘나잘나 변해 가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건져 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이 안 들면, 내가 구덩이에 빠져 보지도 않고 구덩이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구덩이의 맛을 알며 어떻게 나와서 그 즐거운 맛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마음,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마음, 이 양변을 다 누가 하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스러우니라. 마음 한생각이면 자유스럽고, 한생각에 빠지면 바로 고가 붙어서 중생이니라. 그러니 한생각을 잘하라. 너희 맘대로 하는 생각인데 어찌 그렇게 어둡다고 하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지금 모두들 보면, 전 세계를 보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아집과 내 것, 내 가족, 내 나라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즉 공용하면서 공식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아량과 지혜, 사랑과 의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자유인이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쫓고 쫓기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 요런 물 한 컵 속에서 물끼리 싸워 봤던들 물이 물이지 뭡니까.

그래서 물이 튀겨서 물이 다 없어지면, 물이 마르고 그래서 잔등이도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지구를 집으로 알고 우리나라도 집으로 알고, 가족도 집으로 알고 몸뚱이도 집으로 적게 생각하면 적은 그릇 한 그릇, 크게 생각하면 크게 한 그릇, 이렇습니다. 이 원리를 내가 질서 있게 얘기를 못해 드려도 그 뜻은 질서 있게 들으시고, 좀 더 감응이 되셔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아량과, 우리 모두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크게 가지신다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 하나를 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이 밝아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바로 부처님이 밝게 계시고 여러분 마음도 밝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고통을 받지 마시고 부처님이 일러 주신 대로 밝고 고통스럽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둘이 아닌지요?

문 모든 선지식께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보고 내 아픔과 같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본래 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 아닌 도리를 마음으로 체득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요.

답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 주고받고 삽니다. 더불어 살지 혼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옷도 더불어 같이 주고받고 입고, 먹는 것도 주고받고 먹고,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줬고 분명히 받았는데 어찌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러겠죠.

내가 전깃줄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방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끊어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전깃줄을 갖다가 이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서로 주고받을 때, 한순간 같이 마음이, 즉 말하자면 정신계가 둘 아니게 이어진단 얘깁니다. 이어지니깐 좋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단 얘기죠. 그리고 함이 없이 살고 있고 삶이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머슴을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죠. 주인이 맘대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듯이 주인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듣는 순간, 주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깐 항상 그 한 좋나 좋나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이 없이 하게 된단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한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겠다 이러고 하는 데도 함이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남이 주는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이가 없고 그 상대방도 준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둘 아니게 실천을 해야 할 텐데 둘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 알고 있지 실천을 할 수가 없단 얘기죠. '항상 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째서 둘이 아닌가. 저쪽에서 나를 줬고 내가 저쪽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한순간 전깃줄에 닿는 거와 같단 얘기죠.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빨라요. 속도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속도가 빨라서 한생각에 그냥 갖다 놓고 고맙다, 고맙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로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고맙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만 둘이 아니게 실천이 되느냐 이겁니다. 모두 내 몸뚱이를 가지고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를 줘도 상대방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데 합쳐 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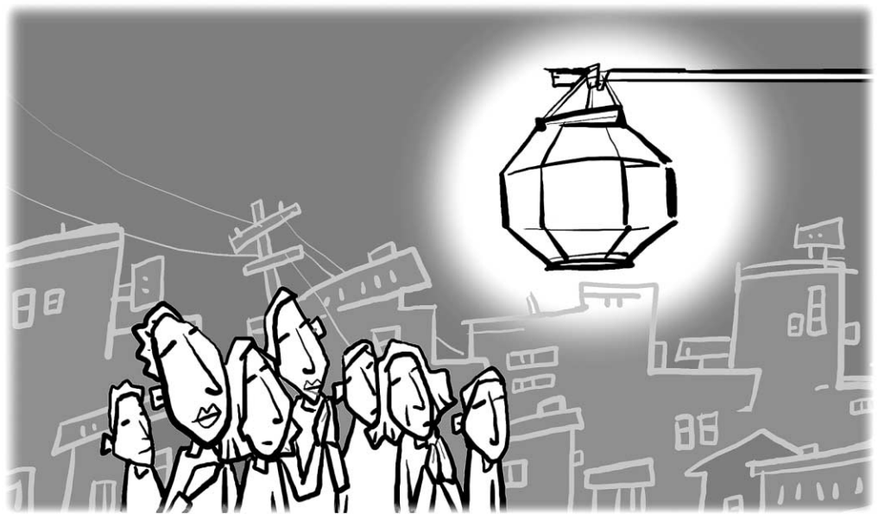
처음에는 서투르지만 그게 둘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자꾸 늘어 나가게 되요.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유유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모두를 합류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몸뚱이도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개의 생명이 몸속에 살아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니 모습을 보고선 너라고 그러지 말라.' 고 이랬죠.

그랬는데 이게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죠.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것 좀 먹어 보오." 이러고 줬는데, 그냥 줬는데도 그냥 둘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둘 아닌 줄 알고 줬어도 그렇고 받았어도 둘 아닌 줄 알게 되면 받은 것이 저절로, 대가가 그리로 가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모른다면 큰 도리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개미들도 보고 여러 가지 벌레들도 많이 보죠. 벌레 뚱우리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삽으로 딱 터지게 되면 그게 그냥 쫙 헤지면서 땅에도 묻히기도 하고 그냥 모두 다리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다 죽게 되고 사는 놈은 살고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보는 거나 우리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죽는 거나 뭐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야죠. 자기가 해결해야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면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그거를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를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진화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생산이 되고, 살아 있으면서도 길을 찾고 살아 있으면서도 길을 걸림 없이 걷게 될 때에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내 육신을 거기다 그냥 버려서 주장자 하나로 갈 수 있어야

공부 상태를 점점하고 싶습니다

문 수행자가 수행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회광반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도반 중에는 어두운 산길을 밤새 걸어 보기도 하고 남들이 주저하는 그런 곳을 시험 삼아 다녀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님, 저희와 같이 마음을 닦아 가는 수행자들이 자신의 공부상태를 한 번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편을 설하여 주신다면 공부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답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한도량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해요. 왜냐하면 천차만별의 다른 모습들이 제각기 한 개체로 살지만 그 마음과 생명은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이지요. 그런데 왕창 그 주머니를 벗어나서 나의 육신 주머니를 벗어나야 또 한 개체인 주머니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자기가 점검해 보고 가는 거 잊지 말도록 하고, 자기를 돌아다볼 줄 알고 또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질로서 귀신이 내 앞에 딱 나타났다고 할 때, 그건 좋나지 일 초다 뭐 이 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관할 사이도 없구요. 그렇게 한 좋나에 귀신이 덤빌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묵살시키는 그런 이치가 있는지, 한 번 자기 점검을 자기가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또는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 왔을 때 나는 과연 내 몸이 아니, 내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는가, 움죽거리는가. 움죽거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움죽거리겠어요, 움죽거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방편인데 큰 구렁이가 내 앞에 뜬금없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언제나 연습하고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 마음을 말입니다. 점검하면서 행할 수 있는, 행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사실을 알면 꽤 나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순간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대치를 하겠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대치를 하겠는가.

그래, 그 도리를 모른다면 마음이 안 움죽거릴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항상 말하듯이 좋나 좋나 화해서 나툴 뿐이지, 내 몸은 바로 없는 것이에요. 시자로서, 자기 자불의 시자로서 움죽거릴 뿐이지, 내가 그만한 자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돼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불과 자아가 같이 둘 아니게 지금 현실에 콤비가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반쪽은 항상 처지는 겁니다. 걸음을 걸어도 두 발로다 뚜벅뚜벅 걸어야 걷는 거지, 어떻게 한 발로 맞춰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한 발 한 손은 그 두 발이 하나로 돼서 한 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6면으로 계속

찰나찰나 화해서 나툴 뿐 내 몸은 없는 것

☞45면에서 계속

그래서 예전에는 대답을 못하면 그 뒷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찰나찰나 화해서 나툰다 이겁니다. 고정됨이 없다. 그리고 내 몸은 내 몸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집합소죠. 집합소니까 내가 물을 한 모금 먹어도 더불어 같이 먹는 한 개체지, 내가 먹은 게 없다 이거예요. 또 내가 봐도 내가 본 게 없고 내가 들어도 내가 들은 게 없다 이겁니다. 왜냐?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해서 보는 거니깐 말입니다. 자기가 따로 있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도 더불어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말 못하고, 내가 산다는 말을 못하고, 내가 잘했다는 소리 못하고, 내가 죽는다는 소리 못하고, 내가 산다는 소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귀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내 몸이 그냥 그대로 버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버린다 안 버린다를 떠나서 버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버려져 있는 자기 몸을 함이 없이 움죽거리고 함이 없이 하고, 함이 없이 보고 함이 없이 듣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는다 산다도 팽개친 몸이 돼서 그렇게 공했다는 얘기예요. 공해서 팽개친 몸이라서 마음이 절대로, 어떠한 문제가, 귀신들이 합빡 한 방으로 들어앉았어도 그것은 움죽거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굴하지 않고. 자비로서 굴하지 않는 거지, 악으로서 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돌이 아닌 까닭에 굴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나오고 모두가 조복을 받게끔 된다는 소리도 나오겠지요. 일단 막말로 내 몸이 본래 그렇게 버려져 있고 시자로서 움죽거려 줄 뿐인데 그 마음이, 마음의 줏대가 주인공의 줏대라면 그러고도 남죠. 내 몸을 그대로 자기 주인공에게 버린 거니까. 주인공의 시자일 뿐이지 내가 산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가끔 그러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자기 점검을 자기가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과 하나를 들고 독사굴에 들어갔다고 하지요. 똑같진 않지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가르치느라고 사과 하나를 들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 부처님께서는 거기 들어갈 때 사과 하나를 들고 들어갔는데, 독사를 대신해서 주려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앉으니까 이건 그 뜻을 모든 사람들한테 일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지요. 부처님도 없고 독사도 없고 사과도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이지요. 그저 말을 방편으로 지어 놓는 대로 곧이듣고, 한번 뒤집어 보지도 않고, 재껴 보지도 않고, 덮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말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속 내면에 뜻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찰나에 달려들었다면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움죽거리겠느냐. 이건 사량과 이론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이죠. 됐다 하면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쉬운 말로 '관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때 통구리에는 관할 사이도 없고…. 사람이 죽어 갈 때에 목숨 탁 끊어질락 말락 할 때에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 몸을 와짝 버린다면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을 테지요. 내가 죽는구나 사는구나 하는 것이 본래부터 없으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그게 본래부터 없다는 것을 알고 간다면, 그렇게 내 몸을 비우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도 역시 비어 있기 때문에 둘 아니게 돼 버리지요. 내 몸을 비우지 않고 항상 마음이 내 몸에 대한 착과 이쁜 것에 대한 착과 좋은 것에 대한 착과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열반도 살아서 열반이지 죽어서 열반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지금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닦아 나가야지, 죽고 나서 누가 닦아 줍니까, 대신 해 줍니까. 죽고 사는 걸 어떻게 대신 해 줄 수가 있고, 깨닫는 것을 누가 대신 해 줄 수가 있고, 잠자고 밥 먹고 똥 누고 하는 걸 어떻게 대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의 선조들께서도 네 몸이나 내 몸이나 둘이 아닌 까닭에 없다고 했죠.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이 몸뚱이는 마음에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떠한 마음이 움죽거릴 수가 없다.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고 내 마음으로 자칭은 하지만 진짜 이것은, 무의 세계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공 도리예요.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돌아가는 공법의 도리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산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그대로 여여하게 굴리고 또는 갖추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냥 여여하게 들이고 낼 줄 알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야만 그거를, 모든 거를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알 거예요. 내 차원이 얼마만큼이나 됐는가를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도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는다 이런다면 다죠, 뭐. 우리가 사는 게 그대로 움죽거려서 심부름할 뿐이지 내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버린 그 마음으로 실체를, 그냥 실체가 아닌 바로 육신을 다 버린, 거기다 그냥 버려서 주장자 하나로 간다 그러면서도 여여하다는 소리는, 움죽거리면서도 갖은 각색의 움죽거림을 다 함이 없이 한다 이거죠. 하지 못한다 한다가 없어요, 이거는. 내 앞에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내 앞의 일들을 묵묵히 그대로 싫다 좋다 없이 그대로 하고 가야 돼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야만이 그게 진짜 하늘 꼭대기에 올라서서 꽃으로 화하게 해서 수많은 자꾸 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녀가 내려온 것은 그 천녀가 아닌 자기를 낳은 근본, 낳아 준 그 부가 천녀로 화해 가지고선 거기에서 떡 나타난 거죠. 왜 그걸 떼려고 그러느냐. 여자든 벌레든 남녀를 막론해 놓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떼려고 하느냐. 길에 가다가 남자가 말입니다, "야, 내가 당신을 못 보면 죽어. 당신을 꼭 하루 저녁만 보고 싶소." 하고 붙들고 늘어진다면 지금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까짓 몸뚱이 이거 다 버린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그걸로 인해서 죽는다면, 앞의 것도 제도 못하는 사람이 뒤의 거를 어떡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파계했다고 그러죠. 또 남자도 여자가 그렇게 붙들고 매달릴 때, "난 당신 아니면 죽겠소." 할 때, 정말 그것을 벌써 어떠한 용도인가, 그 마음 가짐가짐이 어떠한 용도인가, 정말 죽을 수 있나 하는 거를, 봐서 그것도 그러죠. 웬만하면 말로 설법을 해서 다 이렇게 해 주지만, 참 따뜻하게 해 주면서 그것을 다 녹여 주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 스승이라고요, 그게. 왜?

그래 나의 근본에서 나를 놓고선, '네가 여기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다 제도할 수 있고, 또 제도보다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띄어 줄 수 있고 귀를 띄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걸린다면, 남녀에 걸린다면 난 못해.' 하고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자기 부처님께서 그거 탁 가로막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때도 그냥 그걸 딛고 넘어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비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구 스님은 아주 청정하고 계율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주 못살게 매달려서 십 리고 이십 리고 어디를 가든 곳곳마다 쫓아서 오는 겁니다. 대학교도 나왔고 다 했는데, 쫓아다니니까 어디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사람하고, 너의 소원을 풀어 주겠다고 해서 닷 새를 묵고선 인제는 소원을 풀었으니까, 이 육신은 흙과 같고 썩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뭐겠느냐? 그 닷새 동안에 설해서 하여튼 그 여자가 아주 다 녹아 버렸어요. 마음이 녹아 버려서 그 여자는 여자대로 간 곳이 없어지고 그 남자는 남자대로 참, 어디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 나이 적어서 그런 경우를 봤다고요.

그러한 사람이 사람이지, 툭툭 털고 그냥 요렇게 하면 공부는 정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뛰어들어 보고 그러는 것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해 나갈 뿐이지, 어떡해요? 이거를 그렇다고 내세울 바도 못되고, 내놓을 바도 못되고, 그냥 이렇게 먹고 입고 이렇게 그냥 하고 갈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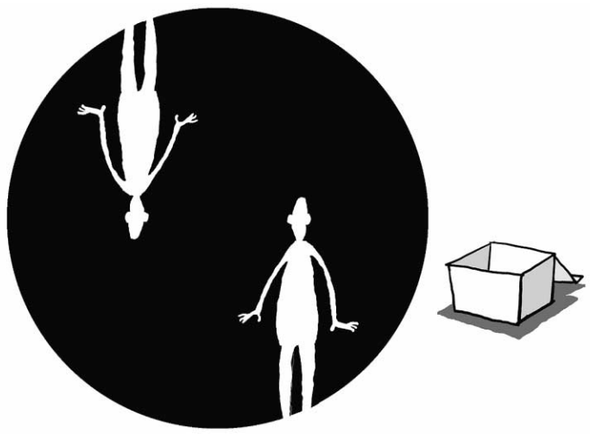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알면서도 뛰어들어 보는 것이 공부

꽃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문 『유마경』에 보면 천녀가 꽃비를 내리니까 보살들한테는 꽃이 떨어지는데 사리불한테는 자꾸 붙어서 털려고 해도 더 달라붙어요. 그래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사리불이 막 때려고 그랬더니 천녀가 화현을 해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사리불 존자께서는 왜 그렇게 꽃을 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출가한 사문에게는 맞지 않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가한 비구는 꽃을 달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서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상스럽지 못하게 꽃이 나한테 달라붙으니, 부처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천녀가 하는 말이 "꽃은 분별하지 않는데 존자께서 분별하십니다. 만약에 사리불 존자께서 분별하는 마음, 꽃이라고 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꽃은 스스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 보살들을 보시오. 보살들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꽃이 그냥 아름답게 흩날리고 있을 뿐인데, 유독 존자를 귀찮게 굴고 있지 않소?" 라고 한 그런 설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꽃비가 무엇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 꽃비를 내린 것은 여러 가지로 씁니다. 꽃비는, 즉 말하자면 마음의 환희를 말할 수도 있고, 향기, 마음의 등도 될 수 있지만 자기 속의 천녀가 내려온 것은, 즉 자기 마음에 그것이 감응이 됐으니까, 자기는 발견을 했으니까 사리자라고 그랬겠죠.

그럼 "사리자여!" 하면 사리자 속에 턱 내렸단 말입니다. 이게, 즉 말하자면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붙고 안 붙고 그것을 떠나지만, 덜 놓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붙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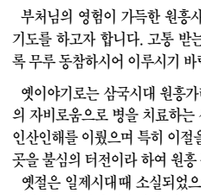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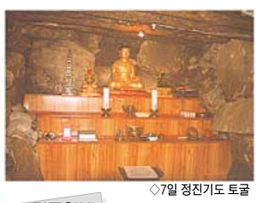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무료진단과 공개강좌 개시

인간이 질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한국 전통 기문미래 연구학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새로운 건강관리 운동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물품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 요즘 한창 성황중인 임상 홍체학은 무엇인가? ◎

"최첨단 눈 동공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진단 방식"

현대 중앙병원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지속할까?

카이스트 공홍진교수와 팔상 체질의학 창시자인 권도원 박사님의 체질 진단 공동개발 프로젝트 개발

● 자연치유 의학에 시작, 지구촌 자연의학 바람 거세다. (중앙일보 2004년 1월 25일자 기재)
● 자연치유 영양요법은 공해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사 : 경희대졸, 유니피아 홍체 자연치유학회 전문위원, 침코리아 홍체 강의 중)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무료강좌

매주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 규봉선생과 소인선생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

평생 직업! 오후 2시부터는 특강반 모집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하게 사주, 작명, 인상학, 궁합, 택일,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 한국 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9

부처님 조성 모연문

본 암자 **내원암**은 **지리산 도솔봉**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산내 암자로** 창건연대가 신라 경덕왕시대 8원 81암자 중 하나 였던 내원암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내원암에 거주하기 어렵도록 쇠락소멸 되어 터만 남은 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산승이 복원을 발원하여 **현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중** 입니다.

하오나 본승의 원력이 부족함에 부득이 **도솔봉 내원암에 모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 시주님**과 법당에서 사용할 **법당종 조성** 불사 인연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으신 많은 **불자님의 동참 인연을 기다립니다.**

※ 불구와 가전 및 일체 생활용품 등도 보시를 기다립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화엄사 산내
도솔봉 내원암 암주 보광당 지암 합장

연락처 전 화 061-783-0095
휴대폰 017-611-0096

● 온라인 : 우체국 601625-02-021246
국민은행 576-21-0308-915
예금주 : 장훈섭(지암스님)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줄 탁 동 시

(참선 · 부처님 호흡법, 자동단전호흡법, 챠크라 여는법)

- 쪼그리고 앉아 배꼽아래 명치를 손으로 쥐어보면 불행과 병고액난의 화병 덩어리가 잡히는데, 중단전 챠크라가 막힌 것으로 이런 사람은 호흡수련이나, 염불, 독경, 주력, 위빠사나, 참선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배꼽 주변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허리나 손가락 마디가 까맣게 되며, 얼굴이 붉어지고 상기병이 되므로 수행의 제일 우선 과제는 중단전 챠크라를 여는 것입니다.
- 중단전 챠크라 지옥 덩어리를 간단한 수행의 비법으로 찰라에 뚫리게 하여 순간 수승화강이 되어져 머리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오고 손, 발, 배는 따뜻해지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 위빠사나, 참선 단전호흡 수행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쳐지고 허리를 약간이라도 구부리고 또한 너무 반듯한 자세로 경직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100% 상기병 걸리니 자세법, 이완법, 집중법을 철저히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 염불, 독경, 주력 수행의 들숨시에 배가 들어가고 어깨, 가슴이 들먹거리는 역호흡으로 숨을 들어마시게 되면 불행의 늪인 병고액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동단전호흡법을 배우시게 되면 몸과 마음과 호흡이 참으로 건강한 수행자가 되어집니다.
- △ 자동단전 호흡법의 기초에서부터 참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심신건강의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낮 반 : 오후 1시, 저녁반 : 오후 8시
☞ 수 련 비 : 입회비(만원), 수련비(월: 3만원)
☞ 오시는 길 :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氣차게 잘 쉬는법" 책 5월 출간 예정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 **개강** : 2004. 6. 9 (주간반 : 3개월 완성)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 **개강** : 2004. 6. 11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1966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한국비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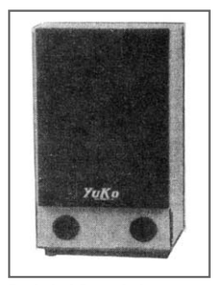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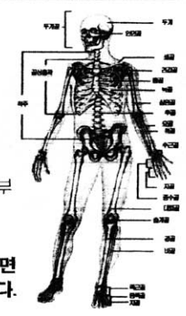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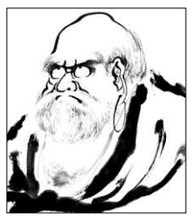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기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를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인연이 되시는 분은 직접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힘을 얻는 좋은기회가 될 것입니다.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 1동 1635-74호 극 락 암
011-1703-2770, 02)855-2959
불사에 어려운 스님에게 사주를 쉽게 통변하는 비법, 가공과 염력으로 영기를 천도하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물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천하명산 설악산 봉정암

철야정진기도 · 염불수련법회

대 상 일반불자(염불수행자), 스님

순례기간 2004년 5월 29일(토)~30일(일) 〈1박2일〉

출발장소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앞

순례코스 대구(29일 새벽 1시 출발)-백담사-봉정암-천불동계곡-신흥사-대구

수행내용 천불동 비경속에서 염불수련

문의처 **대구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범음 · 법패 의식교육원
053)622-0333 / 011-699-9120

※ 가야산 철야기도는 매달 넷째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정진하오니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